

# MAXIM

KOREA

BOND GIRL

베레니스  
말로히

007

신참 본드걸이 맥시를 피해갈 순 없대  
어머, 베양아, 어서 와.  
제임스는 두고 왔겠지?

맥심 에디터가 본지에만 털어놓는  
본드걸 뺨치는 오피스 스파이질

GIRL

여신 발굴 프로젝트 #5: SHE'Z  
빅마마처럼 노래하는 씨스타 정도?

<화성인 바이러스>의 V걸을  
맥심이 납치했다. 당신을 위해.

바로 그! 표지 핑크 사건  
뒤태 에디터의 역습

컴백, 패왕색기 현아

MAXIM KOREA  
2013 공개 채용

슈스케보다 치열한  
MAXIM 입사 서바이벌.  
2013 정기 공채 공고!  
MAXIM 상륙 이후  
최대 규모의 공채가  
당신을 기다린다.

2012년 11월호  
정가 5,600원



엄지들아, 함네!

GAVY NJ

2년 만에 새 멤버로 MAXIM 컴백  
가창력 그룹 아니냐고?  
우리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TALK

<푸른 거탑> 인생 말년  
우리 상육보다 찰진 북한 육두문자

COVER STORY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을  
선정하는 차트 중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MAXIM의  
올해 HOT 100이 발표되었다.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 1등!  
2012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은 바로 톱 모델 바 레파엘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전 여친인 그녀의 세계 제패를  
증명하는 란제리 화보가 펼쳐진다.  
왜 그랬어, 디카프리오?

BAR  
RAFAELI

HOT 100 No.1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전 여친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애인의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해 보일 땐 왠지  
기대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날은  
100% 남자에서 65% 남자쯤으로 보인다  
속상하게... | 26세 여자 스투어디스 |



LANEIGE  
HOMME

Active Water Cream



Moisturizing

Concentrated oxygen water recharged misture  
for instantly revitalized and supple skin

100%  
MAN

24시간 피부 수분 100% 유지 대책, 라네즈 옴므 액티브 워터크림  
특히 받은 액티브 워터의 강력한 피부 활력 충전 / 즉각적인 피부 속 수분 공급 촉진

LANEIGE HOMME

# CONTENTS



## CIRCUS MAXIMUS

- 18 거리에 넘쳐 나는 쓰레기로 돈을 벌어보세
- 20 찰지고 쫄쫄득득한 북한 비속어 사전
- 22 세상의 흔한 미인대회
- 24 에디터 추천: 군대에서 써먹기 좋은 뺑기 스킬
- 26 니 귀에 캔디, 내 귀엔 벌레. 귓구멍에 사는 벌레가 있다. 없다?
- 28 알고 있나? 짱구 과자에 짱구가 없다는 사실!
- 30 라면으로 여자 꼬시는 법

## MAXIM

- 14 드디어 시작된다. <슈스케>보다 치열한 MAXIM KOREA 2013 정기 공채

## 24 HOURS TO LIVE

- 36 '푸른 거탑' 팀과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말년에 단명이라니!

## RATED

- 42 패왕색기 현아의 컴백, 그녀의 골반에 경례!
- 44 이달의 신작 영화
- 45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만든 배꼽 잡는 유튜브 영상
- 46 판타지 액션을 능가하는 기상천외한 요리 만화
- 48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에 질린 당신을 위한 슈퍼히어로물

## MUSIC

- 50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베이시스트 이주현이 MAXIM 걸그룹 화보 촬영장에 들이닥쳐 왔겠다. "와우, 시팔. 이거 끝내주잖아?"

## GAME

- 52 요즘 잘나가는 온라인 게임 4선

## STUFF

- 54 얼리 버드에게 선사하는 닌텐도의 빅 옛 닌텐도 3DS XL
- 56 게을러진 당신을 위한 가전 기어들
- 62 초침단 사이버펫 다마고치

## MOTOR

- 65 올해 파리 모터쇼를 달군 렉서스의 비밀 붐기
- 66 MAXIM의 스무 번째 TEST DRIVE: 푸조 RCZ 세상에서 뒤태가 가장 섹시한 스포츠카와 MAXIM 최고의 뒤태 에디터가 결합(?)하다.

## 102 바 레파엘리

2012 MAXIM HOT 100 리스트 맨 꼭대기에 이름을 올린 세계 최고의 모델 바 레파엘리.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에 감동하여 그 아름다운 육신을 랜제리 화보에 담아 MAXIM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디카프리오, 졸라 배 아프지?

# ALBA

POSITIVE & SMART



ALBA 직영매장 세이코부터크 스타시티점 02)454-8400 / 갤러리아 쿠파코점 02)390-7322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면세점 롯데 / 신라 / 동화 / 파라다이스 / JDC / JTO / KTO / 워커히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82  
ALBA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외치(771-7033) / 패션존(3398-7527) / 사포(2118-8075) / 대광사(753-1929) 종로 신진사(2264-3203) / 정신사(741-9678) / 정우상사(2272-2688) / 삼성사(2279-7680) 서초 와와치(537-8977) / 신비파(532-2121) /  
원치준(364-0596) 송파 타임존(411-0829) 광진 TM타임(3424-7073) / TM시계백화점(3424-0793) 강동 골드시계(484-2029)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드라시계(971-5334) / 워치록(070-4136-5090) 서대문 타임월드(313-4109) / 타임사리(6373-7743)  
영등포 백성당(2634-0709) 관악 타임(6299-7166) 구로 타임타임(2111-1141) / 시계백화점(2111-1120) / 스타일워치(639-5128)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68-0871) / 스타일워치(2667-9508) 인천(032) 남동구 정타임(432-2430) 부천  
독특(662-2026) / 시계나라(329-0894) 부평 진스포츠(502-7138) 경기(031) 고양 타임(931-5300) 수원 스타일워치(240-2199) / 지지컬렉션(221-4997) 화성 타임플러스(371-8850) 안양 시계상자(441-0158) 성남 스타일워치(781-8194) / 타임24시(728-5370)  
안산 제이엑스(487-9057) 평택 스타일워치(646-6139)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블랑(245-7965) / 타이머블(919-4704) 부산진구 동하사(6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거제  
스타일워치(680-0193) 김해 일루이(334-8100)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89) / 해피타임(428-3098) / 월기(255-6840) / 젤마(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시(422-3002) / 조은시계(254-3977) 북구 정일품(325-8954)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필(613-1170) / 스위스(246-8944) 대전(042) 세이백화점(257-7745) / 엔비(255-6292) / 타임터치(482-2328) / 타임리스(823-9017) 충남(041) 천안 티파니(661-9438) / 알파와오메가(564-5465) /  
루치타임(522-6505) 충북(043) 청주 명공시(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 타임2(224-8851) 광주(062) 현대제일시(515-7172) / 골드룩(410-0137) / 굿타임(233-3050) 전북(063) 전주 세광당(289-2590) 익산 울어플렉(917-5515) 군산 티톡(443-0090)

# CONTENTS

## DEPARTMENTS

### 82 GAVY NJ

2년 만이다.  
 'Lady Killer'라는 풋풋한  
 새 노래와 함께 새 멤버,  
 새로운 분위기로  
 더욱 사랑스럽게 변신한  
 가비엔제이를 다시 만났다.  
 노래의 여왕이 외모,  
 몸매까지 짱 먹다니  
 너무 사기잖아!



### STYLE

- 72 낭만 수컷을 위한 가을 로퍼
- 74 아직도 털갈이 중이냐? 탈모 방지 샴푸
- 76 먹어주는 페스티벌 룩 완성하기

### ICON

- 80 그가 물면 이슈가 된다! 강용석!

### 한 푼 줍쇼

- 90 현장 르포! MAXIM 에디터의 노숙인 체험

### SPORT

- 96 야구 감독이 파리 목숨이라니!

### FIGHT

- 98 UFC 팬이 이 경기를 놓치면 바보제!  
 UFC on Fuel 6 IN MACAU

### SMOKE&DRINK

- 108 편집부 맥주 시음기(마감 때 시음하지 마)
- 110 세계 맥주 기행: 다크 라거 이야기
- 112 핫식스와 빈인텐스의 데스 매치
- 113 흡연 전용 영화관을 위한 MAXIM의 제안서

### MAXIM 여신 발굴 프로젝트 #5 쉬즈

- 114 빅마마를 꿈꾸는 신인 보컬들 쉬즈.  
 노래로만 승부하기에는 각선키가 너무 아까워.

### 코스튬 별천지로 오세요

- 120 강남 한복판에 나타난 코스튬 플레이어들

### NEW BOND GIRL

- 124 주의! 새로운 본드걸 베레니스 말로히의  
 아찔한 화보를 본 뒤 3초 후 자동으로 당신의  
 머리가 폭발합니다. 스리, 투...

### OFFICE SPY

- 130 회사 기밀 빼내고 라이벌 동료 옛 먹이는 법

### MILITARY

- 134 진짜 죽여줘! 지상 최강의 머신 건 TOP 5

### PARTY

- 138 무장해제된 민간인이 속출한 DMZ PARTY
- 144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2012 천태만상

### LOVE

- 150 초보자들을 위한 SM 플레이 가이드

### WHO'S THAT GIRL 한송이

- 152 그녀는 분명 화성에서 왔을 거다.  
 이렇게 섹시한 지구인 봤어?  
 <화성인 바이러스>의 V걸 한송이!

세계빙가전의 名家

Panasonic  
Ideas for life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역사상 최고의 렌즈혁명!

라이카 f1.4 렌즈의 우월한 밝기가

여친을 여신으로

기존 하이엔드

카메라의

렌즈 밝기

f5.6

f4.0

f2.8

f1.8

f1.4

LX7의 렌즈 밝기

디지털카메라의 혁명은 렌즈 밝기의 혁명으로 다시 시작된다!  
지금, 라이카 f1.4 렌즈의 우월한 밝기를 경험해 보십시오.

세계 최초 f1.4 여친렌즈를 장착한 슈퍼 하이엔드, 파나소닉 LX7

- 광각 24mm 광학 3.8배줌 (F1.4-F2.3)    • 수동 조리개링 조작, 풀HD동영상(1980 x 1080 60p AVCHD 프로그램서브)
- 초당 120장 초고속동영상촬영, 초당 11장 플래시도 초고속연사모드    • 와이드뷰잉 3인치 92만화소의 밝고 선명한 LCD탑재
- 인텔리전트 오토포커스(아웃포커싱, 색감, 명도 자유조절)



LUMIX LX7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 02) 533-8452
- 파나소닉 프라자(종합 전시체험 판매장) : 02) 542-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 <http://panasonic.kr>

eco  
ideas

#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대리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주임 송종민 j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이사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주임 이영환 lyh@maximkorea.net  
주임 조웅재 wj@maximkorea.net  
인턴 에디터 박수현 mari@maximkorea.net  
박종원 tt3314@maximkorea.net  
최동희 t578@maximkorea.net  
최성준 csjet89@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이용수 (레뷰 칼럼니스트) 강 산 ((엑스포즈) 기자)  
김대영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광희, 박종현 (라면 리뷰어 '누들러')  
급시니스트 (카툰 작가)

##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주임 신속희 ssh@maximkorea.net  
주임 전은경 eun@maximkorea.net

##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탐장 김진욱 14k@maximkorea.net  
메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메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주임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비서 김화현 sm@maximkorea.net  
인턴 이현구 leehg@maximkorea.net

## WEB SERVICE / 웹

토크엔  
탐장 서정민 oreiss@town.com

##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기수  
포토그래퍼 실장 김영석  
포토그래퍼 실장 박 울  
포토그래퍼 오준섭

## 교섭

신선경 kshin0111@daum.net

##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광관

##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자사리 192-1 인쇄인 아편순

##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자용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9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11월호 통권 제31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b>ARGENTINA</b> Germán Pittelli	<b>CZECH REPUBLIC</b> Pavel Vondracek	<b>ITALY</b> Paolo Gelmi	<b>RUSSIA</b> Sasha Malenkov	<b>THAILAND</b> Surawong Kruaefan
<b>AUSTRALIA</b> Santi Pintado	<b>GERMANY</b> Mike Bleibtreu	<b>MEXICO/LATIN AMERICA</b> André Félix Díaz Rojo	<b>SERBIA</b> Lazar Jovanovi	<b>UKRAINE</b> Sasha Malenkov
<b>BULGARIA</b> Alexander Zhekov	<b>INDIA</b> Vivek Pareek	<b>POLAND</b> Krzysztof Papliński	<b>SOUTH KOREA</b> Young-Bee Lee	<b>UNITED KINGDOM</b> Stuart Messham
	<b>INDONESIA</b> Ronald Adrian Hutagalung	<b>PORTUGAL</b>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b>SWITZERLAND</b> Boris Etter	<b>UNITED STATES</b>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real automatic watches for man



AR510SWS AUTOMATIC



ARBUS  
New York

New York based watch brand, Arbutus, introduces a new range of mechanical watches in South Korea. Targeted at entry level watch collectors in South Korea, its perfect for the consumer who is just starting to appreciate the craft of horology.

Arbutus's exquisite fully mechanical watches amalgamate precision mechanical movements and sophisticated designs.

수입처 : 글로벌타임 Tel 02.778.1590  
www.arbutus.co.kr

쉐이빙가전의 名家

Panasonic  
ideas for life

스타일 없는 남자에겐  
눈길도 주지 않는다

면도기도  
마찬가지다



밀라노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하게 -  
파나소닉 Milano Sh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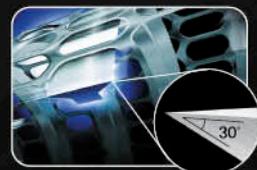
시각의 동물인 남자들은 겉모습과 스타일을  
먼저 보는 습성이 있다.  
그런 그들을 충족시킬 새로운 아이템 -  
파나소닉 Milano Shaver  
디자인에 먼저 반하고 밀착력 있는  
쉐이빙에 또 한 번 감탄할 것이다!



클리닝셔터로 망을 제거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세척 / 관리



Multi-fit Arc 망이 더욱  
깊은 밀착 면도 실현



30° 예각 Nano Edge날이  
향상된 절삭력 선사

파나소닉 종합 전시체험 판매장



Panasonic Plaza

파나소닉 프라자 대표번호 02-542-8452

• 헬니스 존 • 에스테 룸 • 루믹스 셀프 스튜디오 • 리빙 룸 • 시스럼 존    당신의 생활을 높여줄 놀라운 아이디어, 파나소닉 프라자를 경험하세요



# LETTER FROM MAXIM

## WANT YOU! WANT YOU!

매번 긴장되고 기대되는 순간. 2013년 MAXIM 상반기 정기공채를 곧 시작한다. 농부에 비하자면 다음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리는 작업이다. 이 씨가 벼가 될지, 초대형 바오밥나무가 될지, 장미가 될지, 끈끈이주걱이 될지, 미리 예측하고 자리에 맞는 씨를 골라내야 하는 거다. 내년 신입 수습 직원을 어떤 XX, XY로 채워야하나. 쉽지 않은 문제다.

MAXIM에 입사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메일을 자주 받는다. 이번 기회에 전체 공지 한 번 날려야겠다(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14페이지 정기 공채 안내를 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그것을 남에게 글, 그림, 말, 영상으로 전달할 능력이 있을 것, 낯선 일을 참고 인내할 만큼 그 일을 좋아할 것, 남을 즐겁게 하고 싶다는 '목표의식'이 있을 것, 건강할 것(건강할 필요는 없음. 우릴 보면 알잖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남다르되 부정적이지 않을 것, 관심사가 넓거나 또는 아주 깊은 것.

여기까진 다른 미디어나 타 직군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지. MAXIM을 좋아할 것.

그리고 보니 지금 MAXIM을 보고 있는 독자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조건을 통과했다. 오래 전 내가 MAXIM에 입사했을 때에도, 나 역시 MAXIM 잡지 속 편집장의 글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접수 마감일에 부랴부랴 서류를 넣어 온 줄게 바로 다음 날 면접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한 번도 외출할 때 입어보지 않은 투피스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맥심엔 어떤 사람이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면접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난다. 당시 편집장님은 나에게 'MAXIM이 마초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답은?

안 가르쳐준다! MAXIM의 패밀리가 되고픈 사람이라면 답을 한 번 구해보라. 현명한 MAXIM의 독자 여러분이라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터.

2012년 11월 편집장

이영비

THE  
MAXIM PARTY  
with **BILZARD**  
ENTERTAINMENT

WORLD'S HOTTEST MAGAZINE AND WORLD'S COOLEST GAME  
PARTY TOGETHER IN NOVEMBER 2012.

AND YES, SHE IS COMING, TOO.



# PERFETTO

Swiss made  
Sapphire glass  
See-through case back  
ZASPERO Cal.3540D.Z1



Moderno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 영 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 롯데백화점(대선점) 042)601-2149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138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병곡점) 031)648-6139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가든파라드(송파점) 02)2157-5000
- 투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엠 타 임(영선리) 02)2200-1355
- 탑 타 임(안산점) 031)413-7656
- 케이플러스(천안점) 041)564-5465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티 파 니(광주점) 082)671-7458
- 중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일산점) 031)909-3293
- 롯데백화점(신주점) 063)289-3191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235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오해피타임(용산점) 02)2012-0625
- 투산타워 2(동대문) 02)3398-6528
- 미 굿 시(중앙점) 02)434-4890
- 워치보이(인천점) 070)8832-5300
- 북 와 치(청주점) 043)223-1333
- 엘 가(구미점) 054)451-6940
- 조 이 갤(포항점) 064)013-1170
- 롯데백화점(분점) 02)772-3124
- 롯데백화점(평촌점) 031)8086-9248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32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4783
- 현대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이 와 치(병곡점) 02)771-7033
- 테크노마트(강변점) 02)3424-0793
- 알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워 치 록(노원점) 070)4136-5090
- WatchF1(부평점) 032)501-7015
- 예진시계(대전점) 042)280-9117
- G-ZONE(구미점) 054)455-2410
- 타임피라(포항점) 054)253-8855
- 롯데백화점(성심점) 02)2143-7282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 롯데백화점(모란점) 054)230-1137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세운스퀘어(종로점) 02)2272-2698
- 테크노마트(신도림점) 02)2111-1120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타임 24 (일산점) 031)931-5555
- 타 임 런(부평점) 070)7516-4545
- 상 상 사(대구점) 053)422-3002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인디폴코론(강남점) 052)9111-7111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630-6734
-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53
-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19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이타인월드(신촌점) 02)313-4108
- 다류브시티(신도림) 02)2211-0149
- 이 초 와이(동대문) 02)323-0980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뽕 까 롱(부천점) 032)662-0688
- 엘 가(대구점) 053)255-6840
- 굿 타 임(광주점) 062)227-3050
- 플 랑(부산점) 051)245-7965
- 롯데백화점(청리리) 02)3707-1190
- 롯데백화점(경북점) 051)678-3155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와 와 치(강남점) 02)537-8977
- W-MALL(구로점) 02)2081-0921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사촌주말리(안양점) 031)463-9788
- 뉴코어이플렛(부평점) 032)624-8337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골드캐니언(광주점) 062)714-1121
- 타임폭발(부산점) 051)919-4704



# M LETTERS

가을의 막바지와 겨울의 시작이 겹치는 11월. 점차 추워지는 날씨와 마감 스트레스로 날카로워진 에디터들이 따뜻한 한 마디를 구하는 독자들에게 칼바람 같은 답변을 날려 준다.

독자 사연  
투척하기!



##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잘 만났다. 이새끼!

사건 지 3개월째 되는 여친과 한창 불타는 사랑을 하는 20대 초반의 남자 사람 학생이요. 그날도 술을 거나하게 들이켜고 사촌 일대에 있는 러브 플레이스로 발걸음을 옮겼소. 그렇게 똘똘 모를 황홀한 밤을 보내고는 조심스레 모텔 입구로 나오고 있었는데. 남친 손을 잡고 들어오는 전 여친을 마주쳤소. 워낙에 몸쓸 짓을 많이 해서 두려운 나머지 여친 손도 놓고 뛰쳐나왔소. 물론 여친은 정황상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를 간 듯하오. 뭐라고 변명해야할지 모르겠소.

FROM 재수OHM, 이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그녀가 눈치를 간 것 같다면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그래도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그녀도 다른 남자랑 와본 모텔인데 처음 와본 척했다거나, 너무 자주 와서 카운터 직원어랑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도 모르는 척 엘리베이터로 꼬르르 달려갔다거나, 객실 리모컨 조작이 서툰 척했다거나, 대실 시간이 세 시간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빠 우리 여기 몇 시까지 있을 수 있어?"라고 눈 동그렇게 뜨고 물어보는 등의 만행을 수차례 저질렀을 테니까요.

## 권태기가 싫어요

본인은 연애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20대 후반의 젊은 사업가요. 대학 때 신입으로 들어온 어여쁜 후배를 어떻게 잘 꼬드겨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쪽 사귀고 있소. 오래 사귀는 탓에 가끔 연락이 뜸해도



내가 왜

임권택 (77)

서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여친의 거동이 수상해졌소.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많아지거나, 온종일 연락이 없는 날도 있고 말도 짧아졌다오. 권태기가 찾아오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요?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소. FROM rmfjwjak, 이메일 사연



에디터 이영한

연락이 뜸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니 참 훌륭한 황혼의 부부가 남셨습니다. 그대가 20대 후반이라면 여친은 20대 초중반이겠군요. 다시 말해 훌륭한 성품과 스펙의 남성들이 발에 차이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구태여 구역구역 이어온 6년간 연애를 연장전으로 끌고 가시겠다면 대화를 나눠 보심이 어떨는지요. 그래도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겨울과 그대의 통장 잔액이 그녀를 대신해 명쾌한 답을 내려줄 겁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의 누이도 그랬는걸요.

## 닭갈비 같은 남자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처자가 있습니다. 외모도 시원시원하고 얼굴도 예뻐서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 친구였는데, 저와는 벌써 3년이 넘게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 친구에게 고백했는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이라고 대충 돌려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보면서 하악대기라도 하면 토라져서 돌아가 버리고, 잠시나마 연락을 안 해도 잔소리를 한답니다. 고백했더니 거절한 주제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FROM 데시데사바사라, 이메일 사연



에디터 박한빛누리

Fire알이 있는 남자가 한번 까였다고 뒷걸음질치다니 참 게이스럽네요. 여자분의 반응을 보아하니 싫지는 않은데, 나 갖긴 싫고 남 주긴 아까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세요. 사건이면 좋은 거고 이번에도 차인다면 그냥 근처 모텔로 데려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차피 두 번 고백했다가 차인 여자랑 다시 볼 것도 아니잖아요.

## MISS MAXIM이 너무 좋았수아



정신이 혼미해진다

요즘 한창 치열한 MISS MAXIM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B컷 모음집도 구매했는데, 그 화끈함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수아 씨의 팬입니다만, 간혹복을 입은 자태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요즘 들어 입원하고 싶다는 욕구가 하늘을 찌르네요. 혹시 MAXIM 사무실에 찾아가면 만나 뵈 수 있나요?

FROM 수아짱, 편지 사연



에디터 조웅재

저희 에디터들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네 명의 MISS MAXIM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수일간의 야근에도 고떡없던 남자 에디터들 역시 코피를 쏟으며 원고를 붉게 적시고 있을 겁니다. 대신 MISS MAXIM보다 팬층이 두터운 여성 에디터들이 상주하고 있으니, 마감 기간 새벽에 찾아오신다면 MISS MAXIM B컷보다 보기 어렵다는 여성 에디터들의 생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오셔야겠네요.



HELL DIVER

1942 SB2C



헬다이버 | <http://www.helldiverwatches.com> |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총판 프로워치 02.779.6964

서울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5F 02-3398-7527 | 원타임(왕십리 역사) 02-2200-1355  
와와치(반포) 02-537-8977 | 이타임월드(신촌) 02-313-4108 | 타임랜드(불광NC백화점) 02-350-8417 | 이츠와치(홍대) 02-323-0980  
경기 - 샤론주얼리(안양) 031-463-9788 | 시계상자(안양) 031-441-0158 | 보석상자(안양) 031-466-1014 | 탐타임(안산) 031-413-7656  
타임24(일산 웨스턴돔) 031-931-5300 | 뽕끼통(부천) 032-662-0686  
인천 - 워치보이 070-8632-5300 | 타임런 070-7516-4545 | 청주 - 복와치 070-8721-9731 | 부산 - 타임봄 070-7530-1219



### 해외 출장은 MAXIM과 함께



독자 실제 투고 사진



저는 20대 후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입니다. 업무 탓에 출장을 자주 가곤 하는데, 이번 달에도 외국 출장을 갈 일이 있어, 늘 그렇듯 인천 공항 서점에서 예빈 양의 커버가 있는 MAXIM 10월호를 구매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펼쳐 놓고 예빈 양을 감상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한 중국 아저씨가 마누라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렸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뿌듯했습니다. 마침 제주항공 모델이 박빙이던데, 승리 이야기가 있길래 반갑게 읽었습니다. 이번 출장도 덕분에 알차게 다녀왔습니다. 특히 '맥심이 제안하는 성범죄자 관리' 기사가 꽤 기발하더라고요. 창의력 돈는 썩크빅 맥심 10월호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FROM D.R.E.V.I.L,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용재

글로벌 시대를 개척하는 편집부 에디터들의 마감을 향한 질주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대륙의 스케일,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쯤 그 아저씨는 부인 몰래 MAXIM KOREA 웹에 접속해 떡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성범죄자 기사는 송종민 에디터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직접 출연해 자신의 엉덩이에 막대기를 꽂는 연출로 에디터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답니다. 언제 직접 MAXIM 사무실에 찾아와 사인이라도 받아주세요. 상태가 좋은 날엔 펜을 둔부에 꽂고 사인을 해 줄지도 모릅니다.

### 도를 아십니까



네 어디로가고 있느냐

본인은 몸뚱이가 왜소하고 얼굴도 동인이라 나이에 비해 어리다거나 만만해 보인다는 오해를 많이 받소. 그래서인지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 변화가를 다니다 보면 꼭 얼굴에 복이 많다. 도를 아느냐 하는 거리 상주 남녀들을 만난다오. 말 가는 거에 반사적으로 눈이 마주치거나 "네?"라고 대답하고 나면 애기 들느라 온종일 잡혀있어 귀찮아 죽겠소. 선글라스 끼고 지나가도 정장 입고 지나가도 꼭 한 번씩은 잡혀오. 나중에 또 잡으면 이 길바닥이 니 집이냐고 말해 주고 싶소. 혹시 추천할만한 처방은 없겠소? FROM 복많은놈,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송종민

Q. 도를 아십니까?

- 허무 해결법: 네, 압니다.
- 철학적 해결법: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일지니... 어찌 제가 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만.
- 게임식 해결법: 저는 이도류입니다. 언제 지옥 난이도 한 번 같이 도시죠.
- 음악적 해결법: 도는 모르고 레는 알 것 같습니다.
- 육체적 해결법: 손을 덥석 잡고 귀에 속삭인다. "오늘 밤 제 방에서 알려주세요."

### 위기의 남자

저는 나름대로 인기가 좀 있다고 자부하는 20대 중반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수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대 놀이터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저보고 "혹시 그거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싫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후룩찌뽀뽀  
찰탄츄르르르

물어봤더니 저를 동성애자로 착각해서 그런 거라더군요. 이성애자임에도 주변에서 게이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FROM 빌리킴, 편지 사연



에디터 손안나

게이같이 생겼다는 건 어찌 보면 잘생겼다는 겁니다. 편견이지만 깔끔하고 패셔너블한 이미지잖아요. 만약 거울을 보고, 제 말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면 달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구요. "혹시 그거세요?" 가 "혹시 게이세요?" 라는 의미 맞나요? 흥대 놀이터 화장실에 혼자 앉아계셨다면 "혹시 X 마려우세요?"라고 물었던 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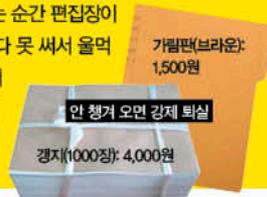
### 독자 사연 응모

보내주시는 양질의 사연을 정취하기 위해 오늘도 편집부는 소리 없는 혈투를 벌입니다.

### 응모 방법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접수 11월 방문 접수는 이렇게: 수능이 끝난 한가한 고딩들은 적적한 하루를 MAXIM 사무실에서 함께 보내보자. 교복을 꺼내어 입고 시험지 크기의 A3 사이즈 갱지를 준비해 오전 10시까지 MAXIM 사옥으로 찾아온다. 분주한 에디터를 사이를 지나 비어 있는 책상에 앉아 준비해 둔 시험지를 꺼내 아무렇게도 얹게 독자 사연을 작성한다. 11시가 되는 순간 편집장이 내려와 "손 머리!"를 외치며 아직 다 못 써서 울먹이는 당신을 뒤로하고 사연을 걷어갈 거다. 아쉬우면 남은 내용은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 독자 선물

이번 달 독자 선물은 건조하고 갈라지는 당신의 입술을 책임질 청량감 넘치는 **에브리맨택 립 밤 클링 하이드레이션**이다. 바르는 순간 클라빙 들고 일래스가 빙하 위에서 뛰노는 백곰과 촉촉하게 키스하는 기분이 들 거다.



# NEW ERA INTRODUCE

## WM-01 MELTON WOOL



### NEWERA STORE

- 서울매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B1F
- 인천매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SQUARE 2F

###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http://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 MAXIM KOREA

## 2013년 정기 공개 채용



세계 85개국에서 발행되는 최강의 글로벌 남성 매거진 MAXIM의 한국 법인에서 2013년 정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MAXIM과 함께 지구 최고의 매거진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갈 재치있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 전형 절차>

소속	모집직군	전형 절차
마케팅팀	홍보 및 이벤트 플래너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 3차 면접전형
경영지원팀	유통 관리직 임원 비서직	
편집부	매거진 에디터	1차 서류전형 ▶ 2차 과제전형 ▶ 3차 면접전형 (포트폴리오 제출)
	온라인 뉴스 기자	
디자인팀	영상 에디터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포트폴리오 제출)
	편집 디자이너	
편집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부	스타일링 에디터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포트폴리오 제출)

전형 절차	기간	유의 사항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	2012년 11월 7일 ~ 2013년 1월 22일 자정까지	MAXIM KOREA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접수. ※ 정해진 방법 외로 접수한 경우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 사진은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증명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1차 전형(서류) 합격자 발표	2013년 1월 28일 저녁 9시	MAXIM KOREA 홈페이지에 공고
이후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이후 일정 통지

### <서류 전형 면제자>

대상자: MAXIM에서 6개월 이상 어시스턴트로 근무하였거나, MAXIM에서 대학생 인턴십을 수료한 자. (필수 지원 자격은 갖추어야 함)  
특전: 서류전형 통과 (근무했을 때와 다른 부서에 지원 가능)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상의 <서류전형 면제자>란에 체크하고, 자기소개서 없이 입사지원서만 작성하여 접수할 것.

### <근무 형태>

인턴직: 사내 규정상의 인턴기간동안 근무하고, 업무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진  
급여조건과 복리후생: 사내 규정에 따름  
근무장소: 서울 홍대입구 MAXIM KOREA 빌딩



###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소속	모집직군	모집인원	필수 지원 자격
마케팅팀	홍보 및 이벤트 플래너	0명	-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편집부	매거진 에디터	0명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군 가산점 유)
	온라인 뉴스 기자	0명	- 전공 무관
	영상 에디터	0명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스타일링 에디터	0명	
디자인팀	편집 디자이너	0명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또는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일러스트레이터	0명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군 가산점 유)
경영지원팀	유통 관리직	0명	- 전공 무관 / 관련 학과 우대
	임원 비서직	0명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필요적성 및 우대요건>**

소속	모집직군	직무	필요 적성 및 우대 요건
마케팅팀	홍보 및 이벤트 플래너	-온라인 홍보/ 바이럴 마케팅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기획 -클럽 파티 플래닝 -모델 에이전트	-클럽 파티 플래닝 유경험자 -홍보대행업무 유경험자 -바이럴 마케팅 유경험 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자 -대외관계 및 친화력이 좋은 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우수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편집부	매거진 에디터	-콘텐츠 기획 -기사 작성 -화보 촬영 디렉팅 -섭외 -기타 MAXIM 매거진 콘텐츠 제작 업무 전반	-작문 능력이 있으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자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자 -영어 기타 외국어 능력 우수자 -매거진 에디터 및 어시스턴트, 인터넷 뉴미디어 유경험자 -사진 및 영상촬영, 편집 능력이 있는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온라인 뉴스 기자	-대외 취재 활동 전반 -온라인 기사 작성 -해외 MAXIM 기사 번역 등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영상 에디터	-화보 현장 촬영 -영상 취재 -영상 편집 -기타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업무 전반	-영상 촬영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한 자 -세련되고 감각적인 촬영/ 편집이 가능한 자 -영상 관련학과 및 경험 우대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스타일링 에디터	-화보 의상 스타일링 -헤어 및 메이크업 스타일링 -기타 편집부 지원 업무	-직접 헤어/ 메이크업 가능한 자 -헤어/ 메이크업/ 의상 관련 학과 또는 교육기관 수료자 -패션과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감각이 뛰어난 자 -관련 직무 유경험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디자인팀	편집 디자이너	-매거진 편집 디자인 -디지털 매거진 제작 -전자출판 관리 -웹디자인 -기타 디자인 관계 업무 전반	-Adobe Indesign 툴 사용이 능숙한 자 -지면 구성, 시각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자 -시각 디자인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관련 직무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일러스트레이터	-매거진 삽화 -웹툰 -티셔츠 등 제품 삽화 디자인	-Painter 툴 사용이 가능한 자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자 -회화, 웹툰, 캐리커처에 능하고 다양한 그림체가 가능한 자 -외향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회화, 만화 기타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직무 유경험자 -MAXIM의 매체 성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에 어울리는 삽화를 그리는 자
경영지원팀	유통 관리직	-매거진 유통 및 재고 관리 -구매 고객 관리 -판로 개척 -온/오프라인 서점 감독 -전산 설비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 -친절하며 대외 친화력이 좋은 자 -온라인 쇼핑몰 MD 유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MAXIM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임원 비서직	-CEO 또는 편집장 보좌 업무	-수행비서로서의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 -비서 기타 서비스직의 적성을 가진 자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이 능숙한 자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직무 유경험자

**<문의 사항>**

공채 관련 문의사항은 [recruit@maximkorea.net](mailto:recruit@maximkorea.net) 으로 이메일 문의 바람,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THIS MONTH'S  
HOT CLICK**

MAXIM 독자들이  
마우스 뽐사지도록 광글한  
바로 그 기사

## VICTIM OF VAMPIRE ATTACK

10월호 MAXIM 표지를 장식한 강예빈의 뱀파이어 짝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그 반응이 뜨겁다. "이런 뱀파이어라면 내 목에 빨대 꽂아서 피를 다 빨아가도 좋다"는 칠랄레 팔랄레 형부터 다짜고짜 남자 모델들을 향해 이새끼, 저새끼 욕설을 내뱉는 질투형까지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시골시골하고 발랄하기로 유명한 MAXIM 촬영장도 이날만큼은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다고 한다. 뱀파이어에 빙의한 듯 실감나는 연기를 펼친 그녀 덕에 촬영장은 스태프 수십 명의 침 넘어가는 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는데...

*코피 터지는 강예빈의 뱀파이어 화보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 섭외 요청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군 그녀는?

시크릿의 짝벌춤이 연일 화제다. 그중에서도 전효성의 허벅지는 그 아말로 명불허전. 그녀들의 컴백과 더불어 최근 섭외 게시판에는 "시크릿이 MAXIM에 나온 게 어언 2010년이니 이제 다시 한 번 출연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직도 2년 전 화보를 무한 복습하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MAXIM이 나설 테니 조만간 그녀를 표지에서 만날 날을 기대해보자. 언제냐고? 그건 시크릿이요!



**HOTTEST  
REQUEST**

### MAXIM ONLINE POLL

#### MAXIM 독자들의 섹스 취향은 S일까 M일까?

오해마시라. 굳이 따져보자면 MAXIM 독자들이 어느 쪽 성향에 더 가까운지 묻은 것이지, 가학성 변태 성욕자인지 피학성 변태 성욕자인지를 따져 묻은 건 아니다. 약 900명의 독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자랑했다. S라는 답변이 가장 많을 것은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상대방에 따라 S로, M으로도 자유자재로 변신이 가능한 전천후 섹스 지니어스 독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다들 여자친구만 생기면 되겠다.



**1위**

S지. 그러니  
어서 끌어  
(41.5%)



**2위**

두 성향이 혼재.  
공수에 고루 능한 리베로!  
(40.2%)



**3위**

저는 M쪽에 가까워요.  
여왕님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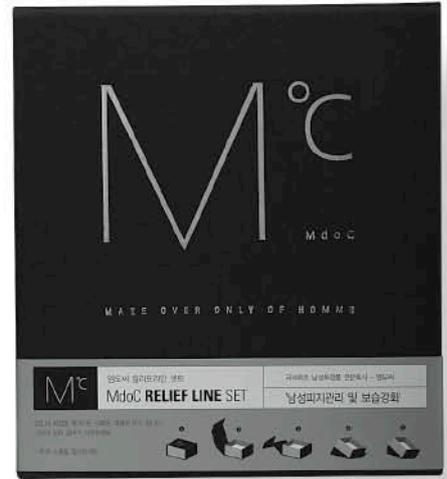
**ANTI-WRINKLE TREATMENT ESSENCE**  
Take care of men's wrinkled skin with this one drop!

**M-CARE MASSAGER**  
Wrinkle Care Total Solution



[www.mdoc.co.kr](http://www.mdoc.co.kr)

**RELIEF FIRST PEELING GEL**  
Start with relief first peeling gel to remove  
dead skin cells of men's face.



**RELIEF GIFT SET**  
Moisture/Special edition



**RELIEF TONIC**  
Feel the freshness with zero-stress relief tonic.



## Beyond Perfect Man's Skin!

Only Man's Cosmetic Brand

**RELIEF ESSENCE EMULSION**  
Rich moisturization of essence —  
no more oily skin with silky finish!



**RELIEF ESSENTIAL MASK**  
Amazing effect from botanical ingredients only for men

**RELIEF FOAM CLEANSING**  
Foam cleanser best suited for men's skin type —  
feel the freshness.



**MEN'S B.B CREAM**  
Present yourself with confidence by naturally covering widened pores and blemishes.  
(Triple function product)



국내최초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엠도씨

HOME PAGE  
[www.mdoc.co.kr](http://www.mdoc.co.kr)

ONLINE SHOPPING MALL / 온라인 쇼핑몰  
[www.mdockorea.com](http://www.mdockorea.com)

M°C  
M d o c

# CIRCUS IM

## 돈 되는 쓰레기

애초에 공부가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밖에 나가서 리어카라도 끌어야지?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 빅중원 DESIGN 전은경



쓰레기  
더미에 사는  
할아버지



### 철

주변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녀석이라 쉽게 구할 수 있다. 상고철(각종 기계류 및 작은 쇠붙이)은 1kg당 2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알루미늄 창틀은 1,300원, 프라이팬이나 냄비는 1,000원까지 쳐준다. 낫쇠나 수도꼭지 같은 수도 부품은 상태에 따라 2,4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옷

입을 수 있는 옷은 60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까다롭게 분류하지 않고 그냥 한데 몽쳐서 팔면 1kg당 200원이다. 아저씨, 이거 내가 한창 잘나갈 때 입던 죠다쉬, 스포츠 라플레이, 스톱이라고! 고작 200원이라니!



### 종이

종이는 배추도 아닌데 가격 변동이 제일 지랄 같다. 2011년 1kg당 220원 정도였던 파지나 신문은 60원으로 떨어졌다. 종이 박스는 고작 40원밖에 안 준단다. 가성비가 이렇게 구릴 수가 없다.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척추 나 가도록 폐지를 주워봤자 고작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 전선

다 똑같이 보이는 전선의 종류도 야동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품질에 따라 1개당 10원부터 6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물상에서는 분류하지 않고 한데 몽쳐서 사는데 이런 경우는 1kg당 200원씩 쳐준다. 전선 중에서도 최고급 특상품인 구리선은 1kg당 5,000까지 쳐준다. 지금 당장 전봇대로 올라가자.



# A X 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 회사 근처에서 피로최대한 고물상 아저씨가 검정 세단을 끌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았다. 입이 딱하니 벌어졌다. 백날 토익책을 붙잡고 있어도 계속 신발 사이즈 점수가 나온다면 차라리 '2012년 고물상 하반기 인턴십'에 도전해보라! MAXIMI 기본기를 알려줄 테니 이걸 토대로 나중에 그럴듯한 고물상 주인이 된다면 당신도 외제차를 몰 수 있다. 어차피 고물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쏟아질 테니까!



### 자동차부품

신발보다 싸게 판다는 타이어는 고물상에서 신발 냄새보다 구린 가격을 제시하니, 애초에 주울 생각을 말자. 반면 철로 된 휠은 1kg당 300원, 알루미늄 휠은 1,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전에 휠 4개를 주우면 점심으로 뼈해장국을 먹을 수 있다. 자동차 폐배터리가 값이 제법 나갈 줄 알았는데, 한 개에 겨우 400원밖에 안 쳐준다. 카오디오나 엔진은 청계천에서 꽤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전과가 없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자.



### 병

그나마 좀 고정적인 시세를 유지한다. 유리 주스병은 한 병에 100원이나 쳐 주지만, 페트병 주스에 밀려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다.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인데 용량이 작은 맥주병은 소주병으로 취급한다. 전장, 대학 다닐 때 자취하면서 뽕 소주병만 모았어도 미니 쿠파는 뽕았을 텐데!



### 컴퓨터

팬티엄, 샐러론, i3 다 필요 없다. 그냥 한 개당 5,000원이다. 컴퓨터가 갈비탕 한 그릇보다 싸다니... 스티븐 잡스가 하늘에서 대성통곡 하겠네.



### 페트병

1kg당 400원 정도에 팔 수 있다. 근데 페트병은 실컷 주워도 무게가 별로 안 나갈 뿐더러 부피만 많이 차지해서 노인들도 잘 안 가져간다. 게다가 그 안에서 며칠 동안 숙성된 음료의 냄새를 봉인해제 한다면...



### 장판

1kg당 400원이다. 이삿짐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푼돈 만지는 재미가 쏠쏠하겠는걸!



# 북한 속어 배워보기

내래 인민의 어른동무 사이트를 보여 주겠어!  
BY 조용재 DESIGN 서윤정



시나이 | 가시내 | **잔치\*후기** | 잔치찾기 | 손전화\*바꿔치기 | 러친사진 | 남친사진

## 동무들, 내래 어제 **깍구\*** 찌는 여자를 만났는데. (3)

이름: 영광의 떡배질 2012-10-20 조회: 69

내래 딱친구\*로 지내던 동무가 어제 후배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손전화\*** 사진을 받았는데 **갈라\***가 아주 참하고 불쌍이 폭 들어간 게 새초롬한 것이 아주 마뜩하더라고.\*  
내 이 갈라를 오늘 꼭 자빠뜨리고 만다 각오하고 육고기집에 데려갔제.  
비싼 집이라 천장에는 **매불알\***이 주렁주렁 빛을 뿜고 있더라. 땃물이 죽죽 흐르는 육고기와 **사자고추\***가 곁들여진 료리를 먹고 2차로 삼은 **고기순대\***에 날백주 한 잔 하러 움직였다우.  
근에 이 갈라가 금세 취해서는 비칠거리는 걸 아무래도 왔구나 싶어서 아무 데나 있는 풀림터라도 찾아 들어가려 했지. 밤이 어두우니 **선불알\***이 흐드러지게 서 있어 윤치가 있는데, 이 갈라가 갑자기 아무 선불알이나 붙잡고는 계우기 시작하는 거여. 못쓰겠다 싶어서 바로 아무 풀림터로 들어갔다.  
근에 터가 풀림터라 그랬나 싶게 갈라가 입고 있던 **외동옷\***을 확 제끼고 입을 맞추니 대미쳐 반응이 오더라고. 내 **몸가락\***도 반응이 오는 게 됐다 싶어서 슬슬 **젓싸개\***를 풀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야. 요즘 **살까기\***하느라 가슴이 작아졌다나. 그런 거 **어방없다\***며 바로 아랫도리를 내리고 **속잔치\***를 시작하려고 바지에 뒀던 **고무주머니\***를 찾고 있는데, 10전 한닐이 바닥에 떨어지더라.  
떨어진 10전이 계속 바닥에서 팽이처럼 돌고 있는데, 한참을 돌아도 멈추지 않는거야.  
그렇게 계속 돌더라고...  
계속...



- 정일뿌디
- 취파람
- 인민의숙곳이

## 북한말 풀이 음주가무와 잔치를 즐기는 우리는 역시 한민족!

**깍구:** '몸매'의 북한어.  
**딱친구:** 우리말로 '불일친구'를 뜻한다. 어째 우리말이 더 뽀족스럽다.  
**손전화:** 휴대폰. 콩글리시인 '핸드폰'을 번역한 말 같다.  
**갈라:** 그 년.  
**마뜩하다:** 제법 마음에 들 만 하다.  
**매불알:** 상들리에, 불알(Light+Egg)은 '전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불알'류는 어감이 심히 저급해서 현재는 쓰지 않는 사어(死語)라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사자고추:** 피망의 북한어.(피망이 순우리말인 줄 알고 있었던 예디터는 프랑스어 사전에서 'Piment'이라는 단어를 찾고는 문화 충격에 빠졌다.)  
**삼은고기순대:** 소시지. 과도한 외래어 순화 정책으로 섹시한 어감을 잃어 고자가 되어버린 케이스.  
**풀림터:** 숙소. 일반적인 모텔보다는 분디 꽃제비나 불량배들이 거주하는 숙소를 뜻하지만, 어감이 대놓고 야해서 웬지 혼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선불알:** 말 그대로 선+불알. 가로등을 의미한다. 물론 아쪽도 현재는 쓰지 않는다고, 참고로 형광등은 '긴불알'이다.

**외동옷:** 원피스. 어감과 달리 아동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몸가락:** 손가락, 발가락과 마찬가지로 몸의 가락지라는 의미로 남성의 성기를 뜻한다. 동의 속어로는 '속살 썬싸개'가 있다. 북한어의 특징인 공격적인 투를 잘 보여주는 단어. 여성 성기는 '몸통새'.  
**젓싸개:** 브래지어, 사실 '가슴띠'라는 문화가 있지만 젓싸개가 더 친근하다. 동의어로는 '젓가슴띠', '유방띠'가 있다.  
**살까기:** '다이어트'보다 오히려 어감이 착착 붙는 멋진 단어도,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까리는 살은 안 까고 이상한 것을 자주 까려는 경향이 있다. 'X

까 병신아."  
**어방없다:** '소용없다'라는 의미의 함경도 사투리.  
**속잔치:** 몸가락과 몸통새가 만나 저지르는 행위로, SEX를 의미하는 북한의 킬링 워드. 화합을 중요시하는 북한의 건전한 민중 의식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속어. 다소 전투적인 동의어로는 '몸꽃이', '살꽃이'가 있으며, 동물에 한해 '쌍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고무주머니:** 콘돔.



고무주머니 스타일

# 강예빈

옥타곤 걸 데뷔!

**UFC** in MACAU

11월 10일 (토) 밤 10시

**SUPER ACTION** 독점생중계

# 세계의 흥한 미인대회

한우 아가씨, 고추 아가씨 선발대회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BY 김희성 DESIGN 서운정

영장 후보들의  
출신  
영상  
↓



## 미국 어린이 미인대회 미국

300번이나 미인대회 출전한 애, 한 살 때 부터 미인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한 여섯 살 애 미인대회 은퇴를 선언한 애, 1등 하기 위해 가슴뿔과 엉덩이뿔을 차고 나온 네 살짜리 애, 매춘부 의상을 입고 나온 세 살 짜리 애, 보독스 맞는 애, 비키니 제모를 한 애 등을 볼 수 있다. 애 엄마들이 단체로 불 산 가스를 마셨나?

☞ 설리는 어릴 때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왕리본 어린이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는 2001년 차일드 코리아 선발대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 감옥 미인대회

리투아니아, 브라질, 러시아 등

2002년 리투아니아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세계 최초 감옥 미인대회가 열렸다. 미스 여죄수로 뽑힌 집단 폭행 혐의 수감자 사만타(가명)는 정화를 의미하는 은, 악을 제거해준다는 석영, 자유를 상징하는 비취로 만든 왕관과 상금을 받고 석방된 후에는 리투아니아 최대 화장품 회사에 특채됐다. 세상은 언제나 얼굴이구나...

☞ 감옥 미인대회의 취지는 교도소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미인대회 시즌이 되면 더 싸울 것 같은데?



## 우즈 내연녀 미인대회 미국

우즈의 내연녀 중 누가 누가 가장 예쁜지 가리기 위해 대회를 열었는데, 내연녀 12명 중 3명만 참가한다고 해 셋 다 상을 탔다. 2004년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위치한 우즈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제이미 정거스가 1등을 차지했는데 우승 비결은 우즈와의 성관계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외모 점수보다 높은 인터뷰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았어?"

☞ 우즈 부인은 내연녀 미인대회의 심사위원직 제의를 받았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게 이런 건가요?



## 예쁜 젖소 선발대회

중국 산시 성의 한 초원

우유의 품질, 혈통, 외모(?)로 젖소계의 진 선미를 가리는 대회였으나 젖소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비키니녀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돼 젖소 부인 선발대회 같은 야릇한 모습이 연출됐다. 언니들이 젖소가 페라리인 줄 알고 왔나?

☞ 올해 중국에서는 예쁜 금붕어 대회가 열렸다. 심사할 때는 몸매, 비늘 색깔, 사육 방식, 수영 실력, 인상을 본다는데, 캣워크로 헤엄치고 막 그래야 뽑히나?



## 미소녀 선발대회 일본

성진국 일본은 아예 미소녀 콘테스트를 연다. 당연히 10대 소녀만 참가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군중 속에서도 자체 발광하는 외모, 품위 있는 행동, 비밀스러운 존재감, 여성으로서의 부드러움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미소녀 되기가 생각보다 뻘세지? 수상 부문 중에는 미소녀 중에서도 발군의 수영복 자태를 지닌 후보에게 주는 '그라비아 상'도 있다. 이 부문 수상자는 수영복 화보집을 내기도 한다. 스바라시!

☞ 2012년 일본 미소녀 선발대회의 참가자는 무려 10만 2,564명이었다. 그리고 정식 명칭은 '전일본적 미소녀 콘테스트'다.



수입 하라

## 예쁜 엉덩이 선발대회 브라질

브라질 최고의 엉덩이를 뽑는 대회로 정식 명칭은 미스 볼볼 브라질이며... 됐고 사진이나 봐!

☞ 한 심리 실험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의 뒤에서 성적 매력을 가장 많이 느낀다. 그리고 엉덩이 라인이 굵직한 여자를 볼 때 남자의 상태는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었을 때의 상태와 비슷한 기분을 느낀다.

# MAXIM B컷 모음집 전격 발매!

2012 MISS MAXIM FINAL 4 B컷 모음집  
10월호 발간 후 쓰레기통에 들어간 B컷 사진들을  
주워 모아 한정판으로 발간했다.

- 버리긴 했지만 미공개 컷 대방출
- 화보를 추려내야만 하는 에디터들의 사진 선정 토크
- 화보 촬영 현장 미공개 영상 풀버전
- 너무 훌륭해서(?) 실을 수 없었던 화보 비하인드 스토리

LIMITED  
EDITION

절찬리 판매중

아보, 정규 에디션보다 재밌다  
그러면 어드카지?



(왼쪽부터)

치골에 볼사조 문신을 새기고 여경으로 변신한 **최현아**  
MAXIM을 위해 중국에서 한국까지 날아온 바니걸 **대닝 푸**  
메이드 복이 누구보다 어울리는 착한 글래머 **엄상미**  
간호사 복장을 하고 주사기를 들이민 수지 님은 **김수아**

구매문의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2012 MISS MAXIM FINAL 4  
대닝 푸





실속 있고 편안한 군 생활을 위한 본격 뺑가이드.  
(육군 전용이야, 미안. 내가 육군밖에 안 가봤어.)  
BY 이영원  
DESIGN 전은경



**꿀보직은 따로 있다**

군대 자체가 가기 싫다면 대체복무의 레알 꿀, 'KOICA(국제협력요원)에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무지 이탈률이 현역 군인에 비해 37.5배나 높은 정도로 후리하고 봉사는커녕 1년 내내 해외 휴양지나 쓰다니며 금발 미녀들과 헛짓거리를 해도 "젊은이, 그러면 못 써" 정도의 훈계에 그친다니 궁극의 꿀이라 하겠다. 참고로 코이카 협력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보다 9개월 많은 30개월이다.



**BONUS TIP** 부모님 앞에서는 '꿀보직' 발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과 시간에 자빠져 자는 법**

에디터는 부대에서 작업만 했다 하면 혈압이 오르는 나이롱 고혈압 환자로 변신한 적이 있다. 군병원에 가봐야 혈압이 정상이니 꺼지라고 할 텐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해라. 이 아이템은 하루치 효력의 뺑기 아이템인데, 이걸 몸에 부착하고 있으면 24시간동안 과격한 운동과 작업에서 열외돼 하루 종일 먹고 싸고 잘 수 있다. 특히 유격, 혹한기 같은 시기에 사용하면 유용하다.



**BONUS TIP** 자재 브랜드 '24시간 심전도 측정기'는 말년에 써보시든지.



**렘수면 경계 근무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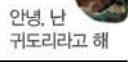
야간 경계 업무 시에는 순찰자가 늘 근무지를 순찰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맘 놓고 퍼질러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귀하다귀한 상, 병장님들이 신병처럼 아무지게 경계 근무를 설 수 있겠는가. 일단 경계 근무지로 나서는 길에 마른 낙엽을 한 아름 주워서 초소 전방 50m 부근에 주워온 낙엽을 적당히 뿌려라니못가지는 고전 뺑기니 삼갈 것. 순찰자가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그대들의 육체를 일으켜 순찰에 응대하고 다시 렘수면을 취하든 자빠져 자든 하면 되겠다.

**BONUS TIP** 봄, 여름, 겨울은 어찌냐고? 이것들이 어디 사시사철 쳐놓려고.



**몰래 음악 듣는 법**

부대 내 병사의 전자제품 소지가 금지되지만, 어학 공부에 한해서 CD플레이어 소지가 일부 허용된다. 현역 시절 에디터는 야전 상의 안 깔깔이 주머니에 CD플레이어를 넣고 귀도리와 목 토시로 이어폰 줄을 숨긴 채 최신 가요 들으며 행군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닥 추천하지 않는 게, 행군 말미에 행보관이 에디터를 따로 불러 야전 상의 지퍼를 쏙 내려 봤기 때문. 어디 병신 삼돌이처럼 눈치 볼 타임이라면 애초에 시도를 마시길.



**BONUS TIP** 행보관 눈은 못 속인다. 단지, 귀찮아서 속아주는 것뿐.

**간단한 훈련소 뺑기**



- 1. 화생방 제끼기**  
에디터처럼 호기심 많은 호구들이 굳이 화생방 체험하겠다며 주저 났다가 결국 후회한다. 기관지에 문제가 있다고 둘러대면 참관 교육으로 대체하니 어지간하면 피하도록, 어차피 유격 때 되면 또 해.
- 2. 행군 편하게 하기**  
사실상 행군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원착상 걷기에 지장이 있는 병사에 한해서만 활동화(운동화) 조치를 하지만, 전투화 신고 도저히 못 걸겠다고 발버둥치면 어지간해선 활동화 조치를 해줄 거다.
- 3. 군장 줄이기**  
군장을 가볍게 싸고 싶다면 행군 직전, 플래쉬맨 뺑치는 속도로 큰 물품 하나 정도만 빼라. 가장 중요한 건 그 물건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것인데, 전투복 옷걸이 사이에 숨겨두면 꽤 효과적이다.
- 4. 줄 서기**  
군대에서 줄을 설 땐 맨 뒤와 앞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보통 심부름은 눈에 띄는 사람을 시키기 마련인데, 그 최악의 자리가 맨 앞, 맨 뒤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밥 줄은 맨 앞이 마지해.

# 2012년, 자신감 있는 바디 실루엣을 찾아라!

여성형 유방증,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만나보자.



##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운동을 통해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면 가슴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여성형 유방증은 가슴 안에 유선 조직이 발달하여 운동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유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이 복잡했으나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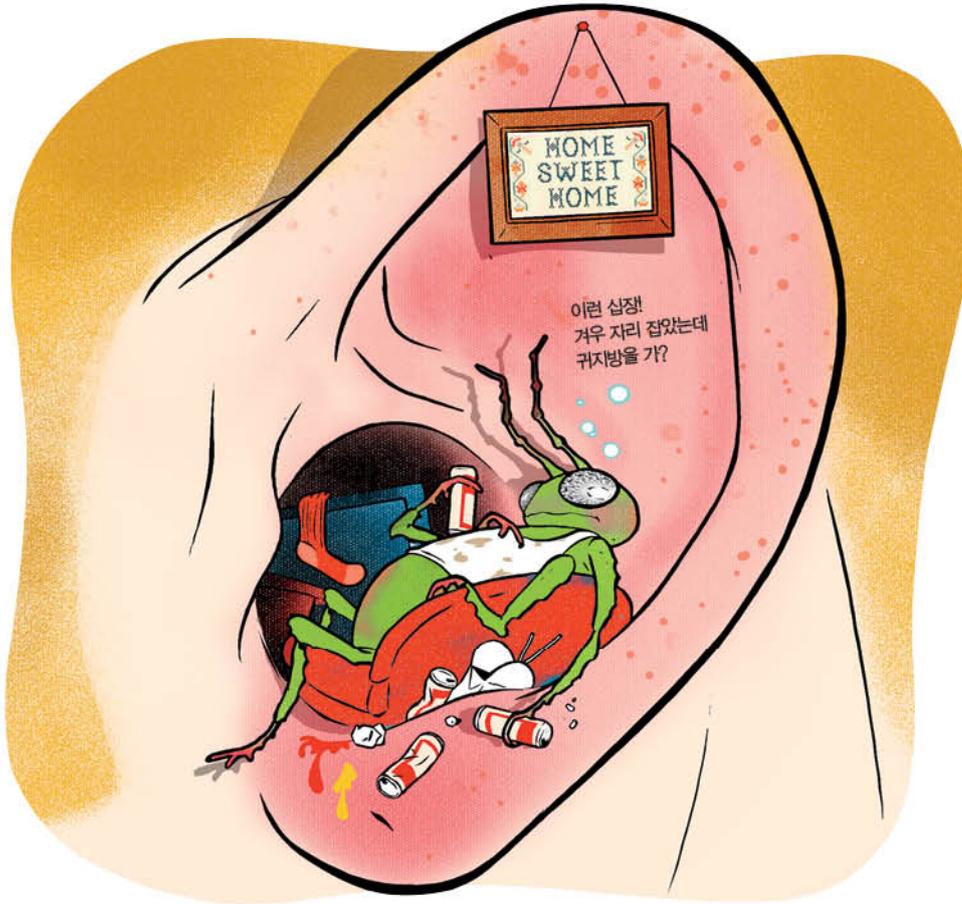
##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쓸데없는 과학 상식

MAXIM이 여러분의 과학의 꿈을 다시 키웁니다.



## → 벌레가 내 귀 속에서 기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왜? 월세라도 받으려고? 벌레가 당신의 귀속에 기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방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동지를 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자주 들락날락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곤충학자 제임스 카펜터는 "둥지 건설은 긴 준비 과정과 노가다를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심장생, 자문료 도로 내 놔. 그건 우리 동네 심장 아저씨도 아는 건데.



## → 왜 똥은 물에 뜨나?

볼티모어의 조나단 슈라이버 위장병학 의학 박사는 부유물은 다이버보다 더 뜨기 쉽다고 말했다(경쟁을 시켜본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결장 안에 있는 세균이 소화되는 동안 음식물을 잘게 부수면서 다양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안에 매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 가스가 탈출하지 못하고 당신의 응가 안으로 들어가면 물에 뜨게 된다! 과학이란!

### 종교적 답변

똥에게 포세이돈의 은총이 내려왔군!  
오오 신이시여, 당신의 자비로움이란!



## → 왜 모기들은 나보다 내 여친을 더 잘 물까?

플로리다 대학의 제리 F 버틀러 박사는 "모기는 건강한 알을 낳기 위해 피 속에 있는 스테로이드, 비타민B, 호르몬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모기들은 누가 좋은 피를 갖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인간 모기장인 네 여친 꼭 붙잡아라. 칭얼거리는 여친에게 미간을 찌푸리며 "아이쿠 지런" 한 마디만 해주면 여를 내내 편하게 잘 수 있다.

## Love Number 겨울이 코 앞. 너 어떡할래?



**72%** "우리 사귄래?" 혹은 "결혼할래?"라고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여자의 비율

**80%** 하지만 자존심과 사회적 통념 때문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비율. 그러니까 니가 먼저 고백해 봐보아

**89%** 먼저 고백해온 여자의 용기에 대해 고마워하는 남자의 비율. 나머지 11%의 남자는 고백녀의 입을 후려치고 싶어 한다는 건가.

**92.5%** 소개팅으로 만나 커플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은 27%에 불과하며 그들의 92.5%가 선과 소개팅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99.9%** →

다른 커플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즐기는지 궁금해 하는 연인은 99.9%, 허나 막상 남의 사랑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13%에 불과하다고. 이젠 무슨 심보야.

# 당신은 잘 생기지 않았다. 일단 ! 까고 보자!

패션의 완성은 얼굴! 언제까지 몸만 키울래?

BY 김진욱 ILLUSTRATION & DESIGN 서윤정



## 느낌 좋았던 소개팅, 그러나 연락 없는 그녀, 나에게 스쳐간 면접관의 무심한 눈길

외모?! 더 이상 여성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아젠 남성의 외모도 스펙의 하나!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인 현실에서 그저 몸짱 열풍을 좇아 만든 식스팩으로 자기 만족일 뿐. 취업, 이직, 승진, 연애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업그레이드하는 순간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면접관 앞에서 웃음이라도 까 보일 것인가?!! “님, 자제염.”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남자가 성형을 하면 동네 소문 날 일이었지만 최근 40대 이상의 남성에게도 보톡스와 필러는 군대의 싸제 담배와 같은 귀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피부과를 찾아 레이저 시술을 받거나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또한 각종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군인 전용 브랜드와 멤버십을 도입할 만큼 남성들의 외모 욕망은 날이 커지고 있다.

남성의 배우자 선택의 우선 순위는 미모. 그렇다면 여성은? 재력, 학력, 성격 등으로 조금 다양한 편이다. 후유~ 역시 세상은 그리 각박하지 않았다며 좀 안심이 되는가?! 미안하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남성 선택 기준에 ‘준수한 외모’를 바닥에 깔아놓았던 다. 성격도 얼굴이 베이스가 되어야 옵션으로 따진

다는 얘기! 여성과 취업 면접관이 원하는 훈훈한 외모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남성들의 노력은 여성들 못지않아야 한다. 아직도 ‘남자라면 힘!’을 외치는 당신은 ‘완전한 남자가 아닙니다.’

## 골백번 환생을 해도 우린 닉군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얼굴을 아무리 뜯어고쳐도 베이스가 썩어 있다면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 그러나 다행인 소식이 있다. 많은 여성이 화려한 꽃미남보다 인상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 남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뜻. 자기보다 남친이 예쁘면 쪽팔리니까). 훈남으로만 거듭나도 희망이 있다. 훈훈한 남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밝은 인상. 가장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상을 화약~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안경 없는 맨 얼굴. 이젠 안경도 ‘패션 아이템’이라고 주장하며, 잘 생긴 닉군도 안경을 쓰고 딱하니 광고 모델을 하고 있으니 나도 쓰겠다며 설레발을 치진 말자. 개는 닉군이요!

야외 스포츠와 군 생활을 즐기다 보면 사계절 내내

까만 피부는 당연지사. 거기에 안경을 쓴 당신의 그 올린 피부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안경 자국! 전체적으로 구릿빛 피부인데 눈 주변만 하얀 얼굴은 흡사 선탠한 가루상처럼 보인다. 당신이 그런 여자가 싫다면 여성도 팬다 같은 당신의 상판(上版)을 좋아할 리는 없겠지? 이런 안경 자국과 콧대 놀림 때문에 안과를 찾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훈남의 사로 유명한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원장의 증언. 안과 전문의 김성일 원장은 “안경 없이 편한 생활을 위해 입대 전이나 군 복무 중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중요한 면접이나 소개팅을 앞두고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사람도 많다. 첫인상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상과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시력 교정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추어 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력 교정 수술은 인상의 업그레이드보다 평생의 시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밀한 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미남이시네요.”라는 말에 불을 붙이는 훈남 의사 안과 전문의 김성일 원장

## Q&A 라식, 라섹...궁금해요? 궁금하면 오~백원! MAXIM 선정 공식 훈남 의사 김성일 원장에게 물어보자!

**Q. 라식과 라섹, 뭐가 다른 건가요? 제 눈은 소중하니까요~**

**A.** 네. 환자분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라식 수술은 레이저 또는 블레이드로 각막을 절삭하고 시력 교정을 하고, 라섹 수술은 각막 상피만 정교하게 벗겨낸 후 레이저를 조사하여 시력 교정을 하는 수술로 라식은 회복이 빨라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것이 장점이라면, 라섹은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각막이 얇아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전, 정밀 검진 후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직은 어리고 여린(?) 대학생입니다. 수술하면 눈에서 피가 나나요?!**

**A.**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많이들 물으시는데, 수술 후에 눈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라식은 수술 후 즉시 시력이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수술하고 당분간은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해 자외선 차단을 해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 샐러리맨입니다. 시간을 쪼개기가 쉽지 않은데 수술할 수 있나요?**

**A.** 최근에는 원데이 라식으로 하루에 검사부터 수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술 방식이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은 물론,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장병들까지 짧

은 시간의 수술과 빠른 회복으로 시력 교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군인입니다. 훈전 중에 안경이 너무 불편합니다. 수술 후에도 운동이나 군대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라식 수술은 직장인들도 주말을 이용해 많은 분이 수술을 하고 있을 만큼 빠른 회복이 가능해 최근에는 군 복무 중에도 수술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 수술하는 경우, ‘군인 대상 이벤트’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술 후 주의 사항만 준수한다면 휴가 기간 수술하고 바로 복귀해 편하게 군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움말: 안과 전문의 김성일 원장

# 짱구大戰

아무도 못말리는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구?  
BY 손안나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전은경



**크라운 못말리는 신짱**  
한두 알 박혔을 뿐이지만 김정 개 덕분에 꽤 고소하다. 하지만 너무 딱딱해서 한 봉지 다 먹고 나면 입천장이 남아지 않는다.

**삼양 짱구**  
달지 않고 담백한 편. 계피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린다. 가장 바삭바삭하다.

**홈플러스 짱이야**  
어느 날 갑자기 짱구 삼파전에 끼어든 짱구계의 허경영. 넷 중 가장 달콤하지만 싸구려 설팅 맛이라는 게 함정.

**롯데 크레용 울트라짱**  
계피 향 외에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 사진과는 달리, 실제로 김정 개가 박혀있는 건 과자의 50% 정도뿐.

## 전쟁의 서막

빼대 있는 라면 집안인 삼양家の 튀는 자식인 짱구는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사랑받는 과자계의 이승기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일본 만화 <크레용 신짱>이 한국에서 크게 히트한 것이 나비효과처럼 삼양 vs. 크라운 vs. 롯데 간 진흙탕 싸움의 단초가 됐다. 액션가면을 좋아하는 변태 꼬마 노하라 신노스케의 한국 이름 또한 짱구였던 것이다.

## 1차 대전 발발

삼양 짱구 vs. 크라운 짱구는 못말려  
2000년, 짱구가 스물일곱이 되던 해, 인생 최대의 태클이 들어왔으니, 크라운이라는 빵 가게 아들이 자신의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 아예 <크레용 신짱>의 라이선스를 따와 짱구의 얼굴을 과자 봉지에 박아 넣고 이름까지 '짱구는 못말려'로 고쳤다. 이에 격분한 삼양과 크라운 간에 소송이 붙었고 결국 크라운은 이름을 바꿔야 했다.

크라운 짱구는 못말려 때 → '못말리는 신짱'으로 강제 개명

## 2차 대전 발발

크라운 못말리는 신짱 vs. 롯데 크레용 신짱  
그러던 어느 날, 크라운이 캐릭터 사업권자와 결별했다는 소식이 이웃 마을 부잣집 롯데家에도 퍼졌다. 발 빠르게 캐릭터 사업권자와 계약을 맺고 '크레용 신짱'이라는 이름으로 짱구 캐릭터까지 넣은 짱구 완전체 스낵을 출시한 롯데! 이에 백천 크라운도 역시 삼양흥에게 배운 대로 소송 크리.

롯데 크레용 신짱 때 → '크레용 울트라짱'으로 강제 개명

## 상처받은 영광

**삼양 짱구:** 양년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었는데, 이제는 크라운과 1, 2위 다툼이 치열한 상태. 원조 체면이 말이 아니다. 과자 겉면에 '짱구는 원래 이맛!'이라는 문구가 어쩐지 서글프다.

**크라운 못말리는 신짱:** 짱구 그림을 롯데에 뺏기고 궁여지책으로 박아 넣은 풀단지 사진이 뽀미스럽다.

**롯데 크레용 울트라짱:** 공식 라이선스 그림을 얻은 대신 이름을 잃었다. 크레용 울트라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은 누구의 착역 센스였을까?

## BLIND TEST: 어떤 짱구가 짱이나?

입맛은 섹스 취향만큼 다양한 법이니 직접 테스트 해보는 수밖에. 상표를 가린 짱구 과자를 각각 편집부 에디터들 입에 물리고 반응을 살펴보았다.

테스트 결과, 이것저것 신경 쓴 듯 느껴지는 성의 있는 맛이라는 평이 많았던 크라운의 못말리는 신짱이 총 4표를 얻어 BEST 짱구 과자로 선정됐다. 최악의 짱구로는 단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과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롯데의 크레용 울트라짱이 선정됐다.

결론: 대마초는 크라운 제이, 짱구는 크라운 못말리는 신짱이다.

	삼양 SAMYANG	크라운 CROWN	롯데 LOTTE	홈플러스 Home plus
	짱구	못말리는 신짱	크레용 울트라짱	짱이야
편집장 이영비		가장 조화로운 맛 BEST		달고 느끼해 WORST
에디터 유승민			이거 짝퉁이지? WORST	물엿에 폭 짙은 듯 달콤하다 BEST
에디터 김희성	씹을 때 버석거린다 WORST	과자에서 이렇게 깊은 맛을 느끼긴 처음 BEST		
에디터 송종민	드라이한 게 딱 내 취향 BEST		느껴지는 건 오직 계피향 뿐 WORST	
에디터 박한빛누리		에스프레소처럼 진한 맛 BEST		싸고 구려, 싸구려! WORST
에디터 조용재	울드한 맛 WORST		음~ 계피 스텔 BEST	
에디터 이영환		이 맛이 과자대! BEST	2% 부족한 짱구 WORST	

OD MUSICAL COMPANY, CJ E&M, GANGDONG ARTS CENTER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한국 뮤지컬 10년의 신화  
단 한 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스캔하면  
티켓이 팡팡!



대학생  
30%할인  
(~11/4일까지 예매 시)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강동아트센터 상륙! 12월 1일 개막!**

|예매| 인터파크 · 오픈리뷰 · BC카드 LOUN.G · 클립서비스 |문의| 강동아트센터 440-0500 · 오픈리뷰 1588-5212

|주최| 강동아트센터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 |후원| KIBO 기술보증기금

# 면므파탈: 라면으로 여자 꼬시는 법

라면 먹방의  
레전드는  
누구?



설운도 형님은 일찍이 청년들에게 인생의 3대 요소를 알려주었다. '여자, 여자, 여자'라고.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아직도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파스타 집에 가는가? 이제는 라면으로 여자를 꼬시는 시대다.

BY 누들러 DESIGN 전은경



"여기 에스프레소 터블 샷에  
신라면 블랙 하얗고, 참, 블랙  
위에 건더기 스프는 빼주세요,  
키스할 때 냄새가 나거든요."  
-김면발

## 1. 카페에서

카페에서 수줍은 듯 그녀에게 결눈질을 보내는 것은 성룡이 <취권>을 찍던 시절에나 통하는 짓이다. 부끄러워하며 카페인을 출직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정한 멋은 거기에 컵라면을 추가함으로써 완성된다. 한 손에는 에스프레소를,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가슴을 만지듯 부드럽게 컵라면을 움켜쥐어라. 핏줄 선 당신의 팔뚝에 그녀의 심박수는 카페인에 증폭된 사람처럼 가빠질 것이다.



"미끄럼틀 위에서 뜨거운  
국물을 담가담가 단숨에  
들어키고 있을 때, 그녀가  
달 보며 살포시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박스프

## 2. 놀이터에서

휴일인데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것인가. 컵라면 한 개 살 돈만 챙겨서 흥대 놀이터로 달려가라. 그리고 햇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그녀들이 우러러볼 수 있게끔 되도록 높은 곳이 좋다) 컵라면 국물을 게걸스럽게 마셔라. 턱 위로 줄줄 흐르는 국물을 보며, 그녀는 자연스레 당신의 축축한 턱 라인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믿어도 좋다. 그날의 그녀(9세로 추정)도 나를 보며 그랬으니까.



"사무실에서 쟁쟁과도  
같은 하루를 보내고 럭셔리  
스파에서 라면을 먹었죠,  
만족 먹었을 때였나요?  
그녀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김면발

## 3. 스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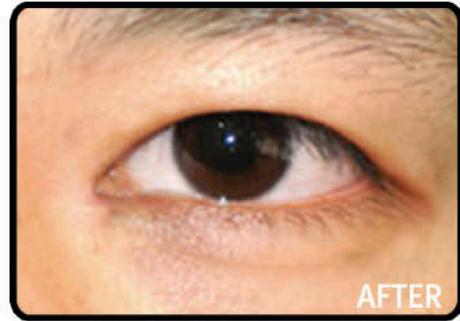
고된 일상을 마치고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 사시미가 아니라 따듯한 컵라면이다. 불침번을 마치고, 구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옛 추억을 상기하며 컵라면을 먹어라. 셔츠를 풀어헤치고 국물과 면발을 터프하게 흡입하다 보면, 어느새 그녀가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면발을 단숨에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주목도는 높아진다.



"그녀 말로는 거리의  
시인처럼 고독하게 라면을  
먹는 모습이 그녀의  
모성 본능을 자극했다고  
하더군요. 확하하."  
-박스프

## 4. 거리에서

고독한가? 정말 고독한가? 정말 미치도록 고독한가? 그렇다면 그라피티가 되어 있는 벽에 기대어 컵라면을 먹어라. 먹을 때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분출하며 먹어라. 아웅으로 가득 찬 하드를 포맷당한 남자처럼 슬픈 눈빛을 유지해라. 고개를 들었을 땐 그녀가 '괜찮아, 괜찮아'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보고 있을 것이다. 실사 그녀가 없더라도 괜찮다. 몇몇 여자는 동전으로도 관심을 보일 것이다.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http://www.medoctor.co.kr)

# 작업용 컵라면 BEST 5 사랑이 익는 시간은 3분이면 충분하다.

## 1위 왕뚜껑



이 라면을 들고 있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나는 밥도, 라면도, 가수도 큰 걸 선호하는 호방한 기개의 돌궐족 같은 사내'라는 것을 진하게 어필하는 거다. 이 정도는 먹어줘야 어디 가서 대물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 2위 짜파게티



블랙 컬러라고 모두 시크한 건 아니다. 가정적인 면도 뽐낼 수 있다. 당신이 짜파게티를 들고 있다면 분명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어머, 적어도 일요일엔 나를 가사에서 벗어나게 해줄 짜파게티 요리가 같은 남자잖아!"

## 4위 신라면 블랙



판매 중단이라는 굴욕적인 처분을 받았던 신라면 블랙. 하지만 컵라면 버전은 살아남았다. 왜일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실외에서 먹기 적당해서다. 상상해보라. '우육탕'을 먹는 여자와 '신라면 블랙'을 먹는 여자. 어느 쪽이 더 끌리겠는가?

## 3위 참깨라면



그녀가 맛집 탐방하기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평균 여성이라면 시도해볼 만한 무난한 접근법. 이 라면을 들고 있는 당신은 강해보이지도 시크해 보이지도 않지만 '함께 고소한 맛의 별첨 스프를 뿌려 먹자는 담백한 고백'을 할 수 있다.

## 5위 치즈볶이



귀여움을 발산하기 좋은 아이템이지만, 먹을 때 진동하는 치즈 냄새를 그녀가 발 냄새로 오인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 강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먹어라.



### 박스프

달고 안 매운 초딩 입맛을 지향하고 싶은 말: "나와 같이 여러 허를 지닌 형제 자매들이여, 김면발의 주장은 다 개소리다. 내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

### 김면발

캡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라면을 선호  
 좋아하는 라면: 나가사키  
 싫어하는 라면: 치즈라면  
 없는 것: 여자친구 가진 것: 시간과 정액  
 좋아하는 야동 배우: 사토미 스키

## MAXIMI 이달 마감 때 처먹은 라면 #1



농심 채식주의 순

👍 2표 👎 5표



에디터 유승민 "건더기 스프의 잡육 몇 알이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에디터 김희성 "모슬렘이 아니라면 평생 안 먹는 게 나을 듯."



에디터 송종민 "먹을만한데? 10년차 자취생에게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



에디터 박한빛누리 "밥 말아 먹고 싶은 국물 맛은 아니다. 심심하다."



에디터 손안나 "이거 먹으면 이하나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칼로리를 알고 나니 배신감이 든다."



에디터 조용재 "뒷맛이 깔끔하다. 싱거운 편이라 몸에도 좋을 것 같다."



에디터 이영환 "난 그냥 짜고 맛있게 먹고 일찍 죽으려다."

2012.  
11.01-  
11.18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12.  
11.22-  
11.25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스캔하고  
티켓받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인생은, 그리고 당신 인생은...

# 양철지붕

## Synopsis

“그 개자식이 내 동생을 건드렸어...”  
죽어서도 용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복수가 시작된다.  
파주 공사장, 고된 인부들의 거친 욕설과 끈적한 농담이 오가는 허름한 햄비집.  
17년 전, 농아 동생을 성폭행한 계부를 살해하고 과거를 숨기기 위해 햄비집으로  
숨어들어온 유현숙. 그러나 살해에 기대했던 옛 애인 구광모가 찾아오면서  
그녀의 삶은 폭력과 육욕으로 짓밟히기 시작하고, 구광모의 폭력은 나날이 악랄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두 지매에게 성희롱을 일삼던 일용직 노동자 정갑수가  
침묵히 살해당한 채 발견되면서 묘한 기류가 흐르는 햄비집...

“아아... 씨발 인생 참 엇같다 싶지?  
아무렴 니 인생도 좀 엇같아져야 공평하지.  
안 그래?”

## 프리뷰 할인

11/1(목)-11/4(일) 공연에 한함, 인터넷 예매 시 적용  
| 정가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15,000원 → R석, S석 50% 할인 | A석 10,000원

# 쓸 데 있는 근육 만들기

## 프로젝트 : 연애편

정약용도 울고 갈 실용주의 피트니스의 세계.  
 BY 이영환 PHOTOGRAPH ARC STUDIO HELP/MODEL 안재형 트레이너 DESIGN 신숙희

자매품  
 실용주의  
 격투의 세계



### 밀당의 고수가 되는 운동법

연애 초반, 여친과의 밀당에는 상완삼두근의 근력은 필수다. 밀었으면 당겨야 될 거 아니며.



- 1 어깨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의자와 다리 사이의 위치를 정한다. 팔은 직선으로 편 상태에서 상완삼두근을 강하게 수축시킨다.
- 2 상완삼두근의 긴장을 계속 유지한다. 이상의 '13인의 아해' 한 소절 읊으며 천천히 팔을 90° 지점까지 굽힌다. '13인의 아해가 무섭다고 하오' 할 때쯤 1번 자세로 돌아온다.

### 여친 주먹에 맞고 울지 않는 운동법

간혹 여친이 기분이 몹시 좋다며 이를 앵다문 채 당신의 복부와 팔뚝을 가격하곤 한다. 여친의 펀치로부터 내장 기관을 보호해줄 참 실용적인 복근 단련법을 소개한다.



- 1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양손을 뒤통수에 가볍게 대고 복부를 긴장 상태로 유지한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파트너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메디슨 볼을 위에서 아래로 던져준다. 볼이 복부에 닿는 순간마다 호흡을 내뿜으며 복부 근육을 수축시킨다.

### 여친 침대에 던질 때 유용한 운동법

몸에 안겨 교태를 부리는 여친을 침대 위로 던질 때 필요한 운동법. 상완이두근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 힘껏 던졌다면 천장 형광등에 여친 얼굴이 아작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1 차렷 자세에서 튜빙밴드의 좌, 우 평행을 맞춘다. 상완이두근에 집중한 채 밴드를 천천히 끌어올린다. 마지막 동작에서 근육을 힘껏 수축시키는 것이 포인트.
- 2 반대편 손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 단지 동작의 횟수에 집착했다간 어쭙잡은 딸딸이 인형되는 수 있으니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에 집중할 것.



AGAIN

이은결의 블록버스터 매직! 더 일루션

# THE ILLUSION

LEE EUN GYEOL

### VIP PACKAGE

VIP패키지석을 위한 특별 혜택!

공연후, 이은결과 사진촬영 및 기념선물 증정!

### COUPLE PACKAGE

커플들을 위한 특별 패키지

VIP연인석 2장+와인 1병+둘만을 위한 메시지 티켓

2012. 11. 10 ▶ 12. 2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공연시간 | 평일 8시 / 토 3시, 7시 30분 / 일 2시, 6시 30분

제작 | 이은결 LEE EUN GYEOL PROJECT



티켓가격 | VIP패키지 15만원 / 연인석 12만원 / VIP 10만원 / R 8만원 / S 6만원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 1577-3363

24 HOURS TO LIVE

# 위기의 병사들 〈푸른 거탑〉 4인방

24시간 이후 죽는다는 설정에  
최병장은 머리칼을 부여잡고 연거푸 외쳤다.  
"말년에 단명이라니!"

BY 조웅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FILM 이영환 ASSISTANT 김화연

영상으로  
보면  
더 웃겨



**당신들은 24시간 후 죽는다. 마지막으로 뭘 하겠나?**

**백봉기:** 사과나무를 심으라고만 하지 마라.

**최중훈:**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떠올려보니 쉽더라. 결국 내 삶의 원동력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다.

**백봉기:** 진심으로 그 대답은 안 나오길 바랐는데...

**김호창:** 다큐멘터리가 되잖아.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얘기하라고!

**응답들이 시원찮으니 <푸른 거탑>의 주인공들이 24시간 안에 죽는다면'으로 질문을 교체한다.**

**최중훈:** 사단장 먹살 한 번 잡고, 간부 식당에서 밥 시켜 먹으면서 "사단장 오라고 해봐" 한 다음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아주 죽어지냈잖아!"라고 한다든가...

**백봉기:** 그럼 남은 23시간은 영청에서 보내겠지. 난 아무래도 여자 간부한테 가지 않을까...

**이용주:** 너무 솔직하게 가는 거 아니?(웃음)

**백봉기:** 뭐개(웃음) 그냥 간다고 까지만 했잖아.

**김호창:** 난 그동안 내가 괴롭힌 후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최중훈:** 지랄한다.

**김호창:** 개네가 날 먼저 죽이려 들 테니까... 남은 23시간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용주:** 난 늘 하고 싶었던 세 가지를 충실히 할 것 같다. 뽕글이 끊어 먹고, 걸그룹 나오면 보고, 삼질 해서 내 모를 파두고... 김상병 보급품도 훔쳐야지!

**김호창:** 그냥 먼저 북한에 쳐들어가면 안 돼?

**최중훈:** 가다가 죽을걸?

**각자의 묘비명을 지어본다면?**

**최중훈:** "이런 전쟁! 말년에 단명이라니! 말년에 단명이라니!"

**이용주:** 나는 늘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라던가.

**최중훈:** 재우가 옆에 묻힌다면 아마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라고 하겠지.

**백봉기:** "말년의 죽음은 대뇌의 전두엽과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어떨까.

**김호창:** "나는 싸이코가 아니다"정도가 좋을 것 같다.

**죽기 전에 씻고 싶은 삶의 기억이 있다면?**

**최중훈:** 공개 코미디를 하던 때의 기억은 정말 지우고 싶다. 당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고, 관중 앞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백봉기:** 왜 그것도 있잖아. 소개팅 나갔는데 여자형 못생겨서 만나기 싫다고 했던 거.

**최중훈:** 닥쳐.

**이용주:** 최근에 찍은 멧돼지 전투 신도 지우고 싶다. 감독님이 집채만 한 멧돼지랑 싸워야 한다고 하더니

집채만 한 박제를 갖고 오더라. 그걸 두더니 "싸워!"라고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물고 뜯고 뿔굴면서 15분 정도 혼자 사투를 했다. 연기를 마치고 뒤 돌아보는 데 뺨뺨하게 쓰러져 있는 박제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더라고. 참고로 방송에 15초 나갔다.

**김호창:** 이등병 때 모습은 떠올리기도 싫다. 맨날 고문관 짓거리나 하는 완전 패급이었는데, 방송을 본 당시 병장들이 요즘도 "니가 누굴 갈굴 급이었냐"며 놀리더라고.

**이용주:** 그러니까 이등병 시절의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김호창:** 아니, 그 병장들을 지우고 싶다.

**백봉기:** 사실, 그런 기억들은 지우면 안 될 것 같다. 살아가는 데 크나큰 교훈인 오점을 굳이 지울 필요는 없지 않나?

**최중훈:** 훈훈한 척하지 마. 어차피 24시간 뒤에 너 뒤진단디까.

**백봉기:** 아. 말네.

**촬영하다가 정말 내가 죽겠구나 싶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중훈:** 유격 편이지. 완전군장을 하고 촬영했는데, 그때가 8월 한여름이었다.

**이용주:** 하필이면 군장을 현역 군인들이 직접 다 싸준다. 근데 그걸 풀 세트더라고.

**김호창:** 싸 줄 거면 촬영용으로 주던가. 아니면 촬영장까지 차에 싣고 스태프들이랑 같이 가게 해줘야지, 다 들고 가게 하더라.

**최중훈:** 꺼낼 것도 아닌데 야상, 반합, 워커는 대체 왜 넣어 놓는 거야?

**김호창:** 군용 텐트는 뭐고!

**군시절 MAXIM을 본 적이 있는지?**

**백봉기:** 나는 군대를 좀 늦게 간 07군번이라 봤지.

**최중훈:** 한 줄로 쪽 세워 놓아도 까마득한 군번이 구만. 나는 턱걸이로 99군번인데 당시 MAXIM은 없었고, 주류회사에서 주는 포스터나 보고 좋아했지.

**김호창:** 숨어서 MAXIM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금지 도서였거든(웃음).

**<푸른 거탑>은 언제쯤 끝나나?**

**이용주:** 아마 <롤러코스터 2>가 종료되면서 우리도 운명을 함께하지 않을까 싶다. 한창 캐릭터를 잡아가는 마당인데, 영화화 얘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상송세라 아직 끝내기는 아쉬운 게 당연하다.

**백봉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원래 <롤코 2>에서 처음 우리 코너는 고작 5회 분량에 불과했다.

**최중훈:** 방송 나가도 반응이 좀 좋다 싶으니까 "무조건 10회는 갑니다"라고 작가가 얘기했는데, 벌써 20회가 넘었다.

**이용주:** 이번에 찍고 온 '걸그룹 위문 공연' 에피소드도 대박이네 반드시 보기 바란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어떤 걸그룹이 나오나?**

**다같이:** 나인뮤지스! 



MAXIM 여자 스태프를 걸 그룹 보듯 좋아하던 그들. 좌측부터 이용주, 최중훈, 김호창, 백봉기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다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담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려보자. 어서 신청하라!

###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모르겠으면  
찍어봐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ALBA'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2년 11월 20일까지)

# 전역자랑깅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박진영** 평생 30%

전역하고 10월 거 맥심을 보던 중 발견! 안그래도 여자 친구가 요즘 갑자기 맥심에 빠져서 정기구독 하라고 난리법석인데, 너무 비싸다. 30% 받고 싶어... 어서 날 지원해주세요. 군대 있을 땐 맥심 보면 구박하던 여친이 이젠 옆에서 맥심을 보여 웃고 있습니다.~\_~



**박용범** 평생 30%

저희 부대는 맥심 반입이 안돼서 몰래 준비하고 가서 숨겨놓고 보곤 했는데, 하루는 행보관님이 정비고에 놀러 왔다가 저희가 맥심 보고 있는 거 보시고, 걸러가지고 엄청 혼내고 다 버리라고 한 뒤 가셨어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난 후 정비고 물건 정리한다고 오셨는데 맥심 다 걸러가지고 군장 들고 욕바가지로 먹고 ㅋㅋㅋ 몰래 보는 게 더 재미있는 거 같아 ㅋㅋㅋ



**안창민** 평생 30%

제 부사수이자 제가 전역하고 가장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상병 이용연 ㅋㅋ 당분병도 없는 대대장 운전병인데 마음고생이 심할 겁니다. 전역하고도 너무 미안해서 가끔 전화합니다. 얼른 전역하고 제 부사수와 술 한 잔하고 싶네요. 내가 운행 나가면 맥심 과월호 꼭 사왔잖아 ㅋㅋ 지금도 누군가가 운행 나가면 몰래 사오겠지? 여튼 얼른 전역하자.



평생 30%

**김성환**  
다들 큰형님이라 불러주고 질해줘서 고맙다. 너희를 잊지 못할 거야. 근대 ☆형 일어난 전역하면 20대 안 쭈질 거 같아? ㅋㅋ 전역일 3자리니까 얼마 안 남았네, 힘내렴. ^\_^



**박재휘** 평생 30%

내가 겁나 그리울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가끔씩 너희가 그리워서 나도 문득 놀라곤 하지만) 너를 다시 보기 힘들 터이니 말년에 내가 은총을 뿌린 정기구독의 힘처럼, 부디 이것이 당첨되어 내가 사라진 후 명맥이 끊겼을지도 모를 맥심의 명맥이 다시 되살아나길 빈다 ㅋㅋㅋ 부디 무사히 제대하길 빌며 해양경찰 화이팅!!!



**박우일** 평생 30%

부대 후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하고자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ㅎㅎ



**천주호** 평생 30%

짤짤들이 잘 지내고 있나? 집에 가면서 울었는데... 왜 나만 우냐? ~\_~ ㅋㅋ 같이 물어줘야지 눈치 없는 것들. 장난이고, 전역하고 나서 보니까 1년 9개월이 진짜 꿈 같고... 많은 추억을 못 만든 거 같아서 아쉬움도 남고, 지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짜증만 냈는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 힘내고 영군이처럼 긍정적으로 생활해라. 밖에서도 연락해! 부산 오면 더 좋고, 오면 회 사준다 ㅋㅋㅋ 수고해! 충성!



평생 30%

**이주영**  
후...떡꼬치 잘 있냐????  
TTT...마데 잘 있는 거야?  
TTT... 보고 싶다 애들아, 벌써 크흠... 그래도 어찌됐어,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깐 추억만 곱씹을 뿐.



**정태구** 평생 30%

부대 내 맥심 반입 금지라 정말 1년 가까이 숨겨며 겨우겨우 맥심을 모았는데 얼빠진 이병 놈이 시계 없어졌다고 집에 다 이야기를 해 부대가 뒤집혀 소지품 검사가 실시되어, 전역을 무려 1주일쯤 남기고 제가 모았던 맥심들을 모두 털렸습니다. TTT 심지어 징계위원회까지 갈 뻔 했죠. 분노의 정기구독 신청합니다. TTT



**김민재** 평생 30%

이런 자랑스러운 선임을 맞은 후임들이, 이 글을 볼 때쯤 너희들은 또 휴가 때마다 기차표를 끊어놓고 서점에 가서 맥심을 사 들고 집에 가는 중이겠구나. 영이는 바깥에서 사회생활에 적응 중이다. 너희와 자별 땀 흘렸는데 밖에 나오니 정말 사회엔 이쁜 여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 깨달았다. 어어 이 맥심을 보면서 속을 달래려으나, 너희들도 언젠간 전역을 할 테니 전역 바라보지 말고 하는 일 열심히 하려무나.



평생 30%

**송헌규**  
사랑하는 후임들이, 안에서 시간은 안 갔지만 바깥 세상은 다르구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면 편해. 하지 만 밖이 더 좋음. ㅋㅋ



**임준환** 평생 30%

어느덧 전역한 지 3개월이 다되어가네. 잘 있나 모르겠다. ㅋㅋㅋ 특히 우리 수송 분대원들, 전역하고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네 TTT 보고 싶다. 아가들이, 나오면 연락하렴. 형이 밥 사줄게 ㅋㅋ

위 12명을 비롯하여 총 25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구독 평생 30% VIP가 되었다!

역사의 맥을 짚어주는  
핵심 교양강좌

고려조 패륜왕  
충혜왕



한국사 최악의 패륜킹으로는 고려말의 충혜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어려서부터 평범하게 살인, 강간, 방화를 밥먹듯 행한 미친넘이었고요

년 대체 누구 닮아 이 모양 이냐?  
아들 충혜왕 1315~1344  
아버지 충숙왕

고려에 시집오는 몽골색시들은 예나 지금이나 고생이여

살인 강간 방화

아버지도 마누라 때려 죽였잖습니까?

즉, 내 새엄마들과

1330년 즉위후 아버지의 처첩들과 장인의 처첩들을 모조리 겁탈.

와이프(고려인)의 새엄마들,

신하들을 시켜 새엄마 묶어놓고 겁탈

원나라로 도망 못 가게 말시장 폐쇄해

나 원나라 공주야!

신하들의 아내, 누이들도 파워 겁탈

에아 썩쇼!

몽골단궁 울란바토르 ₩140000

사치와 향락자금 마련을 위해 백성을 쥐어짜고 권력을 이용해 각종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내가 경제를 좀 알지

국왕이 조폭 작전세력이야!

생활고에 백성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물가  
주가

각종 범죄행위들과 폭정으로 원나라에 알송당하기를 3차례.

아아, 약소국의 설움이여~

원나라 만세!!

결국 광동성으로 귀양가는 길에 굴을 먹다 체해서 사망.

'굴이나 까잡쉬' 라는 비난어구가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뽕이지만)



# 사랑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삭제판 전격 개봉 확정!

2012년 할리우드 최고의 멀티캐스팅!

할리우드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2012년 신작!



올리버 스톤 감독

# 파괴자들 SAVAGES



서울메트로와 함께하는  
〈파괴자들〉 예매권 이벤트!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http://www.seoulmetro.co.kr>에서 확인하세요!

my bud  
안경스타일 대(大) 화면 3D 디스플레이  
마이버드와 함께하는 예매권 이벤트!  
[www.my-bud.com](http://www.my-bud.com)



10월 31일, 무삭제 개봉!

페이스북 \_ [HTTP://WWW.FACEBOOK.COM/SAVAGES.KR](http://www.facebook.com/savages.kr)  
홈페이지 \_ [HTTP://WWW.SAVAGES.KR](http://www.savages.kr)

UNIVERSAL  
픽처스  
UNIVERSAL  
픽처스

# RAT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패왕색기 현아님 납셨도다!

다같이 그녀의 곁반에 경배합시다!

BY 손안나 DESIGN 전은경



지난해 드림세탁기 돌는 '버블팝' 활동을 끝으로 솔로 활동을 마무리한 현아가 약 1년 만에 <MELTING>이라는 앨범으로 컴백했다. 그녀지나 앨범명이 'MELTING' 이라니... 브라보! 패왕님께서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남심(남심 말고)을 녹일 작정인 듯. 다들 긴장 타고 녹을 준비 하시라!



### Track List

1. 호트러지지 마
2. Ice Cream (Feat. Maboos)
3. 풋사과 (Feat. 정일훈 of BTOB)
4. 내 남자친구에게
5. Very Hot

우리가 언제 현아를 가장력 때문에 좋아했나마는, 앨범을 냈으니 뭐가 있는지 구경이나 하자. 타이틀 곡 'Ice Cream'은 웅감한 형제와 현아가 처음으로 공동 작업한 곡이다. 신사동 호랭이와 현아가 즉흥적으로 만든 'Very Hot'도 베리 핫한데, MBC, KBS에서는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가사에 '카톡'이라는, 특정 메신저 서비스 이름이 있는 게 이유라고 한다. 뭐 이런 병신 같은 이유를 봤나.

### 현아's TIME LINE

2007년 2월

원더걸스로 데뷔



JYP에서 'IRONY'라는 곡으로 아십차게 데뷔했으나 초기 반응은 생각만큼 폭발적이지

않았다. 중학생 답지 않은 성숙한 외모 탓에 '패왕색기'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때. 지금과는 사뭇 다른 외모다. 정규 1집 준비 중 갑작스러운 탈퇴로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2009년 6월

포미닛으로 컴백



큐브엔터테인먼트로 이적. 갓 데뷔한 주제에 자신들이 '핫이슈'라 외치는 패기를 보인 여성

5인조 그룹 포미닛으로 컴백. 신사동 호랭이가 영혼을 팔고 만든 노래 'MUSIC'에서는 잘 빠진 복근을 공개해 여성 팬마저 하악하악하게 만든다. 그녀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탄 것도 이때부터다.

2009년 10월

포투모로우 활동



삼성의 '두근두근 투모로우' 프로모션으로 만든 프로젝트 그룹. 애프터 스쿨의 유이, 브

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 카라의 한승연과 함께 4인조로 활동. 팀내 비주얼 1등 멤버만 속속 골라온 듯한 비주얼이 보는 이를 흐뭇하게 한다. 이것이 궁극의 미래니라.

2009년 10월

<청춘불패>에서 활약



KBS <청춘불패>의 초기 멤버로 소녀시대 싸니와 함께 '애지 자매', 카라 구하라의 유치 개

그를 받아주는 '수제자'로 활동. 드디어 나이에 맞는 귀여움을 발산하며 다수의 삼촌 팬들을 미치게 만든다. 일본 활동을 이유로 중도 하차한 게 아쉽다.

현아야,  
라이브는  
무리아...



오빠, 이스크림  
시추세요♥

스타킹도 시추~



2010년 1월

**'체인지로 골반 대폭발'**



현아가 가창력 대신 춤이 화끈한 춤으로 어필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첫 무

대에서 선보인 '골반춤'은 예상을 뛰어넘다 못해 컬쳐 쇼크. 이때부터 '골반춤=현아'라는 공식이 성립됨.



2011년 7월

**'버블팝'으로 POP! POP!**



한때는 허안 피부가 본인의 매력포인트라고 말하던 그녀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

는지는 모르지만, 태닝으로 탄력 있는 몸매와 건강미가 돋보이는 비주얼을 완성한다. 더불어 더욱 진화된 골반 댄스로 인간계에서 선보일 수 있는 '색기'의 최고점을 가늠히 돌파.

2011년 12월

**트러블 메이커로 WIN-WIN**



비스트의 보컬 장현승과 발표한 듀엣 곡 '트러블 메이커'로 자난해 한 시상식에서 키스

퍼포먼스를 선보임. "현아님 옥체에 달라붙은 XX가 누구냐"며 분노한 사람들의 검색질로, 비스트에서 틈보 캐릭터를 맡고 있던 장현승이 세상에 이름을 알린다.

2012년 7월

**'오빠 딱 내 스타일' 피쳐링**



사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오빠 딱 내 스타일'이라는 곡에

피쳐링으로 참여. 과한 오토튠으로 현아 목소리인지 (물리코스타)의 성우 목소리인지 헷갈린다. 하지만 흰색 스커트를 내놓거리며 '말 춤'을 추는 그녀의 비주얼만은 '딱 내 스타일!'

# 작명 센스 보소

영화를 뭐 보고 고르냐고 물으신다면,  
BY 송종민 DESIGN 전은경

핸드폰으로  
예약편 6개  
보기 도전!



## 시대주의파: 아직도 제목 영어로 쓰면 멋있다고 생각하나?



히얌하얌 드디어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고쳐주나

### 파라노말 액티비티 4

'심령현상'이라는 돌직구 제목을 두고 영어로 쓰니 뭔가 그럴 듯하다. 뻔히 까짜인 거 아는데 진짜인척 애쓰는 페이크 다크가 지겨울 법도 하지만 매번 개봉 때마다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게 벌써 네 번째. 내년 이맘때쯤 <파라노말 액티비티 5> 리뷰 쓰고 있을 거야 아마.

10월 25일 개봉



나니 머리 위에 있음. 칼 나니

아오 사비

이게 바로 신분의 차이지

### 업 사이드 다운

원수, 외국인, 시공간, 미성년, 형부, 처제, 할부 지(어어... 너무 멀리간다...)를 초월한 수많은 러브 스토리가 있지만 이제는 중력까지 거스른다. 위, 아래가 바뀐다는 뜻의 <업사이드 다운>은 위, 아래로 마주보고 있지만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두 행성간의 중력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다. 물론 말이 중력이지 신분 차이를 시각화한 메타포 아니겠어? 11월 8일 개봉

## 패러디파: 잘나가는 작품이랑 헛갈리게 해서라도...



옆집 체너블학살  
가슴 0점 이상,  
씨는 물대 망원경  
완비. 월세 70부터  
갯만주생.

### 전망 좋은 집

로맨스 명작 <전망 좋은 방>과는 하등 관계 없어 보이는 섹스코미디지만 성에 무지했던 미연(곽현화)이 점차 진정한 성애는 떠간다는 성장 드라마는 원작과 묘하게 비슷하다. 특히 미연을 훑쳐보는 옆집 청년 입장에서 보면 제목이 쉽게 이해된다. 10월 25일 개봉



<스타크래프트>인줄 알았는데  
<문명>이네. 발전 속도 차이가  
너~~~두 나

### 아이언 스키

2차 대전 때 달 뒷면에서 몰래 앞마당으로 살아남은 나치 잔당들의 절치부심 마지막 지구 러시! '철의 하늘'은 구소련의 폐쇄성을 지칭하는 '철의 장막'의 패러디다. 그래서 그런지 나치들은 지구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모른다. 첨단 달 기지는 아직도 거대한 진공관 컴퓨터로 돌아가는데 미국인이 가져온 아이폰 한 대보다 느리다. 10월 25일 개봉

철가방을 든 대오,  
그게 바로 저, 강대오예요

## 복고파: 제목에서 풍기는 8090 스타일~

###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

중국집 배달부가 운동권 여대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결에 전대협(현 한총련) 투사가 된다.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단골 멘트였던 '구국의 강철대오'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선 강철 같은 무리라는 뜻. 철가방이니까 강철은 강철이다. 10월 25일 개봉

## 트렌드파: 좋게 말해서 벤치마크



(병)신들의 전쟁 (나는  
살인범이다) 오늘의  
탈락자는

### 내가 살인범이다

공소 시효가 끝난 살인범이 자신의 일대기를 자서전으로 출간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제목도 좋다. 베테랑 가수들이 나와서 벌벌 떠는 모 프로그램의 리얼리티와 긴장감이 재작 떠오른다. 미디어와 대중은 이러한 자극에 목말라있다. 그렇다면 <나는 살인범이다>는 어떨까? 금주의 살인범. 상위권, 하위권 뺏아서 탈락자는 처형시키고. 11월 개봉

# 잉여력 대폭발 유튜브 영상 BEST 6

유튜브 영상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자기 몸 흑사시키면서 웃음 주는 잉여들 아니겠어? BY 박한빛누리 DESIGN 전은경



## 메리어스는 내 흑인 친구-정택과 래남들

〈슈퍼스타K 4〉의 숨은 실력파 그룹 '래남과 옥구술'의 2년 전 앨범 뮤직비디오. 병맛 돋는 가사와 흑인 친구 메리어스의 연기력에 눈물을 흘렸다. '메리어스, 까맣지만 까매내 아니고 미국 친구' 노래 가사도 일품. 아니, 승철 형은 왜 이런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거야!

<http://youtu.be/gmGRjQYRTQs>



## 전설의 명약 알보칠의 진정한 위력

일주일간 느낄 고통의 총량을 단 7초 만에 느끼게 하는 전설의 약 '알보칠'의 효능을 눈과 귀로 확인하는 영상. 발의 물집을 찢고 거기에 알보칠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스피커에서 터지는 고통의 비명소리에 듣는 사람이 아픔을 느낄 정도. "오아아악! 쓰너!"

<http://youtu.be/Rnft9W7r4o>



## 흑형의 매운 고추 신고식

유튜브에서 세계 최고의 흑인이 되고 싶다는 한 흑형이 하나 먹기도 어려운 고추를 무려 3분 안에 세 개나 먹겠다고 도전한다. 얼굴에서 눈물 콧물 다 흘러며 도전하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다음날 엉덩이에서 비둘기가 엄청 '푸드덕' 거렸을 거야.

<http://youtu.be/foVyn3UTHCv>



## 훌배기 잉여

〈레지던트 이블〉의 좀비를 보는 줄 알았다. 위액이 역류하는 격한 몸부림을 펼치는데, 그 와중에 나비넥타이를 착용한 친구(사진 속 맨 앞)는 장인 정신마저 느껴진다. 춤에 꽤 소질있는 친구들이 왜 이런 장애력 충만한 춤에 온 힘을 기울이는지... 쫓쫓.

<http://youtu.be/vfdbn4gx7AU>



## 조로vs붉은발제프

〈원피스〉의 붉은발 제프와 조로의 숨 막히는 대결. 삼각뿔을 장착한 붉은발 제프가 위풍당당하게 조로의 검에 맞서지만 결국 병신 같은 걸음걸이로 비명만 지를 뿐이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도망가는 제프의 엉덩이가 흑인 엉덩이처럼 탄력있으니 눈여겨볼 것.

[http://youtu.be/\\_WgR2L6k9eo](http://youtu.be/_WgR2L6k9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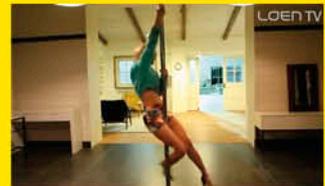


## Pah - Fun voice activated iPhone game - Services Recommended review

"아아아~" 목소리 높낮이로 우주선을 조절하고 "파!"를 외치면 미사일이 나가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남자.지가 생각해도 병신같은지 참치 못하고 흐느껴 웃(?)는다. 내친김에 직접 게임을 다운받아서 병신력을 발휘해보자.

[http://youtu.be/8VpxZ33\\_FG0](http://youtu.be/8VpxZ33_FG0)

## 이달의 HOT 한 영상 뜨거워서 화상 입겠네



### 가인 폴댄스 레슨 영상

가인이 완전히 농익었다. 매끈한 각선미가 풀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어찌 클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http://youtu.be/EWGZrXUHUQE>



### GANGNAM STYLE(강남스타일)

- Waveya

빌보드 2위이지만 이제는 "오빤"만 들어도 울렁거릴 만큼 지겨운 '강남스타일'. 군인부터 외국 꼬마까지 수만 가지의 허접한 말춤을 봤지만 이 아가씨들것은 차원이 다르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침을 흘리게 만드는 극한의 허리 돌림이러나...

<http://youtu.be/kpZhZAr1cQU>



겉이어 15화: 람보르기니를 란 루지혜 루지혜의 풍만한 가슴을 느낄 수 있는 영상. 그녀 때문에 람보르기니는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 생애는 안전띠로 태어날래!

<http://youtu.be/sRcttzOGPs4>



### 유튜브에서 MAXIM을 만나자!

MAXIM의 공식 유튜브채널 THE MAXIM KOREA로 접속하라. 생동감 넘치는 촬영 현장과 당신이 사랑하는 그녀들을 만날 수 있다.

[www.youtube.com/themaximkorea](http://www.youtube.com/themaximkorea)

CHECK IT!

RATED COMICS

# 장르 무색, 이상한 요리 만화들

한입에 황천길 투어하는 미식가들이 불쌍하지도 않다.  
BY 조종재 DESIGN 신숙희

만화로는 부족하지!



## 철냄비빵

글/그림: 사이조 신지

〈복두의 권〉도 울고 갈 천하무적 요리만화

오바자수 위풀자수 판타지 자수



열혈물과 요리물의 오묘한 조합이 인상적인 만화. 어지간한 요리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어머니의 맛'이라던가 '가난을 이겨낸 요리'와 같은 신파극 따위는 없다. 백상아리를 맨손으로 잡아 통째로 튀김 냄비에 넣어 튀기는 장면, 타조 고기를 요리하다 구더기로 풍미를 내자 분노한 타조들이 집단으로 주인공을 밟아버리는 장면을 보다 보면 어이가 없다 못해 헛웃음만 나온다. 초일류 미각을 자랑하는 심사위원과 주인공 '짱'의 불꽃 튀는 사투가 주된 내용이며, 집에만 한 가슴을 자랑하는 여주인공은 그냥 배경에 불과하다. 여자들은 요리하는 남자를 섹시하다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중에는 고자가 많은 듯.

얼굴이 세 개 달렸네



## 미스터 초밥왕

글/그림: 테라사와 다이스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새끼의 전국 요리 재패기

오바자수 위풀자수 판타지 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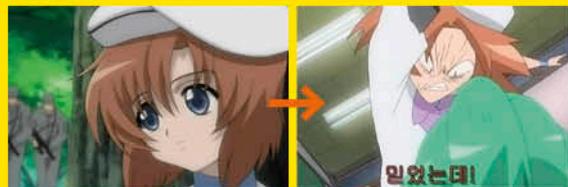
계란 초밥 먹고는 "양계장이다!!!"라고 외치려나.

만화 최초로 요리 배틀물을 창시한 테라사와 다이스케의 출세작. 복잡한 레시피 없이 원 재료를 중요시하는 초밥이 소재이니만큼 요리법은 그나마 설득력 있다. 캐릭터가 분명하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요리가 맛있으면 한쪽 눈을 뜬다는 전설의 심사위원이 겨우 10대인 주인공의 초밥을 먹고 양쪽 눈을 뜬다든지 하는 장면이 가관이다. 어떤 심사위원은 맛있으면 손뼉을 치는데 ' 짹' 하는 박수 소리는 임팩트 없다고 생각했는지 '파앙!'이라고 표현했다. 스토리가 탄탄하고 중독성이 강하며 작화가 좋아서 책을 읽다 보면 군침이 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힌 주인공이 우연히 일상에서 힌트를 얻어 상대를 이긴다'는 전개가 완결(본편 27권, 외전 17권)까지 가는 내내 똑같아 식상하다.

## 작화 붕괴의 세계 에니 → 에니: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루토 - 페인**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조직 아카츠키의 리더가 찬 바닥에서 자고 일어난 비주일이 되었다. 〈나루토〉에서는 워낙에 흔한 일이라 팬들은 그냥 웃고 넘어갔다.



**쓰르라미 울적에 - 류구 레나**  
미소녀가 대거 등장해 한 남자를 두고 선혈이 낭자한 사투를 벌이는 만화 〈쓰르라미 울적에〉. 믿었던 미소녀가 정신병자든 변태든 상관 없는데 저 얼굴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발! 얼굴만인! 얼굴만은 믿었는데!



### 중화일번(요리왕 비룡)

글/그림: 오가와 예츠시

**입 속에서 터지는 후쿠시마 원자로 대폭발의 맛**

오바지수 위פל지수   
판타지 지수



우리에게는 <요리왕 비룡>이라는 아동틱한 제목으로 알려진 중국 요리 만화. 이런 류의 만화에서 주인공이 무적이라는 설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래서인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기막힌 아이디어와 순발력 그리고 절대 미각의 3중 능력만으로 어른들을 처바른다. 아니, 애초에 '암흑 요리'라는 게 있긴 해? 무형물인지 요리물인지 모를 수준의 약 뽀 뚝한 특수 효과 장면은 이 작품의 백미. 누룽지탕을 먹었더니 테이블이 우주로 날아가고 빅뱅을 연상시키는 빛의 폭발이 일어난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남자들은 왜 그리 다들 질질 찌는지, 원.

### 화려한 식탁

글/그림: 후나츠 카츠키

**요리 만화를 빙자한 에로 만화의 절대 강자**

오바지수 위פל지수   
판타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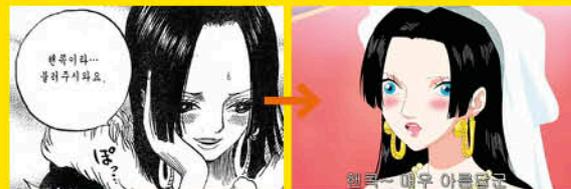
특이하게 '카레'라는 소재를 주제로 삼고 있는 요리 만화. 왜 하필이면 카레인가 싶겠지만, 사실 일본만큼 카레를 다양하게 즐기는 나라도 없다. 콩고기 카레가 있을 정도니까. 위 항목에는 없지만 에로지수가 있다면 별 다섯 개를 주고 싶은 요리 만화로, 성인물 맛먹는 높은 수위를 자랑한다. 하지만 국내판이 늘 그렇듯, 유두 노출을 뛰어넘어 유두 삭제는 기본이요, 나체 신에서 심지어 속옷을 그려 넣는 검열 작업 덕에 독자들의 원성이 만만찮다. 참고로 작가가 이상하게도 유독 털을 세심하게 그려 넣는 걸 좋아해 국내판에서도 못다 지운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쯤 되면 '화려한 음모'다. 요리 만화답게 음식의 묘사나 리액션 등이 화려한데, 에로틱하게 화려하다. 그래서 사실 음식보다 다른 걸 보고 군침을 흘리게 된다.

### 작화 붕괴의 세계 코믹스 → 애니메이션: 아니 어떻게 여자 얼굴에 이 지랄을...



#### 작안의 사나 - 사나

덕후들이 열광하던 미소녀 캐릭터를 EBS 어린이 만화의 주인공처럼 만들어 버린 폐기에 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미소녀 보려고 만든 만화를 이따위로 만들어놓다니...



#### 원피스 - 핸콕

S급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는 루피의 연인 핸콕. 하필이면 가장 아름다워야 할 웨딩드레스 신에서 눈과 눈 사이를 위대한 항로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매우 아름답군? 차네 매우 맛고 싶군?

# 슈퍼키드의 탄생

세상에 없던 슈퍼히어로물의 간지

BY 김희성 COOPERATION 세미콜론(02-515-2000) DESIGN 전은경



## <엠브렐라 아카데미>

제라드 웨이 글/ 가브리엘 바 그림/ 광경신, 김송호 역/ 세미콜론

한창 마감 작업을 하다가 메일함을 열어 보니 미래에서 온 메일이 한 통 도착해 있었다. '2013 S/S 서울패션위크 프레스 등록 안내'. 아직 본격적으로 가을옷을 꺼내 입은 지도 며칠 안 됐는데 2013년 봄, 여름 옷을 입은 모델들이 런웨이를 활보한다니. 하지만 2012년에 2013년 컬렉션을 보여준다고 해서 SF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퓨처리즘 돋는 반짝이 의상이 나온다고나 그런 건 아니다. 어릴 적 유행하던 나팔바지가 변형된 형태의 바지라든가 재작년 유행이었던 패턴이 들어간 옷이 나오는 식이다.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온다기보단 예전에 한 번 유행하고 지나간 것들이 조금씩 변형되어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하곤 한다. 그런 면에서 슈퍼 히어로는 패션이랑 참 닮았다. 1930~40년대 DC 코믹스에서 만화책으로 나왔던 슈퍼

맨, 배트맨, 원더우먼, 그린랜턴 등이 영화화되고 누군가는 그래픽 노블로 그리면서 조금씩 변형된 히어로가 탄생했다. 그리고 우리는 히어로가 재탄생할 때마다 잉여력을 불사른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X맨, 헐크 등 인기 있는 슈퍼히어로물이 영화로 2탄, 3탄 나왔고, 더구나 <어벤저스>에서 이 모든 히어로들을 뿌아악하게 등장시키면서 살짝 지겨운 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다.

<엠브렐라 아카데미>는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히어로물이다. 이것이 에디터가 <엠브렐라 아카데미>를 당시에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47명의 애들이 동시에 태어나고 애네들이 세상을 구하는 애긴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픽 노블은 직접 봐야 제맛 아니겠나.



## 주요 캐릭터 스펙

요즘 슈퍼히어로는 뭐가 좀 다르나?



### 스페이스보이(루터)

특징: 화성 탐사 후의 사고로 머리를 고릴라 몸예 이식한 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던 슈퍼 파워가 향상됨.  
능력: 힘, 회복력  
MAXIM 추천 직업: 에디터, 신이시여, 부디 저희에게도 마감 때 자치지 않는 체력을!



### 크라켄(디에고)

특징: 거칠고 반항적  
능력: 무한정 숨 참기, 칼 거칠게 다루기  
MAXIM 추천 직업: 일식집 주방장.  
아예 수족관에 들어가서 해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최 뜨는 거지.



### 루머(앨리스)

특징: 자기애가 강하며 한쪽 팔이 가짜  
능력: 거짓말을 하면 사실이 된다.  
MAXIM 추천 직업: 국회의원

謹弔



### 호러(벤)

특징: 사고로 죽은 것으로 설정된 아카데미 앞에 동상이 서 있음  
능력: (...)  
MAXIM 추천 직업: 죽었다나까!



### 보이

특징: 동안  
능력: 매우 빠르게 이동하며 시공간을 넘나든다. 열 살 때 모습 그대로 20년 후의 미래로 이동 가능.  
MAXIM 추천 직업: 벤저민 버튼



### 세이양스(클라우스)

특징: 손바닥에 '헬로'와 '굿바이'가 새겨져 있음.  
능력: 공중 부양, 죽은 자와의 소통. 단, 맨발일 때만 이 모든 게 가능.  
MAXIM 추천 직업: 허경영, 뽕상 아줌마



이번 달엔 <엠브렐러 아카데미> 2권 세트를 총 5명에게 쏜다! 자, 어서 QR 코드를 스캔해 에디터의 마음에 드는 댓글을 달아라.

<엠브렐러 아카데미> 받으러 가기



## SCARIEST KIDS TOP 3 아이언맨, 스파이더맨보다 더 무서운 슈퍼키드들



### <킥 애스> 핏걸

**즐거리 복습:** 아내를 잃은 복수를 하기 위한 아버지에게서 슈퍼히어로 조기교육을 받은 딸 민디가 진짜 슈퍼히어로로 거듭나 악당을 겁 없이 죽이고 다니는 이야기.

**능력:** 찌르기, 쏘기, 주먹 날리기, 달려차기, 돌려차기, 창과 나이프 쌍절근처럼 돌려차기, 스파이더맨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 뛰어넘기, 불쌍한 여중생 연기로 아저씨를 흘린 뒤 무참히 살해하기...

**특이 사항:** 애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겁이 하나도 없다. 근데 커갈 수록 외모가 여신급이 되어 가고 있어!



### <영구 홀로 집에> 영구

**즐거리 복습:** 특수학교 7학년인 10대 독자 영구에게는 7명의 여동생이 있다. 영구는 잠이라도 혼자 있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데, 마침 여름방학을 맞아 혼자 무인도에 남겨 된다. 하필이면 밀수범들이 국보급 도자기를 숨겨놓은 별장에 목격 되면서 악당들에게 위협을 받지만 특유의 재치(?)로 위기를 극복한다.

**능력:** 풍선에 방귀 모아 터뜨리기, 상한 족발 먹이기, 귀신 퇴치하기(영구가 귀신을 보는 능력도 있었나?)

**특이 사항:** 중학생 이상 관람가



### <카드캡> 다섯 명의 아이들

**즐거리 복습:** 좋아하는 여자에(김민정)가 좋아하는 가수 JAM 사인을 받기 위해 건영음니백화점에 갔다가 백화점을 털러 온 악당들을 물리치는 소년들의 이야기. 당시 우주 대스타였던 JAM이 특별 출연하기도 했다. "방향도 좀 했다. 한 여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친구들- 우리는 어느새 한 배를 탔지"라는 카피를 지금 보니 손발 땀갈하겠네.

**능력:** 프라이팬으로 연속 후두부 내려치기, 후추 탄 물총 쏘기, 자전거 바퀴로 얼굴 안면 강타, 귀 물어뜯기, 야구 방망이로 두개골 강타, 미니스커트너 다리 사이로 슬라이딩, 밧줄로 여자 묶기 등

**특이 사항:** 롤러스케이트와 보드를 수준급으로 타고 비디오카메라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안다. 애네 좀 있는 집 애들이었네.

맨 앞줄 가운데 독고영재 씨 아니세요?



## 책을 받기 위한 무리수 <배트맨 시리즈 편>

지난달에도 책을 받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 특히 에디터가 배트맨 시리즈 5권 세트를 상품으로 내건 지난 8월호 이벤트,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무리수를 둔 이유들이 난무했다.

이거 받으면 에디터한테 고백한다. 180cm, 25男. (양규)

히스레저가 4월 4일생인데 생일이 나랑 같아서. (조커가 그림다)

만약 나에게 배트맨 전권을 주면 까만색 줄줄이 위에 까만 삼각팬티 입은 사진을 독자 사연에 보내겠다!!! (홍홍)

배트맨을 읽기 위해 태어났다. (신형물서들)

나는 사실 흥석천이다. 그리고 배트맨을 사랑한다. 비밀을 알려줬으니 책을 내놓아라. (로빈)

화끈한 에디터 누나♡ 배트맨 세트를 읽으며 누나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X석)

배트맨 소설보다 그대의 확보집이 더 갖고 싶소. (나란남자 끝난남자)

나에게 책을 보내주지 않으면 3년간 솔로의 저주에 걸릴 거다. 참고로 난 올해 대마법사가 됐다. (양마강림)

이 책을 받지 못하면 멘탈과 존슨이 붕괴될 것이다. 당신의 두 눈으로 또 하나의 조커를 보게 될 거다. (쫄커페이스)

배트맨 시리즈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본 팬이다. 책으로도 감동을 느끼고 싶다. 현관문 앞에서 택배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정X래)

**뽑은 이유:** 에디터가 국문과 출신이라 망부석 설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타리스트 직화구이는 무슨 맛일까?

# MAXIM ATTACK

## 갤럭시 익스프레스: 이주현

"매너리즘? 시팔 그런 거 없지" 베이스보다 기타를 잘 친다는, 베이시스트 이주현이 MAXIM 여자 화보 촬영장을 습격했다. 이런 상 남자를 봤나!

BY 이영환 PHOTOGRAPH ARC STUDIO FILM 이영환, 최성준 DESIGN 서운창  
COOPERATIONS 세파스(goprohd.cafe24.com), 프리버드(www.freebud.co.kr)

내래 록큰롤의 진수를 보여주겠어.



MAXIM은 무대 위에서 미쳐 날뛰는 종자들이 슈퍼스타가 되어야 한다는 데 당위성을 느낀다. 섭외에 응해줘서 존나 고맙다 이 말이다. 슈퍼스타고 나발이고, 미쳐 날뛰는 이주현이다. 만나서 반갑다.

초장부터 이따위로 멋있게 나오면 곤란하다. 간지 수위 좀 조절하자. 난 진짜로 록 스타에 관심 없다. 로커가 록을 하면 끝이지 뭐가 되든 원 상관인가.

MAXIM과 촬영한 소감이 어땠나? 베이스만 치다가 기타를 치려나 어색했을 것 같다. 시팔, 오늘 아주 쇼를 했다. 때때때 구르라고 설명까지 해주니 아주 후리하고 좋았다. 사실 기타를 베이스보다 잘 친다. 어색은 무슨.

영화 <반드시 크게 들을 것>에서 당분 섭취가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하길래 단 음식을 준비했다. 마음에 드나? 쓴 걸 먹으면 쓰고 단 걸 먹으면 달다. 단 것은 좋다. 속담도 있지 않나 달면 삼키는 거라고, 난 그렇게 살고 있다. 시팔, 나 뭐라는 거야.

당분 섭취만으로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로 복용하는 정력제라도...?

사실 내 에너지의 원천은 분노다. 난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가 공연장에서 터뜨린다. 공연장에서의 분노는 공연의 에너지로 작용한다. 누구도 해를 당하거나 다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록의 힘이다.

발광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울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하나. 시팔 그런 거 없지. 내가 만든 노랜데. 매번 노래를 시작할 때마다 "아, 맞아. 시팔, 내가 만든 노래" 하고 전율이 땀 뚝뚝. 매너리즘 같은 거 없다.

무대에서 선보이는 무등 타기 퍼포먼스는 따로 연습을 하나? 공연 중에 연습도 없이 목말 타봤는데 환호성이 엄청났다. 종현이(보컬)가 날 목말 태운 적이 있는데 꽤 무섭더라.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들겠다고 했다. 시팔, 쪽팔리게.

부모님의 공연 관람 소감이 궁금하다. 처음 당신을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 멀리서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뭘 노래를 하는지는 당최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KBS <뮤직뱅크>에서 정체 모를 여자 MC가 "갤럭시S의 무대가 기대된다"라고 소개하는 걸 봤다.

팔자에 없는 스마트폰 된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무대 바로 옆에서 그 소릴 들었다. 웃기더라. 그 아가씨 미안하던 얘기도 없었는데, 그래도 뭐 예쁘니까 괜찮다. 옆에서 봤는데 꽤 예쁘더라.

경기도 일산이 고향이던데,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나? 부자 좋아하네. 아직도 일산 고향 집 주변은 비포장 도로다. 심지어 기차길 바로 옆. 예전에는 집 옆으로 기차가 한 시간에 한 대씩 지나갔는데 요즘은 20분에 한 대가 지나간다. 지하철이 뚫렸더라, 시팔.

음악 얘기나 하자. 지금의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있게 한 뮤지션이 있었나? 진솔한 음악은 장르 불문하고 다 좋아한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음악을 말이다. 굳이 나열하자면 AC/DC, 너바나, 들국화 형님들이 있겠다.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 주로 앨범 완성 직전에 그렇다. 매번 멤버들과 붙어서 노래를 만들고 나서 들어보면... 카, 세상에 이런 천재가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격렬한 록스피릿을 감상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큰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할 거다. 뭐,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시팔.

# GALAXY EXPRESS ATTACKS MAXIM

뭐! 여자 아이들? 스브  
그걸 왜 지금 말해!



걸그룹 만날 줄 알았으면  
머리라도 빗고 올 걸...



여자 아이들이 촬영 중이라는 소리에 그는 록큰볼을 전파하겠다  
며 차문을 박차고 스튜디오로 뛰어 들어가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 록커야, 록커.



베이비들, 록큰볼은  
무서운 게 아니래두.

걸그룹 쉬즈 (p.116)



일단 소리 질러!



시팩, Rock will  
never die-EE!



진짜 너를 원해!



록큰볼 복음 진파 찬양 예배의 첫 곡 '진짜 너를 원해'가 스튜디오를  
메울 때쯤 쉬즈 멤버 진원이 뜬금없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역시 록큰볼의 힘은 위대했다. 누군가 공기에 약을 탄 것 같았다.

각, 손 잡아줘 읊빠!



록큰볼 본연의 모습은 탈진이라고 했던가. 꺾어!

마무라는 여운있게.



역시나 힘부로 여자에게 손을 내주지 않는 마초 록커였다.

만심니까 여러분!



대박, 대박!  
록큰볼 할렐루야.

록을 면전에서 접한 쉬즈 멤버는 공연 후 록 지지 세력  
이 됐고 록큰볼 진도 예배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 가을에 즐기는 따끈따끈한 온라인 게임 4선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혼자 하는 게임은 그만하자. BY 조용재 DESIGN 전은경

에디터가 직접 해 본다!



## 메달 오브 아너: 워 파이터 - EA

2012/10/23 국내 패키지 정식 발매  
리얼지수 ★★★★★ 애국지수 ★★



### → 국내 정식 발매를 하려면 원빈 얼굴을 쓰지 그랬어

콘솔/PC용으로 함께 출시되는 <메달 오브 아너>의 새 시리즈, 이번엔 <배틀필드 3>의 엔진을 차용해 한층 더 리얼하고 세밀한 그래픽을 선보일 예정이다. 역시나 밀리터리 FPS의 강자답게 현실감 넘치는 스토리와 캐릭터들이 발군이다. 세계 12개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등장하는데, 한국 해군 소속인 특수부대 UDT가 포함되어 국내 유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티저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푸근한 인상의 작은 군인 아저씨가 등장해 못 유저들의 애국심이 싹 달아나버렸다.

## 레전드 오브 소울즈 - 피망

OBT 중  
섹시지수 ★★★★★ 일관지수 ★



### → 광고하고 싶은 게 모델이나 게임이나?

무려 MISS MAXIM(!) 출신의 엄상미와 천이슬이 모델로 등장하는 제대로 된 섹시 콘셉트 온라인 게임. 사실 게임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캐릭터 백뷰 시점의 평범한 MMORPG다. 화려한 광원 효과 그래픽과 아름다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일품이지만, 사실상 게임의 콘셉트 자체가 화려한 모델들에 집중되어 게임 자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게 아쉽다. 홈페이지에 가도 스크린샷보다 엄상미 사진이 더 많을 정도다. 이럴 바에는 아예 19금 딱지 붙이고 화끈한 콘셉트로 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비키니 입은 엄상미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 로스트 사가 - 아이오엔터테인먼트

정식 서비스 중  
설외지수 ★★★★★ 독창지수 ★★



### → LOL이 되고 싶은 캐주얼 액션 게임

유수의 일본 게임사와 라이선스를 맺어 SNK의 간판 캐릭터인 마이, 이오리, 하오마루뿐 아니라 아크 시스템 워크스의 키사라기 진 등 유명 캐릭터를 등장시켜 화제가 되었다. 게임 방식은 <서바이벌 프로젝트>나 <갯짚프드>와 비슷하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서로 개 패드 싸우는 패싸움 게임으로, 다른 게임들과 달리 유저가 캐릭터마다 성별을 맘대로 지정해 플레이하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매달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해 쉽게 질리지 않을 것 같지만, 수십 명에 이르는 캐릭터 각각의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LOL에 견줄 바는 못 된다.



## 마구 더 리얼 - 넷마블

OBT 시기 미정  
재현지수 ★★★★★ 시기지수 ★★



### → H.O.T 활동 시기에 컴백한 잭스키스 폴

<마구마구>로 온라인 야구 게임계를 뒤집어놓으신 넷마블이 이번에는 현실성을 가미한 뛰어난 그래픽의 야구 게임을 내놓았다. 실존하는 선수들의 얼굴을 세밀하게 묘사했으며 선수들의 투구 폼과 타격 폼 등을 모션 캡처로 살린 건 칭찬해 줄 만하다. 하지만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스포츠 게임의 명가 EA의 <MVP 베이스볼 온라인>과 비교되어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 일단 모션과 그래픽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 사골까지 쪽쪽 빨아 먹으리: 열혈강호

→ 온라인 및 패키지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까지 어느 국산 만화도 이만큼 수없이 어레인지된 경우는 없었다. 그런 <열혈강호>가 이번에 또다시 <열혈강호 2>라는 제목으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뛰어난 그래픽과 시스템이 기대되는 이번 시리즈 역시 열게임에서 제공한다.

### <열혈강호> 아이폰/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 출시

한창 게임에 빠져 있지만, 원작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현재까지 출시된 <열혈강호>의 단행본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아이폰/아이패드용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다. 그 인기를 입증하듯 현재 앱스토어 전체 매출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다. 1권을 무료로 제공하며, 2권 무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원작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놓치지 말자.





화이트

엄상미(169cm, 47kg)

MAXIM 시그너처 남녀공용 면 티셔츠  
 색상: 화이트, 블랙



네이버

최현아(158cm, 44kg)

MAXIM 여성용 브이넥 면 티셔츠  
 색상: 네이버, 화이트



화이트

김수아(176cm, 58kg)

MAXIM 여성용 브이넥 면 티셔츠



MAXIM 시그너처 여성용 T팬티

- 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홈페이지 상단 STORE 메뉴를 클릭한다
- MAXIM SHOP에서 상품을 고른다



MAXIM  
 시그너처 여성용  
 면 스판 티셔츠

색상: 스카이블루,  
 옐로, 화이트

모델: Danning Fu  
 (160cm, 42kg)

구매 문의  
 www.maximkorea.net  
 Tel. 02-323-1182



모자 모두 뉴에라(070-4411-5950)

# STUFF OF THE MONTH

해품달  
김유정  
만나러  
가기



## 닌텐도

# 3DS XL

언제나 큰 게 최고지. 아무렴.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3DS가 언제 발매됐다고 벌써 업그레이드냐!”고 노발대발 하고 있나?  
‘얼리어답터는 봉’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잖아? 왜 그리 오버하고 그래.  
그런 빅 엿을 즐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얼리 버드의 올바른 자세지.  
위로해 주자면 둘은 확연히 다른 콘셉트의 모델이다. 갤럭시 노트를 생각하면 편해.  
화면은 두 배 가까이 커졌지만 해상도는 그대로고, 배터리는 더 오래가지만 그만큼  
무거워졌다. 휴대기기로서는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갤럭시 노트는 엄청 팔렸잖아? 왜 그럴까?

서두에 말했듯이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는 클수록 좋다~는 거지!

가격 278,000원



전체적으로 커진 덕분에 336g으로  
무거워졌지만 작동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6시간 30분 사이로 늘어났다.

그래도 난 이거 살래!  
저렴하고 슬림한 3DS



위 화면 크기	3.53인치
아래 화면 크기	3.02인치
무게	약 235g (2GB SD 카드 포함)
배터리 지속 시간	약 3시간 ~5시간
대상	정말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게임할 사람, 그랜지 TG보다 각그랜지가 더 좋은 사람, 6만 원 모자란 사람
가격	220,000원

3DS 대비 1.9배 커진 4.88인치 디스플레이. 이제 더 커진(어디가?) 네네짱을 만날 수 있어!

하단 터치 스크린도  
당연히 사이즈 업!



기본 제공 SD 카드도  
2GB에서 4GB로 사이즈 업!



듀얼로 쓸 수 있게 아날로그 패드  
좀 달아주지. 패드는 아직은 옵션  
으로 남겨둘 모양.



# IRON MAID

## 아이언 메이드

게을러진 당신을 위한  
우렁각시 기계들.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속희 MODEL 최별하  
 FILM 최성준  
 HAIR&MAKEUP 이현정  
 ASSISTANT 박수현, 최동희  
 COOPERATIONS 다이슨(1588-4253),  
 네스프레소(080-734-1111), 환경회생학과학  
 (1577-3555), 아이로봇(1577-4253),  
 쿠팡아트(080-700-9390), 금상첨화  
 (1544-3896) 슈즈원(02-3443-1703)  
 타임힐피커(080-519-0700)



### 다이슨 무선 청소기 DC35

다이슨이 좀 비싸긴 해도 이처럼 성능과 디자인 모두 빠지지 않는 제품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레이저견을 담은 청소기라니! 사촌 동생에게 쥐어주면 총 쏘듯이 이곳저곳 휘둘러 어느새 방 청소를 끝내줄 것이다. F1 엔진보다 무려 5배나 빠른 RPM으로 회전하니 가지고 노는 재미가 쏠쏠하겠지. 투명한 먼지통 속에 들어 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어보며 탈모 속도를 확인하는 공포 체험도 가능하다.

가격 598,000원

우렁각시의  
살림살이  
현장 포착



원피스 금상첨화  
슈즈 슈즈원

### 다이슨 청소기 DC37

이게 청소기야 원심분리기야? 지구 중력의 31만 배에 달하는 강력한 원심력의 언리미티드 빠와로 공기 중의 알려지 유발 물질을 제거한다. 그렇게 걸러진 공기는 평소보다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최대 150배나 적다니 공기 청정기 대신 틀어놔도 되겠다. 수능 5등급 맞은 것 마냥 전기를 오지게 쳐먹긴 하지만 집에 알레르기 환자가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다. 바퀴와 본체가 하나로 이뤄진 미래적인 디자인의 공 모양 청소기가 거실 코너와 문턱을 오가며 스무드한 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면 이게 미래구나 싶다.

가격 998,000원



### 네스프레소 U

자판기 커피 뽑아 먹듯이 집에서 최상급 원두에서 추출한 신선한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다면? 벌써부터 향긋한 에스프레소 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것 같지 않나? 네스프레소 U는 복잡한 추출 방법으로 집에서 만들기 어려웠던 에스프레소를 간편한 일회용 캡슐에 담아 누구나 쉽게 추출할 수 있게 한 자동 캡슐 커피 머신이다. 물통에 물을 채우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내 방이 바로 별다방! 캡슐 하나당 900원 정도니 부담도 적다. 별다방이랑 비교해봐. ㅎㅎ  
**가격 249,000원**

**TIP**  
 커피 캡슐은 타 브랜드끼리 전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맘에 드는 맛과 향의 캡슐들이 있는 회사의 머신을 고르는 것이 필수! 디자인 보고 고르면 망해.



원피스 금상첨화  
슈즈 슈즈원  
안경 타미힐피거

#### 한경희 스팀다리미 크리스탈 HI-7200

설거지와 다림질만큼 남자들과 적성이 맞지 않는 일도 없을 거다. 웬만한 스킬이 없으면 다릴 때 마다 새로운 주름이 생겨나서 다리미를 집어 던지고 싶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런 당신이라도 옷걸이에 걸어 놓고 속속 문질러 주기만 해도 옷이 깔끔하게 펴지는 스팀다리미라면 누워서도 삼선일치를 실현할 수 있다. 평소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착각할 만한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역시 한경희' 소리가 절로 난다.

가격 169,000원

경희?  
그건 또 어떤 X이야?





### 아이로봇 롬바650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클린 버튼만 누르면 초당 64회의 스캔을 통해 스스로 청소 방법, 흡입력 등을 계산해 효율적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다닌다. 지가 알아서 소파 밑도 들어가고 커튼은 들추고 지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 집 백구가 공 물어올 때 처럼 신통방통하다. 하지만 청소하는 모습에 요상한 주목도가 있어서 흘린 듯 쳐다보게 되는데, 보고 있으면 속 터질 거다. 잘하고 있나 자꾸 확인하게 된다고 할까? 외출할 때 작동해놓고 가는 게 제일 속 편하다.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에 돌아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배고파서 지 똥 주워 먹고 있는 백구보다 낫다.  
**가격 648,000원**

내가 이미 닦은 곳  
어지럽히지마!

### 쿠진아트 쿡 블렌더

믹서기에 단지 끓이는 기능을 추가한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배로 늘어났다. 믹스한 것을 따로 냄비로 옮기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설거지 거리를 늘이지 않고 바로 호박죽이나 미음 등을 끓일 수 있는 거다. 거기에 속도 조절 가능한 블렌더 기능으로 짜장이나 카레, 스프, 디핑 소스 등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자동으로 섞으며 조리할 수 있다. 맨날 물 끓이다가 스머프들 다 놓치는 가가멜한테 이 쿡블렌더만 있었어도...

가격 299,000원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지?



상의 핀앤핏  
절퍼 비토이  
하의 퀵실버

나도 시켜주면  
잘 하는데...

# 신세대 사이버펫 다마고치

애완동물도 게임으로 밖에 못 키우게 된  
우리네 아이들의 유일한 위안.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울청 ASSISTANT 박수현, 최동희  
HELP 성산 초등학교 앞 꼬마포레 문방구  
COOPERATIONS 비토이(00-8260-5182)  
퀵실버(070-4369-5300)  
핀앤핏(02-540-8448)

애 또 똥쌌네.  
넌 똥 만드는 거 말고  
할 줄 아는게 뭐니?

초등학교  
친구들  
섭외 현장



옛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 다마고치(たまごっち)란?

일본 만다이사(社)가 개발한 휴대용 전자 애완동물 사육 게임. 달걀의 일본어 '다마고(たまご)'와 '지켜보다'라는 영어 '워치(watch)'가 결합한 합성어다. 1996년 11월부터 판매를 개시한 이후 일본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판매를 보였다.

크기가 5~6cm 정도 되는 계란 모양의 키홀더 안에 액정 화면이 있어 스위치를 누르면 화면 속에서 알이 부화된다. 부화된 새끼는 약 24시간이 지나면 '베비치'가 된다. 이것을 잘 기르면 4~5일 만에 '타라고치', '마맷치' 등 6종류의 캐릭터가 있는 '어덜트(adult)고치'로 변신한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수수께끼의 캐릭터 '오야지치'가 되기도 했다. 일부 성질 급한 애들은 시간 세팅을 조작해서 성장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했는데 옷자란 식물처럼 맨날 부실고치가 될 뿐이었다.

## 다마고치와 경쟁하는 뽀뽀 애완동물



〈다마고치〉의 수입이 늦어지자 병아리 대신 뽀뽀 공룡이 신세대층의 사랑을 받게 됐다. 게임 파티의 〈헬로마미〉는 홍콩의 UI사가 삼성의 칩으로 만든 제품. 수명은 석 달이며 키우는 방법에 따라 7개의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다. 배가 고프다면서 호출한 뒤 밥을 먹지 않거나 쓸데없이 호출했을 때 주인이 예절교육을 하면 울상을 짓기도 한다. 사조 냉장의 〈드래고치〉는 사조 냉장이 일본의 완구업체인 나비스사와 공동 개발한 것. 키우는 시일이 한 달 가까이 걸린다. 〈헬로마미〉와 값, 기능은 비슷하다. 동아일보 이성주 기자

## 스티브 잡스 “애플 영광 재현” 야심



애플 컴퓨터가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스티브 잡스를 삼고초려 끝에 그룹의 임시회장으로 추대했다. 결벽 주의와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조직원으로 부적합하다며 85년 회사에서 몰아낸 지 12년만의 일이다. 현재 애플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97년 시장 점유율은 5.2%로 전년도에 비해 2.7% 하락했다. 96년에는 매출이 26%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8억 2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해결사 역할을 떠맡은 잡스는 취임과 동시에 실적회복의 의지를 과시하면서 매킨토시 호환기종을 생산하던 파워 컴퓨팅 인수를 발표했다. 이는 매킨토시 시스템 공개를 허용한 94년 말 방침을 뒤엎는 것. 94년 이전에 매킨토시는 호환기종이 없었다. 당시 혁명적이었던 아이콘과 마우스를 이용한 운영체제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고집에서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애플이 쇠락하면서 이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결국 시스템 공개를 선택하게 됐다. 그러나 결과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점유율 하락. 애플은 다시 앞으로의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던 비공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번 정책으로 인텔칩과 MS 윈도의 결합체인 이른바 윈텔제국에 맞서 애플과 공조체제를 펴오던 모토로라와 IBM이 애플과의 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해와 홀로서기가 불가피해졌다. 사운을 건 도박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조치가 애플이 개발 중인 차세대 운영체제 ‘랩소디’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타협을 모르는 외교집 스티브 잡스의 성격 때문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김승현 기자

## 다마고치는 벨을 두 번 울린다

“다마고치 누구야, 가지고 나와라” 옆 분단 영문이가 쉬는 시간에 다마고치를 무음으로 돌리는 걸 깜박했다 보다. 다마고치가 밤 달라고 뽀뽀대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자 웅성웅성하던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다마고치를 학교에 가지고 왔다가 걸리면 무조건 압수였다. 모두의 시선이 녀석에게 쏠렸다. “전자시켄데요.” 녀석의 태연한 거짓말에 모두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지만 이내 그 놀라움은 감탄으로 변했다. 하지만 난 보았다. 열심히 책상 밑에서 다마고치를 무음으로 돌리려는 녀석의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선생님은 잠시 영문이의 눈을 쏘아보다가 이내 칠판으로 시선을 돌리고 판서를 계속했다.

1997년 여름, 학교 앞 문방구에 걸려 있던 다마고치는 마치 열병과 같았다. 처음엔 한두 명이 가지고 있는가 싶더니 어느새 전교생이 허리춤에 다 차고 있었다. 모두들 조그만 액정을 들여다보며 가까이 녀석의 똥 셔를 자처했다. 밥 먹이고 똥 치우는 단순노동에 게임 이라곤 ‘참참참’뿐이었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살아있는 애완동물을 발견했다. 빠르게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아이들이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학교 앞에서 파는 300원짜리 병아리조차 엄마와 사생결단 단식투쟁을 벌여야 겨우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가. 텔레비전과

게임기가 그 빈자리를 차지했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주는 놀라움과 따뜻함까지 채워줄 순 없었다. 그때 등장한 다마고치는 말 그대로 사이버펄이었다. 조악한 그래픽이었지만 나의 절대적인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계 속 생명체는 묘하게 생명력이 넘쳤다. 녀석이 배가 고프아 풀이 죽어 있던 않을까, 지가 썩 똥 속에 파묻혀 피를 토하고 있던 않을까 걱정됐다. 이유 없는 반항으로 말을 안 들을 때면 따끔한 야단을 치며 선생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몰입감이 주는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보살피 주지 않으면 금방 뽀뽀어져버리는 특성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다마고치에 금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게임 중간에 흥미를 잃고 방치하면 다마고치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뭉툭하게 좋아하고 쉽게 흥미를 잃는 아이들의 장난감이기에 당연한 일이었지만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그럴듯한 핑계가 붙었다. 영화 〈타짜〉를 보면 노름꾼이 되고, 〈도둑들〉을 보면 도둑이 되는 나라기 때문에 이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게임 오버였다. 결국 학교에 다마고치 반입이 금지 되면서 다마고치 열풍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 萬物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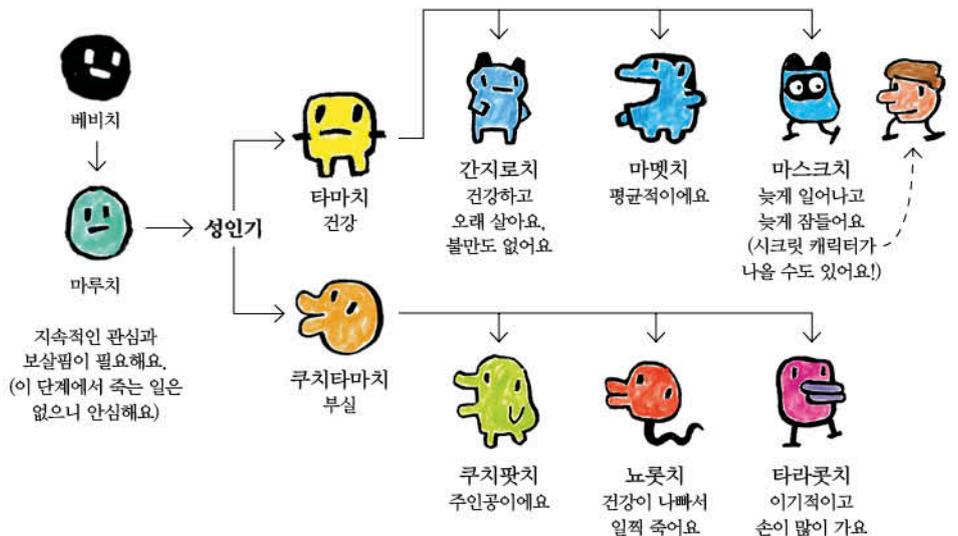
만물상회

### 진도개

전원기생 1년 53만 진도개

외국진도개 육산업 협동조합  
 지리지점부  
 의정부 판매장/진도군형 반출허가중  
 속 협 협동서/우수건 1층급 자건안  
**진도개 판매**  
 ● 가격 : 350,000원  
 진도 현지 적응견 전국배달/방구, 배구  
 성후 80원 (이체/현금/별도)  
 TEL : (035)145-9401  
 상단 : 김진환 011-중부동  
 ● 온라인구매 : 예금 : 김진환  
 - 서울신학 : 82107-1730802  
 - 계좌 : 114-71-00389-417

### 다마고치 성장 차트 공략집



# MAXIM 뽐뿌질

이모부, 백 원만...

## 젠하이저 헤드폰 모멘텀, 뽐뽐한 사운드에 스타일을 입다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브랜드 젠하이저에서 프리미엄 헤드폰 모멘텀(Momentum)을 출시했다. 모멘텀은 불필요한 장식을 빼 유행을 타지 않도록 디자인했으며, 헤어밴드와 이어패드에는 고급 천연가죽을 사용해 클래식한 매력을 더했다. 또한 사운드 왜곡이 적어서 원음 그대로 생생한 감상이 가능하다.

가격 50만 원대 문의 케이원에이브이(02-553-3161, [www.koneav.com](http://www.koneav.com))



## 당신의 스타일까지 챙겨주는 소니 바이오 E 시리즈

감각적인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갖춘 바이오 E 시리즈 노트북은 전원엔 상관없이 LCD 덮개를 여닫는 것만으로 절전 모드로 바뀐다. 또 잡음을 최소화해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영화나 음악을 즐기기에 좋다. 컬러와 성능에 따라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하니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유저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바이오 E 시리즈로 당신의 감각도 업그레이드해보자.

문의 소니코리아(1588-0911, [www.sony.co.kr/store](http://www.sony.co.kr/store))



## 로지텍, 물세척이 가능한 키보드 K310 출시

키보드 버튼 사이에 낀 먼지를 그대로 둔 채 찝찝한 마음으로 PC를 마주해야만 했던 결벽증 유저들에게 희소식을 전한다. 로지텍에서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워셔블 키보드 K310을 출시했다. 키보드 뒤쪽 하단에 배수구가 따로 있어 물을 쉽게 배출하니, 키보드에 커피를 쏟더라도 물로 행구면 다시 말끔해진다. 자주 씻으면 키보드 문자판이 지워질까 걱정이라고? 키보드 문자판을 UV 코팅해 물로 세척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뛰어난 내구성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갖춘 워셔블 키보드 K310, 컴퓨터를 하며 음료를 질질 흘리는 히드라 같은 당신에게 좋은 키보드다.

가격 49,900원 문의 로지텍코리아([www.logitech.co.kr](http://www.logitech.co.kr))

## 무선으로 즐기자,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A8

비앤오 플레이(B&O Play)가 명품 사운드를 전하는 스피커 베오플레이(BeoPlay) A8을 출시했다. 베오플레이 A8은 기존의 베오사운드가 제공하는 기능에 애플사의 에어플레이(AirPlay)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고, 국내 발매 예정인 아이폰 5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실내 공간에 놓인 위치에 따라 사운드 모드를 변환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매력적인 음질을 발산한다. 디자인과 사운드가 모두 명품인 베오플레이 A8, 이제 선 없이 고품질 음악을 즐겨보자.

문의 뱅앤올룹슨(02-518-1380)



## 에이수스

### ROG MATRIX HD 7970 GHz 에디션

2012년 온라인 PC 소품물 TOP 20개의 업체 중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에이수스(ASUS). ROG MATRIX HD 7970 GHz 에디션 2종의 그래픽카드를 출시하고 쉐기 박기에 들어간다. 이 제품은 현존하는 그래픽카드 중 가장 빠른 속도와 고해상도를 자랑하고 GPU 클럭 설정 및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 또 GPU, 비디오 메모리, 전압, 팬 스피드 조절이 가능해 프로 수준의 그래픽 성능을 기대하는 유저들에게 완벽한 짝이 될 것이다.

문의 STCOM

(02-702-5555, [www.stcom.co.kr](http://www.stcom.co.kr))



## 스마트폰과 호환 가능한

### 파나소닉 아이코닉 시리즈 헤드폰

모든 스마트폰에서 마이크 및 음악 재생이 가능한 헤드폰이 출시된다. 파나소닉 아이코닉 시리즈는 밀폐감이 좋은 이어패드와 대형 스피커 유닛을 구성해 현장에 있는 듯한 뽐뽐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또 귀를 감싸는 압력을 최소화해 강렬한 중저음과 날카로운 고음역의 사운드를 선보인다. 컬러는 블랙, 화이트, 레드, 퍼플, 브라운으로 다양하니 멋진 헤드폰으로 옮겨올 패션을 감각 있게 코디해보자.

문의 파나소닉([www.panasonic.co.kr](http://www.panasonic.co.kr))



# MOTOR OF THE MONTH

CREATING AMAZING



## LEXUS LF-CC

파리 모터쇼를 뜨겁게 달군 렉서스의 콘셉트카. 이거 몸면 헌팅은 끝났네.

BY 유승민 DESIGN 서윤정

IS의  
미리보기 버전



지난 10월 14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파리 모터쇼에서 렉서스는 스포츠 쿠페 콘셉트카인 LF-CC를 선보였다. LF-CC는 그냥 Lexus의 Future Concept Coupe란 뜻이다. 전면에 박힌 L자 로고 바탕색이 푸르딩딩한 게 보이냐? 하이브리드란 얘기다. LF-CC는 렉서스의 스포츠 세단 IS 시리즈를 염두에 둔 콘셉트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안그래

도 디자인 풀체인지로 예고했던 IS는 렉서스 중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 시리즈였기에 새 하이브리드 콘셉트 LF-CC가 IS의 예고편일 거란 스멜을 강하게 풍긴다. 그렇게만 되면 IS 시리즈에 2도어 쿠페도 채택되겠군. LF-CC의 디자인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바로 노출형 헤드램프. 3개의 LED 램프 겹쳐 투명 덮개가 없다. 파손이나 오염에 대한 대비책만

있다면 가히 혁명적인 디자인이다. 양산형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지? 응?

최근 렉서스가 새로운 패밀리룩으로 강하게 밀고 있는 저 입체형 그릴(스핀들 그릴이라 부르더라)은 실물이 훨씬 더 멋지다. 말이 필요한가? 쌀 것 같은 매력의 LF-CC를 영상으로 준비했다. 스마트폰 꺼내시고 QR 코드 스캔할 준비됐나? 

MAXIM  
시승기  
#20

# PEUGEOT RCZ

푸조에서 가장 비싼 차이자, 기계가 아닌 장인들이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든 수제 스포츠카!  
소량 한정 희소성 쥘는 RCZ 님이 MAXIM에 강림하셨다.  
에디터가 실제로 눈 앞에서 본 처음이자 마지막 RCZ.

BY 유승민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에디터 김희성 DESIGN 신속희



김희성 에디터  
의 팬들은  
여기로



### RCZ 제원표

배기량	1,598cc
최고 출력	156hp
변속기	자동 6단
바퀴 굴림	앞바퀴 굴림
제로백	7.5초
가격	5,545만 원



### 벤츠리보다 최소한

실용성, 고연비, 저렴한 가격. 수입차 브랜드 '푸조'의 이미지다. 하지만 합리성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강점은 한편으로 푸조의 발목을 잡은 것 또한 사실이다. 수입차를 과시의 도구로 삼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푸조가 성에 차지 않았다. 합리적인 것, 친환경스러운 것은 가아가 안 선다. 지구에게 좀 미안하더라도 화석연료를 드럼째 폭발시키면서 달려야 좀 간지가 선다. 차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가 후덜덜해야 남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안겨준 것 같아 좀 뿌듯하다.

자연히 수입차 시장은 벤츠, BMW처럼 럭셔리, 프리미엄 이미지 브랜드 대 푸조나 폭스바겐 같은 합리성과 실용성, 친환경 이미지의 브랜드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BMW는 5시리즈가 1시리즈보다 잘 팔리고, 푸조는 508보다 207이 주력 상품이다. 저가형 양산차 이미지를 탈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푸조는 200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콘셉트카 308RCZ를 상용화하기로 한다. 미래지향적 상상력만으로 그려내는 콘셉트카를 그대로 현실 세계에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깬 탄생 스토리다. 게다가 소수의 자동차 장인들이 투입되어 한정 생산하는 수제(手製) 생산방식을 채택했다. 애초부터 많이 팔기 위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모터쇼에서 봤던 '바로 그' 차를 갖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소장 가치가 폭발했다. 200대 한정 판매를 발표하지 48시간만에 구매 예약이 완료되어 버린 거다.

### 푸조다움을 잃지 않다

하지만 푸조는 RCZ를 역소리는 고가의 사치품으로 만들지도, 휘발유 블랙홀로 만들지도 않았다. 어차피 최소가치 덕에 '없어서 못 팔' 수제차라면 엄청난 성능의 슈퍼카로 만들어서 역대의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었을 거다. 세계 유수의 모터스포츠에서 정상을 정복해온 푸조에게 그만한 기술력은 있으니까. 하지만 푸조는 끝까지 '합리성과 친환경'이라는 기업 정신을 잃지 않았다. 푸조는 사치품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 테지만 RCZ는 그야말로 '생긴 대로' 달린다. 폭발적인 스타트, 최고 속도 237km/h, 부드러운 배기음까지도 뺏속까지 스포츠카다. 단 하나, 연비만 빼고 말이다. 12.8km/L의 공인 연비만 해도 스포츠카다운 숫자는 아닌데, 작정하고 예코 절개 물면 그 이상의 연비를 뽑을 수 있다. 순간 연비가 상당히 정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에도 좋다. 차를 더 길들이고, 익숙해지면서 연비 주행 노하우가 더 쌓이면 기아 모닝 급 연비도 가능할 듯.(모닝처럼 달린다면 말이지)

그렇게 푸조는 RCZ에 500마력짜리 괴물 엔진 대신 200마력 이하의 효율적인 심장을 엮고, 가격은 6,000만 원을 채 넘기지 않았다. 현대 제네시스보다 싼 가격이다. 그런데도 RCZ는 아랍 석유 부자들로 예약 리스트를 꽉 채운 머스트해브 쿠페가 되었다. 그들이 과시의 목적으로 겨우 6천 만원짜리 차를 샅을리는 없을 터, RCZ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독특한 최소가치를 만들어 낸 셈이다.

### 페라리보다 아름다운

앞모습은 푸조의 전형적인 패밀리룩을 하고 있어 RCZ가 푸조 일가임을 보여준다. 부가티 베이론 쌔쌔 먹을 뒤텔은 월드베스트 디자인의 진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더블 버블(Double-Bubble)'이라는 별명의 루프는 여자의 탕탕한 허벅지를 다소곳이 모은 듯한 굴곡을 보여준다. 루프에서부터 뒷유리로 이어지는 이 공기역학적 라인도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어떤 차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이다. 이 '더블 버블' 덕에 RCZ 뒷유리엔 와이퍼가 없다는 점도 좀 독특하지만... 와이퍼가 없다는 게 자랑은 아니니 패스. 콘셉트가 현실에 튀어나왔는데 그깟 와이퍼 좀 없을 수도 있지. 5년째 별의 별 자동차를 시승하면서 내 차인 척 빠져 봤지만 이 정도로 주목도가 높은 차는 없었다. 동네 남자들은 난생 처음 보는 샤크 그레이 빛깔 쿠페를 살피며 "몇 마력쯤 되겠네, 얼마쯤 하겠네"하며 넘겨짚기에 여념이 없고, MAXIM 근처 흥대 클럽에 놀러온 죽순이들은 환상적인 몸매의 RCZ에 쿡쿡이 벌렁거리며, 차와 어울리는 간지남이 내리지는 않을까 눈을 떼지 못한다.(그건 내가 미안해) RCZ에 얽힌 최소가치와 장인정신 따위를 알 턱이 없는 그들의 눈을 그토록 잡아 끄는 힘은 오로지 RCZ의 환상적인 디자인이다. RCZ의 실제 판매가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넘겨 짚어대는 가격의 평균치는 대략 1억 원 안팎이었다.

6천 짜리 1억으로 보이면  
4천은 그냥 버는 거야 이 사람!



## 포르쉐 안 부러운 드라이빙

배기량 1,600cc에 165마력, 실망스럽나? 제원표상의 숫자만 놓고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 웹상의 키보드 워리어들처럼 에디터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그래 그래, 얼굴 이쁘고 몸매 끝장나는데 성격 좋고 똑똑하기까지 바라면 욕심이지”라는 마음으로 좀 만나보니... 이 여자(?)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제원표 상의 수치는 너무 겸손했다. 실제로 몰아보았을 땐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막 튀어나가는 느낌. 도로에서 칼질 할 때 느껴지는 토크는 제원표 상의 24.5kg·m 이상이다. 이유는? RCZ의 최신 1.6 터보 기술인 직분사 THP엔진이 1,400rpm 정도의 낮은 회전수에서도 최대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RCZ와 흔히 비교되는 아우디 TT는 1,800rpm이나 되어야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신호에 걸렸을 때 정지선 맨 앞에 서있다면, 어김없이 나란히 선 차들에게 멋진 뒤태를 뉘놓고 구경할 수 있게끔 쭈욱 치고 나간다. 일부러 빨리 가려고 급가속을 하지 않아도 그렇단 얘기다. 물론 쪽 뺨은 고속도로에서 아우디 TT와 시합을 하면 초반 가속이 좋은 RCZ가 먼저 치고 나가다가 속력이 더 붙으면 애초부터 출력이 더 높은 211마력의 TT가 RCZ를 추월하겠지. 하지만 아우디 TT와 푸조 RCZ 두 놈 다 꼼꼼하게 타 본 에디터의 믿음만한 소견으로 보자면, 서울 도심에서 민첩한 발진으로 다른 차들을 뺄땀 제치며 우아한 꿈무늬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건 TT가 아닌 푸조 RCZ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찾아낸 오타:  
‘푸조’ RCZ를 자꾸 ‘포주’ RCZ라고  
써냈는데 이 선배 대체 뭐임?



손이 그러는 거지, 손이.  
손이 익숙한 글자를 기억하는 거야.



## 지프처럼 아날로그적인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자동차들은 별의별 전자제어 장치 투성이야. 수동이든 기계식이든 상관없을 것들 까지도 모두 전자식 제어를 채택했다. 이게 스마트 폰인지 자동차인지 헷갈릴 정도다.

그러다 급발진 나면 그냥 죽는겨



RCZ는 ‘스포츠허’답게 아주 기계적이다. 알아서 다 해주는 스마트한 전자 제어장치를 최대한 배제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위치한 클래식 바늘시계가 RCZ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핸들은 여자가 몰기엔 좀 힘들 정도로 묵직하다. 그리고 단단한 서스펜션이 노면의 질감을 있는 그대로 운전자의 몸에 전달한다. 뺨속까지 스포츠카다 이거지. 말랑말랑한 세단만 몰아본 운전자라면 노면의 느낌을 그대로 받는 단단함을 ‘덜컹거림’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고물 용달차를 탔을 때의 덜컹거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굳이 한글로 그 차이를 표현하자면 ‘딱딱함’이 아닌 ‘짱짱함’이나 ‘쫄쫄함’ 정도? ‘아날로그적’이라고 레트로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변속 레버 옆에 전자식 버튼이 하나 달려있는데 트렁크 여는 버튼인 줄 알고 눌렀더니 웬 허며 숨겨둔 뒷날개가 올라온다. 고속도로에서 대충 120km/h를 넘어섰을 때 리어 스포일러를 펼치니 차체가 더욱 땅에 밀착하듯 안정되며 200km/h를 향해 튀어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100km/h에서 가속페달을 밟아대자 200km/h에 육박하는데 채 5초가 걸리지 않는다. 185km/h가 훌쩍 넘자 무서워서 페달에서 발을 떼고 말았다. 쫄았거든.

## 상승이 차



WORLD CAR OF THE YEAR  
WORLD CAR AWARDS

### 2012 중동 지역 COUPE OF THE YEAR

2012년 4월 12일, 두바이에 있는 에미레이트 타워 호텔에서 개최된 ‘올해의 자동차’ 행사에서 RCZ가 쿠페 부문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었다. 이 행사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등 중동지역 총 11개국 자동차 전문 기자들의 심사로 ‘올해의 자동차’를 선정한다. RCZ는 중동지역에서 출시된 지 8개월 만에 쿠페 부문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중동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설마 석유 부자들이 연비 때문에 샀겠어?

### 25th International Automobile Festival The Most Beautiful Car of the Year

200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5회 국제 자동차 페스티벌에서 RCZ는 ‘가장 아름다운 차량’으로 뽑혀 최고의 디자인임을 입증했다. 여러 부분의 상들 중 디자인 상을 수상한 게 아니다. 이 대회는 1986년부터 시작된 디자인 페스티벌로, 한 해 동안 소개된 콘셉트카가 모여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디자인 축제다. 프랑스에서 프랑스 차인 RCZ 밀어준 거 아니냐고? 이 대회의 ‘가장 아름다운 차’ 상은 전세계 자동차 상 중 유일하게 대중의 참여만으로도 선정되는 상이라는 사실. 25회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투표인이 참여했는데, 푸조 RCZ가 BMW Z4, 인피니티 G37 카브리올레,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쿠페 등을 제치고 33%의 득표로 영예를 안았다.

### 뉴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 우승

독일 뉴르부르크링 24시는 프랑스 르망 24시, 벨기에 SPA 24시와 더불어 세계 3대 내구레이스 경기의 하나다. 내구레이스가 뭐냐고? 24시간동안 쉬지 않고 서킷을 달리며, 차의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겨루는 레이스다. 중국산 짝퉁 자동차의 300마력 스포츠카와 포르쉐가 갈을 수 없듯 명품을 규정 짓는 건 마력, 토크, 배기량 따위의 숫자가 아니다. 내구성과 기계적인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 대회 출전은 꿈도 꿀 수 없다.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개최된 올해 대회에도 200여 대의 차량이 참여했고, 25만 명이 넘는 관객이 경기를 지켜봤다. 그리고 BMW, 아우디 등 ‘명차’를 표방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RCZ는 우승을 차지했다. 두 대씩 출전했는데 3위도 RCZ였다지 아냐?

### 영국 BBC 방송의 <탑기어> 선정 올해의 쿠페

이런 자질한 것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만 줄 일게. 종이가 없네.



# MOTOR NEWS

##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출시

마세라티가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를 국내에 출시했다. 최신 4.7리터 V8 엔진과 함께 '마찰 감소 프로그램' 기술을 적용해 엔진 내부 마찰을 최소화 하고 성능을 높였다. 최고 출력 460마력, 최대 토크 53kg·m를 발휘한다.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는 4인승 그랜드투어러의 명성에 맞게 인체공학적인 넉넉한 공간과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시트 디자인에 레이싱 스타일을 도입해 고속 주행 시에도 탑승자를 편안하게 감싸준다. 복합 연비는 6.7km/L. 가격 2억 4,300만 원 문의 마세라티([www.maserati.co.kr](http://www.maserati.co.kr))



## 크라이슬러 300C SRT8 출시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프리미엄 세단 300C SRT8을 출시했다. 크라이슬러 300C SRT8은 최고 472마력의 압도적인 파워와 최대 64.4kg·m토크의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신형 6.4L HEMI®V8 엔진을 탑재했다. 제로백은 4초대다. 크라이슬러 300C SRT8은 프리미엄 세단의 안락함과 기존의 고급스러운 품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을 높여 고성능 레이싱 기술까지 더욱 강화한 모델. 혹시 이동을 고속도로에서 마주치면 쫓아갈 생각은 말자. 애매한 스포츠 카들은 발리기 마련이니. 가격 8,000만 원 문의 크라이슬러 코리아([www.chrysler.co.kr](http://www.chrysler.co.kr))



## 코란도C 광고 모델 씨스타, C-STYLE의 완성

쌍용자동차가 코란도C 모델로 씨스타를 발탁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코란도C는 기존 SUV가 지닌 남성적 이미지를 탈피해 코란도C만의 Young & Stylish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이돌 씨스타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중이다. 코란도C는 e-XDi200 엔진을 탑재하고 36.7kg·m의 최대 토크와 13.1km/L의 연비를 자랑한다. 쌍용자동차는 매주 월요일 추첨을 거쳐 고급 헤드폰,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쌍용자동차([www.smotor.com](http://www.smotor.com))



## BMW의 NEW 1시리즈 5도어 해치백

BMW의 NEW 1시리즈 5도어 해치백을 소개한다. 동급 유일의 후륜구동 방식인 BMW 뉴 1시리즈는 강력한 주행 성능뿐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며, 향상된 승차감과 넉넉한 공간도 제공한다. 국내에 출시될 NEW 120d는 업그레이드된 2.0L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184마력의 힘을 자랑한다. 연비는 22km/L로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세계 최초로 적용한 8단 자동 변속기와 오토 스타트-스톱 시스템을 갖춰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문의 BMW 코리아([www.bmw.co.kr](http://www.bmw.co.kr))



## MINI, 프리미엄 스포츠 쿠페 페이스맨 출시

MINI에서 2013년을 겨냥한 프리미엄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페이스맨을 선보인다. 2개의 도어와 커다란 뒷문, 파워 넘치는 디자인에, 6단 자동 기어를 옵션으로 장착, 최대 184마력의 힘을 자랑한다. 이번 모델은 MINI 컨트리맨에 이어 사륜구동 옵션을 제공하는 MINI의 두 번째 모델이다. MINI 페이스맨의 가장 큰 특징은 넉넉한 실내공간이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30L에서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080L로 확장된다. MINI 차량은 좁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이젠 MINI가 이름을 BIG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문의 MINI([www.mini.co.kr](http://www.mini.co.kr))



### 재규어 스포츠카 F-TYPE

재규어 F-TYPE이 2012 파리 모터쇼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 1,597kg에 달하는 초경량화를 실현했고, 두 개의 하트 라인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로 공기역학에 초점을 맞춰 설계했다. 엔진 라인업은 V6 3.0L 슈퍼차저로 각각 340마력과 380마력 두 가지와 495마력에 달하는 V8 5.0L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했다. 이 외에도 리어 스포일러는 60km/h 이상에서 솟아오르고 40km/h 이하가 되면 내려가는 게 특징! 캔버스 탑은 12초 만에 언제든 지 달 수 있다. 재규어 스포츠카 라인업의 결정체가 될 F-TYPE! 2013년 국내에 출시 예정이니 기대해보자.

가격 1억 600만 원(V6 기본형), 1억 4,400만 원(V8S)

문의 재규어 코리아([www.jaguarukorea.co.kr](http://www.jaguarukorea.co.kr))



### 독일이 만든 한국 차? K3 순항 중!

기아차의 K3가 출시 후 무려 1만 2,000대가 예약 판매될 정도로 국내 준중형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K3는 1.6 GDI 엔진을 탑재했으며 최고 출력 140마력, 17.0kg·m의 최대 토크를 자랑한다. 게다가 연비 항상 노력으로 16.0km/L의 고연비를 구현한다. 이 외에도 현재 K3 홈페이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K3의 Exterior & Interior를 선택하고 SNS나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푸짐하고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내·외부 흠집을 게 하나 없는 K3! 이벤트에 응모하고 선물을 받자.

문의 기아자동차([k3.kia.co.kr](http://k3.kia.co.kr))



##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 슬라카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한, 130년 전통의 명품, 슬라카드 열 차단 필름이다.

▶ **응모 기간:** 2012. 10. 22 ~ 2012. 11. 18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틴팅 시공 (전면 시공, 측·후면 제외)

###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븐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걸들면 완전 좋고!

###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mailto: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 (편집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MOTOR  
EVENT



## 제19회 MAXIM 무료 틴팅 당첨 독자는?

군대 때부터 맥심을 성서처럼 여기며 살아온 애독자오, 맥심을 차량에도 비치해 이동 중 심심할 때마다 보고 있다고, 그런데 최근 본인의 차가 업그레이드됐소. 드디어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바꾸었다오! 역시 여자차는 외제가 좋다고 하지 않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선택을 제대로 못했구려. 그래서 틴팅을 부탁하오! 맥심 애독자로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 그리고 김희성 에디터 남친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오? 우리에겐 너무나도 재앙이오,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오. 언젠가 만나면 싸인도 부탁하겠소. p.s 나 맨안블랙 아니오. ㅠ



슬라카드 이벤트 당첨자 틴팅 후기 보기

제대 후에도 맥심을 애독하신다니 감사하오. 그런데 "여자차 외제가 좋다"는 말은 무슨 어불성설인지 모르겠소. 방금 전까지 (국산) 김희성 에디터의 연애는 재앙이라고 해놓고 말이오. 이 깽쟁이 같으니라고. 하지만 당신의 '맨안블랙'적인 패션 감각과 간지러 줄줄 흐르는 차, 그리고 차 안에서조차 맥심을 즐겨 읽는 성품 등을 높이 사 이렇게 당첨을 시켜드리는 바오. 그런데 토미 리 존스는 MIB에서 아예 은퇴한거요?

# STYLE OF THE MONTH

## 게으름에 반하다

베짱이들의 필수품, 로퍼.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ASSISTANT 박종원 FILM 최성준  
 COOPERATIONS 아이루이스(080-4409-7569)  
 로크(1661-2880) 키사(02-2143-7368)  
 호킨스(02-587-7880) 소다(02-546-7764)  
 헤리티지(02-530-7145)

구두를 신는  
 그림자의  
 몸부림



### 남자의, 남자에 의한, 남자를 위한 신발

로퍼는 원래 게으름뱅이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끈을 묶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베짱이를 위해 끈을 없앤 슬림한 스타일의 신발을 로퍼라 부른다. 로퍼는 바지를 롤업해서 맨발에 신을 때 그 간지가 폭발하는데, 이 역시도 양말을 신기 귀찮아한 게으름뱅이의 '지저분한 성향이 마침 보기 좋게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았을 뿐이다. 젤장, 거지 같지만 멋있잖아!

백조가 새겨진 로퍼 아이루이스 가격 24만 9천원

영국 스트리트 패션의 단골손님,  
남색 스웨이드 워킹  
로퍼 328,000원

를 업된 면바지와  
찰떡궁합인 갈색 로퍼  
키사 238,000원

정장에 잘 어울리는  
검정 페니 로퍼  
헤리티지 375,000원

〈발리에서 생긴 일〉  
조인성이 떠오르는 스니커즈  
소다 가격 미정

청바지에 매치해도  
손색없는 흰색 스니커즈  
호킨스 89,000원

# 모(毛)난 놈 전성시대: 탈모 예방 모근 강화 제품들

털갈이의 계절이라고 해서 머리털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BY 조용재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최별하 DESIGN 전은경  
COOPERATIONS 벨비타(02-3014-2997), 바디샵(02-759-0722),  
아모레퍼시픽(02-3406-2235), 오리진스(02-3440-2656)



초절정  
미녀가  
해주는  
삼푸실



### 1. 러 자양윤모 모근진액 에센스

(150ml/28,000원)

땃기머리와 더불어 국산 탈모 샴푸계의 양대 산맥을 구축하고 있는 샴푸계의 스테디 셀러. 샴푸 후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상태에서 두건을 열고 원액이 나오는 등근 팁 부분으로 지그시 두피를 누르며 마사지를 한다. 혈액순환에 좋은 백자인과 염증 치료에 사용하는 당약이 두피를 청결하게 만들어 모근뿐 아니라 기분까지 든든하게 한다.

### 2. 더 바다샵 레인포레스트 밸런스 컨디셔너

(250ml/17,500원)

지성 모발을 위한 두피 밸런스 컨디셔너 제품으로, 연약한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해준다. 샴푸 후에 젖어 있는 모발에 발라 마사지해 비듬이나 잔여 노폐물을 씻어낸다. 호불호가 확연하게 갈리는 강렬한 코코넛 향과 갈릭 디핑 소스 같은 질감이 조금 어색하지만, 유분이 적어 사용 후의 느낌이 다른 제품군보다 가벼운 편이라 부담이 없다.

### 3. 오리진스 클리어 헤드 민트 샴푸

(250ml/20,000원 대)

천연 재료만 고집하는 외길 인생 오리진스. 명성답게 향긋한 세 종류의 천연 민트를 사용해 자칫 눈에 들어가면 눈이 뻘칠 것 같은 스피어민트 껌 향을 배제했다. 거품을 냈을 때 머리에 맨소레담을 처바른 것 같은 타 제품군과 다른 부드러운 상쾌함이 두피를 조여 머리칼을 팍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다.

### 4. 멜비타 탈모 방지 샴푸

(200ml/30,000원)

그만 처먹고 피부에 양보하라는 모 브랜드의 카피 처럼 꿀 내음 가득한 달콤한 향이 인상적인 샴푸. 첫 향이 그다지 달갑지 않아 싸구려 보디 클렌저를 쓰는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머리를 감고 난 뒤에는 고급스러운 머플 향이 느껴진다. 두피를 자극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지 않아 평소 두피에 염증, 뾰루지가 자주 나는 연약한 두피에 추천한다.

## 탈모 방지용 샴푸를 고르는 팁

있을 때 잘하라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1. 계면활성제 유무를 확인하라**  
석유계나 알코올계의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닿으면 좋을 리가 없다. 살균력은 좋으나 그만큼 두피가 상하게 마련. 기생충 잡는다고 그러목손 마실 필요는 없잖아?

**2. 페퍼민트 성분이라고 다 OK가 아니다**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페퍼민트 성분은 모발을 팍 잡아주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멘톨이 지나치게 들어 있는 샴푸는 좋지 않다. 두피가 민감한 사람이라면 피할 것.

**3. PH가 중성인 샴푸를 골라라**

일반적으로 두피의 PH는 6~7이다. 탈모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자극이 적은 중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머리 카락이 많아지는 남성형 탈모라면 특히 주의할 것.



# 뮤직 페스티벌에서 먹어주는 스타일

지난 10월 5일,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에 갔더니 음악에 취해 노니는 암수 서로 정답구나. 그곳에서 만난 선남선녀들이 주목 받는 페스티벌 룩을 선보인다!

BY 손애나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용정

**김현진(24세, 학생)**

좋아하는 DJ:

인사이드 코어

자주 가는 클럽:

홍대 앤서



**BEST ITEM:**  
화이트  
스키니 데님

**박은혜(27세, 회사원)**

자주 가는 클럽: 홍대 코쿤

자주 가는 이유: 음악이 밝아서 좋다.



**POINT:**  
타이트한 화이트 탑

**POINT:**  
빨간 비니



**한지수(22세, 학생)**

좋아하는 DJ: 카즈 제임스  
페스티벌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일: 송중기처럼 생각하고  
잘 노는 남자



**POINT:**  
핫팬츠! 만세!

**POINT:**  
프린트가 화려한 캡 모자

**조은진(23세, 학생)**

자주 가는 클럽: 강남 옥타곤

자주 가는 이유: 분위기가 내 취향이다.

**MAXIM'S TIP:** 모자는 쓰되 예쁜 얼굴은 가리지 말자. 안 예쁜 얼굴이면... 스키마스크를 씌워야하나?



**림지(27세, DJ)**

자주 가는 클럽: 홍대 앤서, 맨션, 에덴

자주 가는 이유: 거기에서 내 공연이 있다.



**POINT:**  
예쁜 다리를 강조  
하는 미니드레스

**송다혜(24세, 학생), 김민욱(24세, 학생)**

사귄 기간: 두 달

좋아하는 DJ: 데이비드 게타

**MAXIM'S TIP:** 커플 룩의 생명은 같맞춤. 하지만 지나치면 안 하느니라 못하다.



**POINT:**  
블랙&레오파드  
커플룩

**최인영(22세, 학생)**

좋아하는 DJ: 데이비드 게타

**MAXIM'S TIP:** 블랙 미니드레스는 멀리서도 시선을 잡아끈다.

에디터가  
선정한 일렉  
음악 BEST 3



POINT:  
DSLR 카메라

POINT:  
공포를 유발하는  
페이스 메이크업



**류환희(25세, 학생)**  
좋아하는 DJ: 반달 록  
페스티벌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일:  
한마디로 기가 막힌 여자  
MAXIM'S TIP: 가을 페스티벌에  
반바지는 춤다. 종아리 털도 징그럽  
다. 좋은 말 할 때 가려라.

POINT:  
키 커 보이는  
모히칸 헤어



**김민규(24세, 파티플래너)**  
좋아하는 DJ: 데이비드 게타  
자주 가는 클럽: 홍대 앤써

POINT:  
살짝 내린  
꾸러기 앞머리



**박중웅(22세, 학생)**  
좋아하는 DJ: 인사이드 코어  
자주 가는 클럽: 홍대 앤써  
MAXIM'S TIP: DSLR 카메라를 들면  
없는 놈도 뭔가 있어 보인다.

**강요한(23세, 학생)**  
좋아하는 DJ: 셋다마우스  
페스티벌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일: 277일된 내 여자친구

**문승근(24세, 학생)**  
좋아하는 DJ: 셋다마우스  
MAXIM'S TIP: 주목받고 싶은가?  
본인보다 키가 작은 친구랑 함께 다니자.

**박희권(25세, 학생)**  
페스티벌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일:  
핑크 록이 잘 어울리는 여자  
자주 가는 클럽: 부산 믹스  
MAXIM'S TIP: 호빗은 글이 있는  
부츠를 활용하여 승천하라.

POINT:  
호빗 친구



POINT:  
통굽 부츠



POINT:  
물미역?

**박남희(24세, 파티플래너)**  
좋아하는 DJ: 립지  
자주 가는 클럽: 강남 일대  
의 모든 클럽  
MAXIM'S TIP: 예수님st  
는 시대를 초월한다.



POINT:  
뽀뽀 머리

**김동준(29세, 쇼핑몰 운영)**  
자주 가는 클럽: 홍대 앤써  
자주 가는 이유: 옛정 때문에 자주 간다.  
MAXIM'S TIP: 양 갈래 헤어에서 가열  
차게 불어오는 간지폭풍이 느껴지나?



# STYLE NEWS

## 빈폴 아웃도어와 함께하는 '수수커플' 영상 공개

멋진 도시 생활을 추구하는 도시남녀를 위한 브랜드 빈폴 아웃도어는 기능성 소재를 찾는 활동적인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10월 26일 XTM <스타 앤 더 시티(Star N the City)>에서 방영되는 배우 김수현과 가수 수지의 <윈터 러브 스토리>를 통해 빈폴 아웃도어 의류가 공개될 예정이다. 그건 둘째치고 수지 옆에 딱 붙은 저 질생긴 새끼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아 혈액 순환엔 좋겠지, 젠장. 우린 아마 올라올에 김수현처럼 옷을 입어도 수지 같은 여자친구가 안 생길 거야.

문의 빈폴 아웃도어([www.beanpole.com/outdoor](http://www.beanpole.com/outdoor))



BAND OF PLAYERS

## 밴드 오브 플레이어스 가방으로 가을 감성 코드 완성!

세련된 캔버스 백으로 훈남 스타일을 완성하라. 수입 잡화 셀렉트 숍 밴드 오브 플레이어스(BAND OF PLAYERS)에서 클래식한 매력의 캔버스 백을 선보인다. 천연 가죽과 캔버스 소재로 이루어진 이 가방은 남녀 노소 불문하고 그 어떤 코드에도 잘 매치되는 아이템이다. 또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색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밴드 오브 플레이어스의 클래식 캔버스 백은 온라인 직영몰뿐 아니라 신사동 가로수길, 코엑스, 명동 눈스퀘어, 중동 유폴렉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밴드 오브 플레이어스([www.bandofplayers.com](http://www.bandofplayers.com))



## 마운틴 하드웨어, 뉴 애플루트 제로 파카 출시

마운틴 하드웨어는 해발고도 8,000m 이상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성을 갖춘 뉴 애플루트 제로 파카를 출시했다. 마운틴 하드웨어에서 개발한 재킷 라인업 중 최상급의 프리미엄 구스 다운 파카다. 마운틴 하드웨어의 살아 숨 쉬는 방투습 기술 소재인 드라이 큐 엘리트를 적용해 즉각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입는 순간 최고의 쾌적함을 선사한다. 벌써부터 등골 브레이커들이 냄새 맡고 주시하고 있으니 어머니들 허리 조심!

문의 마운틴 하드웨어

([kr.mountainhardware.com](http://kr.mountainhardware.com))



## 남자의 자신감, CK 언더웨어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가장 선호하는 팬티는, 멋스러운 밴드로 시선을 붙잡는 타이트한 사각 드로즈다. 바지 허리선 위로 팬티 로고를 보여주기에 역시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가 최고! 새로 출시된 CK 언더웨어 라인에는 그레이 로고 밴드와 다양한 색상 및 질감을 선보여 현대적인 남성미를 풍긴다. 물론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만의 섹시한 비주얼도 놓치지 않는다. 남자의 자신감은 존스뿐 아니라 녀석의 안식처인 팬티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문의 CK코리아([www.ck-korea.com](http://www.ck-korea.com))



## 지이크에서 제안하는 BICYCLE LOOK

지이크에서 젊은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세련된 바이시클 룩(BICYCLE LOOK)을 제안한다. 다양한 패턴을 가미한 제품과 바이크웨어의 디테일을 특징으로 하는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지이크와 만나 새로운 느낌을 연출했다. 니트와 카디건, 재킷 등 이번 F/W 시즌 지이크의 바이시클 룩은 자전거를 탈 때는 물론 일상생활 속 패션으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과연 자전거 라이딩 패션의 대명사 쫄쫄이를 이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지이크([sieg.sw.co.kr](http://sieg.sw.co.kr))

# WATCH NEWS

## 따뜻한 감성을 잡다. 헬다이버 SB2C-2001 BK/RG

쌀쌀해지는 날씨에는 차가운 스틸보다 따뜻한 가죽을 찾기 마련. 헬다이버에서는 스웨이드 가죽 스타일의 고급 스트랩을 채택하고 세련된 블랙&로즈 골드로 디자인을 마무리한 신모델 SB2C-2001 BK/RG을 선보인다. 전체적으로 따뜻함이 느껴지는 색상에 블루 컬러 코팅 된 돔글라스로 시크한 감성을 더했다. 특히 9시 방향 측면에 헬다이버 각인을 넣어 럭셔리함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가죽의 따뜻한 감성과 세련미를 더했으니 어찌 손과 눈이 가지 않으리요?!

가격 189,000원

문의 에이맨인터내셔널(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http://www.helldiverwatches.com))



## 베베로데이에는

### 잉거솔 불런(Bull Run) IN1809BK

1892년 미국에서 설립해 올해 120주년을 맞은 잉거솔 워치 컴퍼니(INGERSOLL WATCH COMPANY)에서 새 제품 불런(Bull Run) IN1809BK 내놓았다. 초코 브라운 색의 가죽 스트랩을 채택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크로노그래프를 문자판에 배치해 유니크한 멋을 실었다. 특히 시계 오른쪽의 달린 용두가 기존 용두보다 커지면서 디자인에 세련된 포인트를 준다. 11월 11일, 식상한 베베로데이 선물 대신 달콤한 초코 브라운 색상의 불런 워치로 여심을 공략해 보자.

문의 거노 코퍼레이션

(02-3397-7100, [www.eurotime.co.kr](http://www.eurotime.co.kr))



## 유쾌한 위치를 찾는다면

### 오디엠(Odm)의 스테거(STAGGER) 주목

미니멀 아트와 다이내믹한 기능을 겸비한 워치 브랜드 오디엠(Odm)에서 스테거 컬렉션을 출시한다. 스테거 컬렉션은 지그재그 모양의 핸드와 다양한 디자인의 다이얼을 넣어 독특한 재미를 추구한 제품. 언밸런스하게 디자인된 문자판뿐 아니라 볼트 모양에서 모티브를 얻은 시침과 분침으로 워치 곳곳에서 디자인적인 유쾌함을 느끼게 한다. 스트랩 또한 새로운 형식으로 디자인한 버터플라이식 버클을 채택했으며 길이 조절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전국 모멘츠 매장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문의 신우 M&D(02-326-3470)



## 자스페로, 콰트로(QUATTRO) 모델로 정장 룩의 새로운 제안

MADE IN SWISS, 자스페로에서 정장을 차려 입고 외출할 일이 많은 가을을 맞아 콰트로 모델을 제안한다. 1/100mm의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히 맞춘 역회전 방지 베젤을 서클과 12각의 모양으로 디테일하게 커팅한 디자인이 고급스러움과 중후함을 느끼게 한다. 스크류 방식의 교차 무늬가 들어간 용두와 비탄사 코팅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해 세밀한 고급스러움까지 집어냈다. 콰트로 멀티 크로노 무브를 탑재했으니 성능은 이미 기본.

가격 59만 원

문의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http://www.zaspero.co.kr))



## ALBA Premier Chronograph AU5019X로 프리미어 모델로 환승하라!

고급 패션 워치의 대명사 ALBA에서 프리미어 모델에 크로노그래프 더해 품격을 한번 더 끌어올린 AU5019X 모델을 출시했다. 케이스와 일체감을 주는 곡선의 크로노그래프 버튼과 음각 처리한 베젤의 옆면을 세련되게 디자인했다. 또 원형의 솔 패턴을 더한 문자판에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가공한 핸드로 프리미어 라인이 지녀야 할 럭셔리함을 깨달음이 확실했다. 블랙 컬러 스트랩과 문자판으로 시크한 감성이 돋보여 정장에 완벽하게 매칭하여 착용할 수 있다. ALBA의 프리미어 모델 AU5019X로 명품 시계의 세계로 진입해 보자.

가격 49만 원

문의 삼정시계(02-511-3182, [www.albawatch.co.kr](http://www.albawatch.co.kr))

## 루미녹스의

### 1148 리미티드 에디션

루미녹스에서 IRL(Indy Racing League)의 챔피언 드라이버 토니 카난(Tony Kanaan)과 공동 작업으로 만든 1148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스위스에서 생산한 크로노그래프를 블랙 세라믹 재질의 바젤로 장식하고 블랙 컬러의 전체 색상에 토니 카난의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과 옐로 색상을 가미해 포인트를 실었다. 스테인리스스틸에 블랙 PVD 코팅을 사용해 강인함과 하이테크 기술의 집약체인 Indycar의 본성을 담았다. 토니 카난이 샌드위치 케이스 디자인부터 작은 디테일까지 모든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999개의 한정 수량이니 구매를 서두르자.

가격 159만 원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milimwatch.co.kr](http://www.milimwatch.co.kr))

# 독고다이 강용석

잡지계의 론 울프 MAXIM과 정치계의 론 울프 강용석의 만남.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WORD 유승민 FILM 최성준  
HAIR&MAKEUP 이현정 DESIGN 서윤정 ASSISTANT 박수현, 최동희, 김화현

**MAXIM이 흥대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지역 주민과 지역 대표로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다. 그때 받은 명함이 굉장히 특이했다.**

그 명함 몇 달 쓰지도 않았는데.(웃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명함으로 바꿨다.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겪었다. 1년 사이에 김영삼 대통령 이후 최초의 한나라당 제명, <개그콘서트> 최효종 고소, <화성인 바이러스> 출연, <슈퍼스타K 4> 지원, 총선 낙방, 이제는 드디어 고정 프로그램 MC까지 됐다. 결국 전화위복이나 새옹지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 어떤 태도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모든 사건은 사실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한다.

**'고소고발 집착남', '내가 제일 고소해', '고소미' 같은 별명을 보아 하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성격 같다. 이런 성격은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소는 당시 집중적으로 했고 지금은 안 한다. 하지만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지적한 문제들이 대선 정국에 와서 재조명받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정의감이 투철한 건가 아니면 고소 이외의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정의롭거나 하진 않다. 변호사 다 보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아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더 그랬지 싶다.

**조크가 통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조크란 인간 관계의 윤활유 같은 것 아니겠나. 우리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될 수록 조크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아직 자신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정치라는 게 전 국민이 같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정치인이라고 말하기 조금 썩스러운 상황이라서, 지금

정치인이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다. 심정적으로나 지향적으로는 당연히 정치가 궁극적이다. 그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영국의 처칠 수상과 마거릿 대처를 꼽는다.

**병역 비리 스토커라는 별명도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지도자는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면 자기도 국가를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기 싫다는 의미 아닐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다.

**'예능 늑둥이'라고 해놓고는 시사 프로그램만 한다.**

그건 그냥 웃자고 한 말이다. 방송 출연할 때 예능으로는 가지 말자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정치로 다시 돌아갔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갈 생각인가?**

그럼. 안 그러면 방송인 하라는 건가?(웃음) <슈스케 4>에 나간 뒤 온갖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왔다. 주로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모두 안 나간다고 했다.

**그럼 방송은 얼마나 할 생각인가?**

법적으로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안 좋아서 잘리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것이다.

**그간 뭔가 꼬일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기복이 심했던 것 같은데 일관되게 상승한 것은 당신의 인지도다. 느껴지나?**

어딜 가든 사인해달라, 사진 찍자, 팬이다, 이런 사람이 스무 명 중에 한 명은 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7~8%는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굉장히 행복한 일 중 하나가 안티가 많이 줄어

든 거다. 방송을 하나씩 할수록 날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방송이 참 좋구나 싶다.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해운대 자릿세 편에는 직접 취재하다가 얻어맞기까지 했다.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들어 좋은 인상을 줬는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없나.**

금반지의 금 함량을 속이는 일이 많아서 함량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금값이 너무 비싸서 순금 반지를 사지 못하고 14K 반지만 4개 사서 테스트 했다. 순금으로 실험을 해보지 못해 지금도 아쉽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MC를 맡았다. tvN의 <강용석의 고소한 19>는 무슨 내용인가?**

기존에 비슷한 포맷조차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사 랭킹 쇼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19개의 차트 또는 랭킹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할 예정이다. 재미는 물론 정보적 가치도 충분하다.

**프로그램에 당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나?**

이름을 달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작진도 내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사명감을 느끼고 열심히 준비하게 된다. 작가가 써준 걸 맹무새처럼 읽기보다는 주제 선정부터 접근 방식까지 작가와 피디와 계속 상의하기로 했다. 첫회는 대선 주자 3인을 다룬다. 주제는 내가 제시했는데, 대선 주자들과 관련해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걸 더 집중적으로 찾아보자"고 제보(?)도 해서 내용에 충실성을 더했다.

**이번에는 피소의 아이콘이 되는 거 아닌가?**

MN 채널 최초로 고소당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시사 프로그램은 고소도 좀 당해야 크지 않겠나.

**대통령이 된다면, 아니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 생명을 걸고 꼭 하고 싶은 일은?**

동일.

**마지막으로 남자란 뭐라고 생각하나?**

남자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그게 바로 나 강용석이다. 



“  
남자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

### 강용석

1969년 서울 출생  
1988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199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2년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년 이명박 후보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장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09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0년 7월 중앙일보, 아나운서 성희룡 발언 보도  
2010년 7월 아나운서 협회에 집단 모욕죄로 피소  
2010년 9월 한나라당, 만장 일치로 강용석 제명  
2011년 10월 <개그콘서트> 최효종 집단 모욕죄로 고소  
2012년 1월 <화성인 바이러스>에 고소 집착남으로 출연  
2012년 2월 무소속으로 19대 총선 출마  
2012년 5월 낙방  
2012년 8월 슈퍼스타K 4 도전  
2012년 8월 또 낙방  
2012년 11월 MAXIM... 표지모델



서훈 지미크  
재킷 시리즈  
신발 라코스테  
시계 타이멕스

COOPERATIONS 지미크(02-3274-5314) 카스탈렐로루(1588-7667) 라코스테(1588-9619) 시리즈(1588-7667) 타이멕스(www.timex.com) 한시트(02-790-1382)

미공개  
짜장면 인터뷰





민소매 티 예뻐  
인더웨어 사발  
구두 슈즈원

# lady Killer gavy NJ

가비엔제이가 새 멤버와 함께  
<LADY KILLER>라는 섹시한 이름의  
6집 정규 앨범을 들고 2년 만에  
MAXIM의 문을 다시 두드렸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ASSISTANTS 박종원 최동희 박수현  
FILM 최성준 HAIR 오지현 MAKE UP 이현정

COOPERATIONS 잇츠닷액세서리즈([www.itsdotacc.com](http://www.itsdotacc.com))  
슈즈원(02-3443-1703) 캘빈클라인(02-6911-0831) 예세(02-3444-7712)  
왓아이원트(070-7778-5923) 록시(02-546-7764) 비토이(010-3247-5019)  
도니체티(02-546-7764) 버커루(02-514-9006) 퀵실버(02-546-7764)  
반스(02-3484-9296) 샤펀(02-3485-6000)





MAXIM과는 2년 만에 다시 만났다. 시현 씨는 미모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 같다.

시현: 예전 언니들도 한미모 했다. 새로 온 제니와 건지의 나이가 어려 평균연령이 26.8세에서 22.6세로 대폭(?) 낮아진 게 강점이다. 외모는 물론이고 노래 스타일까지 젊어진 것 같지 않나?

요즘 걸그룹과 비교해도 나이에서 꼴릴 게 없다.

댄스나 다른 장르에 도전해볼 생각은 없는가?

건지: 이번 앨범에서 많이 밝아진 음악에 반감을 품는 팬들도 적지 않다. 댄스까지 해버리면 가비엔제이 팬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

시현: 가비엔제이 특유의 이미지 때문인지 작곡가들이 댄스 곡을 안 준다. 정말 좋은 노래가 있다면 제대로 흔들어 젓힐 생각도 있다.(웃음)

밝아진 노래에 대한 반감이 심한가?

시현: 팬들의 반응은 반반인데 예전에 절절한 이별 이야기를 부르던 때를 그리워하는 분이 많다. 다음 앨범에서는 슬픈 발라드를 구성지게 불러야겠다.

가비엔제이에서 J는 예전 멤버 정혜민, 장희영의 이니셜인데 그대로 가는 건가?

시현: 이제 NJ의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 노래의 여왕이 되라는 '가비'의 뜻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싶다. 그리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 제니의 J, 건지의 J도 된다.

8년 차 가수인데 음악 방송 외에는 연기나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나기가 어렵다.

시현: 우리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연기를 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지금은 멤버도 새로 바뀌고 정신없는 상황이니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앨범이 잘돼서 싸이처럼 대박이 난다면 어느 나라부터 순회 공연을 돌 텐가?

시현: 가장 가까운 일본에 진출하고 싶다. 일본의 여성 보컬 그룹이 많이 없어졌거든. 일본에서 인기 있는 K-Pop은 딱딱 맞는 군무가 대부분인데, 우리 노래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다. 진출할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 오지가 대수겠어?

다른 걸그룹과 비교해서 외모 순위를 매긴다면 가비엔제이는 몇 위쯤 할 것 같나?

건지: 얼마 전 <뮤직뱅크>에서 오렌지 카라멜이랑 대가실을 같이 썼는데, 정말 예뻐서 감탄했다. 게다가 우리는 소녀시대랑 같은 미용실을 다닌다. 갈 때마다 매번 기가 죽는데 순위는 개별...

오늘 '여자 킬러' 콘셉트로 화보를 찍었다. 본인이 가장 터프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

건지: 양치할 때. 얼마나 거칠게 칫솔질하는지 몸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다.

제니: 무대에서만큼 터프할 때가 없는 것 같다.

시현: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는 젊은 남자를 보고 "예의 없다"고 소리지르면서 훈계할 때.

남치범을 연기한 MAXIM 남자 인턴을 때려눕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평소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호신술이나 비장의 무기가 있나?

건지: 호신술은 모르겠고, 남자를 제압하는 데 애교만 한 게 없다. 남자친구 앞에서 효과음 같은 걸 내면 그냥 쓰러지던걸? "뿌잉!", "아잉!", "뽕!"

실제로 남자를 때려본 적이 있다면 자진 신고할 시간을 주겠다.

건지: 남자친구와 놀이공원으로 데이트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감기 걸렸더며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다. 온종일 걱정하고 있었는데, PC방 앞에서 딱 마주쳤다. 하아... 뒷일은 말할 수 없다(웃음).

촬영을 주방에서 진행했다. 다들 주방이랑은 좀 친한가?

건지: 내가 요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한식까지 두루 섭렵했다.

시현: 나는 주방이 싫어서 아예 집에서 싱크대를 다 떼버리고 주방을 없앴다. 진짜다.(웃음)

식탐이 가장 강한 멤버는 누구인가?

시현: 가비엔제이 모두 식탐이 강하다. 멤버가 바뀐 초기에는 두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는 살을 찌우야 하는 상황이라서 멤버들이 보는 앞에서 자장면에 탕수육을 혼자서 먹어 치운 적이 있다.(웃음)

시현은 7여 년간의 막내 생활을 청산하고 한 번에 팀 리더로 승진했다.

시현: 막내일 때가 좋았다. 이 친구들에게 내가 본보기가 돼야 하니 미용실 약속도, 연습 시간에도 지각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와 180° 다르게 살고 있으니 죽을 맛이다.

팀의 막내로 귀여움을 받았는데, 건지 씨가 들어왔다. 자신이 나이를 먹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시현: 항상 느끼고 있다... 젠장!

자기 경험담을 바탕으로 가사를 쓴다고 들었다. 여태까지 겪었던 최악의 남자는?

시현: 집착하는 남자만큼 최악의 남자가 없다.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일기장까지 몰래 훑쳐보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얼마 안 만나고 헤어졌다.

제니는 장혜진, SG워너비, 먼데이키즈의 콘서트에서 코러스를 한 이력이 있다. 가비엔제이로 데뷔하고 이들을 만난 적이 있나?

제니: 얼마 전 <뮤직뱅크>에서 이석훈 선배님을 만났다. 코러스할 때는 다이어트하기 전이라서 약간 통통했는데, 살 빠진 나를 못 알아보시는 거다.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그제야 난 줄 아셨다고... 내가 그렇게 돼지였나?

리더인 시현과 동갑내기인데 불만은 없나?

제니: 서로 낯을 많이 가려서 친해지는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다. 동갑이다 보니 둘이 술을 자주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친해졌다. 근데 시현이가 술이 엄청 세서 힘들 때가 있다. 술을 많이 마시면서 주위 사람들까지 먹이는 스타일이다. 알만하지?

건지는 이름이 많이 특이하다. 언지꾼지 같기도 하고.

건지: 굳셀 건(健)에 지(智)에(智)다. 의미는 참 좋은데, 솔직히 '유리'같이 연약하고 예쁜 예명이 갖고 싶다.

보컬 가이드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컬 가이드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건지: 가수가 녹음하기 전에 가이드의 노래를 듣고 음을 익히는 거다.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곡가가 시키는 대로 부르는 게 중요하다. 음정, 박자를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맛있게 부르는 게 포인트다.

가비엔제이처럼 인지도 있는 그룹에 들어가면 수입이 제법 짹짹할 것 같은데 한 달에 얼마쯤 버니?

건지: 수입은 비밀이다. 아예 신인으로 시작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행사를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웃음)

가비엔제이에게 라이브란?

관객을 소름 돋게 하는 것. 



“  
무대에서만큼은  
내가 가장 터프하다고 느낀다  
”

**제니**

본명: 김다래

생년월일: 1988년 8월 14일

신체: 163cm, 47kg

이상형: 케이윌

맞을 짓을 하는 남자: 허풍 떠는 남자



구두 슈즈원  
블라우스, 핫팬츠 모두 에디터 소장품



## 노시현

생년월일: 1988년 4월 8일

신체: 161cm, 43kg

이상형: 박재범

맞을 짓을 하는 남자: 매너 없는 남자

블라우스 에세  
언더웨어 사빌  
데님 핫팬츠 비토이  
구두 도니체티  
뱅글 잇츠닷 액세서라이즈

블리우스 핫팬츠 모두 에디터 소장품  
인더웨어 사벌  
구두 왓아이윈트  
뱅크 잇츠닷 액세서라이즈

약당)  
모자 콕실버  
가죽재킷 버커루  
운동화 반스



“  
남자를 제압하는 데  
애교만 한 게 없다  
”

### 건지

본명: 김건지

생년월일: 1992년 2월 28일

신체: 161cm, 44kg

이상형: 박호신, 제대할 때 꽃을  
들고 갔어야 했는데!  
맞을 짓을 하는 남자: 거짓말쟁이

데님 재킷 룩시  
구두 슈즈원

GO TO  
MAXIM  
iPAD



L.A.S. 마공캐컷

LASSELE

MICOM

블라우스 예뻐  
핫팬츠 에디터 소장품  
구독 찾아미원드

미녀 삼총사  
보러가기



MAXIM 에디터의 노숙인 체험기

# Do you know Girl Bay?

인생은 거지 같은 거지.

어머, 저 오빠  
빈티지 그랜지룩 죽인다!

천상 노숙인  
에디터 영상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영환  
MAKEUP 조용재  
DESIGN 서윤정  
ASSISTANT 박종원  
FILM 최성준



### 삶의 향기

천만에 계신 부모님을 뵈고 서울로 올라올 때마다 영동포역의 그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에디터를 맞이한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강수지처럼 한결같다. 그들의 범상치 않은 향기가 말초신경을 지나 대뇌의 전두엽까지 퍼진다. 음... 스멜...

과연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일까? 우리가 뭐라고 저들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까?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라고 다그치시던 부모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과연 공부를 안 해서 저 자리에 있는 것일까? 기성용이 말한 “답답하면 나들이 뛰든지!”처럼 어느 누구도 그 세계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곧 있으면 거사를 치를 고3 수험생들아, 수능 못 봤다고 인생 망하는 것 아니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자. 이들이 밖으로 나왔은 건 절대 수능 때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더라.

### Get it beauty

온실 속 화초 같은 에디터가 노숙인이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장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두 달이나 머리를 길렀지만, 오토바이 근처에만 서 있어도 동네 양아치 느낌만 날 뿐이었다. 몇 주일간 기른 수염은 염소처럼 자란 탓에 지저분 하긴커녕 간신배처럼 보였다. 노숙인을 완성할 수 있는 완벽한 룩이 필요했다. 노숙인의 필수품 카고 바지를 입고, 집에서 길레로 쓰는 나시, 전경 시절 입던 재킷을 매치했다. 선배가 병신 되는 게 신이 낫는지 MAXIM 편집부 후배 에디터들이 앞다투어 옷을 찢고 김치국을 발라냈다. 윤봉길 의사가 광복을 맞이했더라면 이들과처럼 기뻐했으리라.



Before → After

**Show me the money**

종이 박스 몇 개를 옆에 끼고 거리로 나섰다. 오후의 흥대 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흥대입구역 1번 출구에 종이 박스를 깔고 자리를 잡았다. 돈을 주는 위치가 아닌, 지나가면서 눈을 내리까는 사람들의 시선을 밑에서 느껴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차마 "한 푼 줘쇼!"라고 소리는 못 지르겠기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강동을 내밀었다. 10분쯤 흘렀을까? "땡그랑!" 어느 외국인의 첫 개시였다. "오, I LOVE OECD(국제협력개발기구)"와 탄성이 절로 나왔다. 스마트폰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종이 쭉서서 견딜 수 없어 그냥 자리에 벌러덩 누웠다. "땡그랑! 땡그랑!" 돈이 마구 굴러 들어왔다.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한 시간여 만에 3,700원이 모였다. 꽤...괜찮은데?



어아두, 사장님!



아... 맨슬 싫은데..



자리를 접고, 노숙인의 마음의 양식인 담배 구걸에 나섰다. 담배를 꺼내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담배 한 개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담배를 쥐어주었다. 이리저리 구걸한 결과 10여 분 만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손에 넣었다. 어머니, 드디어 제 적성에 꼭 맞는 일을 찾았습니다.

**에디터의 담배 구걸 노하우**

1. 상대가 담배를 막 꺼내려는 찰나에 말을 걸어라.
2. 음악을 듣고 있는 남자는 별도의 멘트 없이 손만 내밀어도 가능하다.
3. 여자와 같이 있는 남자는 노숙인에게 호의적이다.

저 멀리서 늘씬한 각선미의 아리따운 여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2시의 감성이 발동해 무의식적으로 다가갈 말을 걸었다. '차림새가 이래도 번호를 줄까?'

"저기요.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이따 공중전화로 전화할 테니 전화번호랑 전화 걸 돈 200원만 주실 수 있으세요?"

관찮은 멘트였다. 현실적이고 솔직했다. 그런데 그녀는 웬 조두순이 달려든 것처럼 뒷걸음질치며 도망갔다. 에디터 평생 그렇게 세상을 증오하는 듯한 표정을 본 적이 없다.

### 성지순례

이리저리 구걸을 하다 보니 술술 배가 고팠다. 노숙인의 예루살렘, 가나안의 땅이라 불리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서울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을 먹기 위해서다. 돈은 없지만, 준법정신이 투철한 노숙인의 마음으로 교통카드를 찢고 당당하게 공항 철도에 몸을 실었다. 열차 안에 타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반경 5m 밖으로 자리를 피했다. 심지어 같이 동행한 포토그래퍼도 일행이 아닌 척 멀리 떨어졌다. 아, 뺨속까지 외로움이 사무쳤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노숙인의 쉼터 '드림 시티'로 향했다. 여름방학 학급 소집일처럼 이미 많은 친구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드림 시티는 노숙인을 위한 장소로 식사는 물론, 휴식 공간, 생필품, 일자리, 각종 의료 진료를 제공한다. 가만히 안을 구경하고 있는데 직원인 듯한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자네 얼굴에 뭘 그렇게 칠했어? 나이도 젊어 보이고,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연극영화과 학생인데, 거지 배역을 맡아서 연기에 몰입하기 위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난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놀아. 자네 그러다 맞아!"

생각해보니 큰 실수를 했다. 일단 에디터의 나이가 너무 젊었다. 노숙인들 평균 연령을 보면 50~60대 아저씨가 많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디터처럼 얼굴이 새끼말개 지저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샤워는 못해도 세수는 꼬박꼬박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잘 주워 입는지, 옷, 신발 등을 꽤 좋은 메이커로 장착한 노숙인도 많았다. 무난한 콘셉트의 파티에 너무 과하게 꾸미고 간느낌이 들었다. 흥대 클럽에 턱시도를 입고 간느낌이랄까. 그래도 일단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뭐라도 해볼 작정이었다. 드림 시티 안으로 들어갔다. 아오, 껌! 역겨운 냄새 때문에 머리에서 현기증이 일어났다. 몇 분 못 참고 밖으로 도망쳤다. 서울 공기가 이리도 맑았다니... 밖에서 찬찬히 저녁 메뉴를 둘러보니 4시 30분에는 김밥, 5시에는 빵, 6시에는 식사를 준다.





메뉴도 고를 수 있다니, 베스킨라빈스가 따로 없다. 무난하게 빵을 먹기로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어느 노숙인처럼 밖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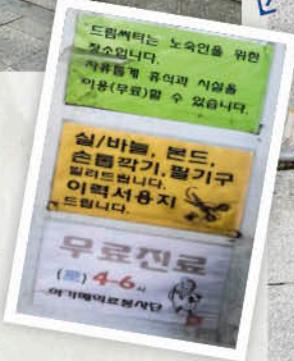
**늦은 후회**

'5시에 빵을 먹으려면 20분 전쯤 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밖에서 비둘기랑 하릴없이 시간을 보냈다. 4시 40분에 드림 시티에 도착했는데 아뵘새! 줄이 너무 길었다. 빵 쪼가리도 건지지 못한 채 텅텅 돌았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더니, 노숙인도 성실해야 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것을 느꼈다. 오전에 구걸해서 번 돈 3,700원으로 빵과 우유를 샀다. 평소에는 별것 아니라고 느꼈던, 보름달 빵과 흰 우유가 성체와 포도주처럼 거룩하게 느껴졌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과 피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해가 저물어갔다. 자리를 옮겨 노숙인들의 가로수길이라 불리는 영동포역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 되자 산란기를 맞은 연어들처럼 노숙인들이 종이 박스와 신문지를 들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와... 금요일 밤 흥대에 '클럽 데이'가 있다면 오늘은 '영동포 노숙 데이'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증도 드레스 코드도 필요 없는 자유 충만한 파티였다.

그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데, 목에 두르는 수건과 우산은 잘 때 눈을 가려 빛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한다.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우산이나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으면 좀 더 오래 잘 수 있다. 우산을 펼쳐두면 그곳은 나의 영역이라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 구두나 신발은 머리맡에 두거나 품에 안고 자는데, 이는 자는 사이에 신발을 벗겨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노숙인들은 건강하고 젊은 친구는 건드리지 않는다. 배가 고파 기력이 없을 뿐더러, 다들 나이가 환갑 정도 되기 때문에 싸워봤자 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에디터도 적당한 곳에 종이를 펼치고 널브러졌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자놓고 또 잠을 잘 수 있다니 존경스러웠다.

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술판이 벌어지고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서로 자기 자리라고 우기면서 먹살을 잡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근데 놀 있는 일인 것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삼하게 몸싸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목소리 크고 욕 잘하는 사람이 짱 먹는 것 같았다. 그들이 하는 욕을 들어보면 세상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단어를 주고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글로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담배는 바닥에 떨어진 장초를 주워서 피는 듯했다. 담배를 주는 사람은 “어이구, 사장님!” 하며 순식간에 CEO로 승진했다. 쓰레기통의 구분이 따로 없어서 침을 아무 데나 뱉는다. “치이익~” 침 뱉는 소리. 대리석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그 푸른빛을 띄는 액체가 황산, 염산보다 인체에 해로울 것 같았다.

### 그덜 마주하는 건 힘들어

누웠다 앉았다 뒤척거리며 노숙인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옆에 자리를 잡고 신문을 펼쳤다. ‘What the fuck!!!!!!’ 아니 이런 ‘까뽀발’ 좀나며찬 ‘까뽀발’스러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들을 마주하기는 처음이었다. 현기증 수준이 아니었다. 이걸 ‘똥, 음식물 쓰레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냄새 수준을 넘어섰다. 코를 칼로 도려내도 개운하지 않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기온이 떨어져, 신문지 한 장이 절실했다.

“아저씨, 신문지 한 장만 주세요.”  
“영? 넌 왜 젊은 놈이 여기 앉아 있어?”

으악~!!! 이런 ‘까뽀발’ ‘까뽀발’!!! 대체 뭘 먹은 거지!!!!!!! 그의 입에서 지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기체가 발화했다. 역류하는 위액을 삼켜가며 말을 이어갔다.

“잘...잘 데가 없어서요. 추워서 그러는데 신문지 한 장만 주세요.”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다 보면 이 페이지 너 줄게.”

그들은 신문지를 이불로도 쓰지만, 정보 수집용으로 쓴다. 그리고 보니 여기저기서 신문을 읽고 있는 노숙인들이 보였다. 그들은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보에 밝다. 할 일이 없으니 역에 설치된 TV로 뉴스, 드라마, 예능을 수시로 시청하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연예까지 습자처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듯했다.

신문지 한 장을 받아서 덮으니 최고급 목화솜 이불이 따로 없었다. 따뜻한 카페라테 한 잔보다 신문지 한 장이 더 만족스러웠다. 인심 좋은 노숙인과 얘기해보니,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했고 외제차도 몰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다 사업이 망했고 부인과 이혼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단다. 몇 해 전 안으로 장기를 거의 다 떼내서 이제 인생에 미련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단다. 아들이 지금 내 포래즘 댕을 거라며 보고 싶다고 했다. 젊은 놈이 여기 있지 말고 내일 아침이면 당장 표를 사든지 무임승차를 해서라도 영등포역을 떠나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다.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갑자기 역내가 시끄러워졌다. 새벽 1시쯤이 되자 역 한가운데서 아바위판이 크게 벌어졌다. 종목은 훌쩍이었다. 큰돈이 오가는 건 아니고 자질한 동전과 꾸깃꾸깃한 천 원짜리로 베테랑이 이어진다. 돈이 없으면 담배를 걸기도 한다. 아사장 같은 분위기에서 노숙인 특유의 인심도 느껴졌다. 담배도 나눠 피우고 술도 나눠 마시며 모두가 그 자리를 즐겼다. 친화력이 상당했다. 처음 보는 에디터에게 돈을 한번 걸지 않겠느냐고 누군가 말을 걸었다. 주머니에서 100원 짜리를 꺼내 걸었지만 300원 뺏다가 금세 다 잃었다. 어느새 괴괴한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고 언제부턴가 나도 그 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익숙해지면 큰 일이라는 한 노숙인의 말이 생각나 해 뜰 무렵, 그곳을 빠져나왔다.

### 헤어진 후에

나쁜 사람도, 무서운 사람도 딱히 없었다. 단지 일을 안 하고 조금 더럽고 냄새 난다는 점? 그것마저 그들이 선택한 삶이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부모님 동공을 빨아먹으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자. 단지 그들보다 조금 더 윤택한 환경에 있을 뿐이다. 그 후 에디터도 아무렇지 않게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손에 쥐어졌던 3,700원과 담배 14개비가 왜 이렇게 아른거리는 거지!? 

빨리 끝내고 슈스케 보러  
가야 된다니까!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 감독이 티아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주 바뀌어?

BY 강산(엑스포츠뉴스 기자) IMAGES 엑스포츠뉴스 제공  
DESIGN 신숙희

올해 중간에 경질된 넥센 김시진 감독의 거친 항의

## 2년 동안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감독 '0명'

올 시즌 프로야구 감독들의 필수 아이템은 '퇴직연금'이 아닐까 싶다. 조금만 성적이 부진해도 모자 벼를 준비해야 한다. 2년 전인 2010 시즌을 시작할 때 프로야구 8개 구단 감독을 맡은 인물 가운데 현장에 남아 있는 이는 선동열(KIA) 감독뿐이다. 선 감독도 2010 시즌까지는 삼성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시즌 후 감독직에서 물러나 1년 만에 KIA의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양반이다. 팀에 3번이나 우승을 안겨준 SK의 김성근 감독은 이미 이듬해 백수 신세가 됐다.

사실 요즘 나머지 6개 구단 감독들도 전전공공하고 있다. 한화이글스 한대화 감독과 넥센 히어로즈 김시진 감독이 8월 28일, 9월 17일 경질 통보를 받으면서 2년새 프로야구 8개 구단 감독들은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다. 1996년부터 지난해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무려 16년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한 팀만 맡아온 토니 라 루사 감독의 예를 보면 국내 프로야구 감독들은 편의점 알바생처럼 한순간에 쫓겨나는 형편이다. 그런데 진짜 이 감독들이 잘릴 만한 짓을 했을까?

## 계약 기간?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국내 프로야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프런트의 참견이다. 자취하는 외동딸에게도 이렇게 귀찮게 할까?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를 보자. 전 뉴욕 양키스 구단 주인 조지 스타인브레너처럼 구단 수뇌부에서 팀 성적에 압박을 가하는 예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감독에게는 풀리는 대로 팀을 꾸릴 권한이 있다. 감독의 색깔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부진이 길어지면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계약 기간에 매정하게 자르진 않는다. 당신 여친이 거사 중에 갑자기 "빠!"라고 소리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끔찍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감독의 계약 기간은 아자 될 때 돌려대는 거짓말보다 믿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즌 종료를 1경기 남겨놓고 사령탑에서 물러난 박종훈 LG 전 감독이다. 박 감독은 2010 시즌 직전 신임 감독으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5년 계약을 제시받았다. 당장 성적이 아닌 감동이 되기 위한 기쁨을 마련하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계약 2년째인 2011년, 시즌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2년 연속 6위에 그치지 '성적'을 이유로 쫓겨난 것이다. 결국, 올 시즌부터는 수석 코치였던 김기태 감독이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익스큐즈미!!!

지난 시즌, 팬들이 길을 막고 항의하자, 메가폰 들고 사과하는 LG 박종훈 감독



올해 나가기 된 김시진, 한대화 감독.  
면 오른쪽은 올해 처음 온 LG 김기태 감독

### 자진 사퇴했다고 전해줘

그런데 이 무안단물처럼 쓰이는 '자진 사퇴'라는 단어는 실제로 무슨 뜻인가? 어떤 이유로 감독 자리에서 물러난 구단은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혹은 "감독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포장한다. 떠나는 감독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조치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기 좋게' 자르는 것에 불과하다. 각자 속 사정이 있겠지만 프로야구 감독은 모든 야구인의 로망이다. 야구하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자리에 올랐는데, 그냥 내려오겠다고? 가수 지망생이 <슈퍼스타X> 우승하자마자 절에 들어가겠다는 소리 아닌가.

시즌 중에 감독이 물러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감독을 보좌하던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팀의 사령탑에 앉는다. 웃지 못할 사실은 이들 또한 파리 목숨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거미줄에 걸려 다가오는 최후를 기다리는 파리 말이다. 이들이 남은 시즌을 이끄는 동안, 끊임없이 차기 사령탑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그렇다. 한화 한대화 감독이 물러난 뒤 한용덕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남은 시즌을 치르다가 김용룡 감독이 한화의 새 감독으로 결정됐다. 한용덕 감독 대행에게는 이렇게 맥 빠지는 소식이 없다.

### 육먹는 하마 야구 감독

걸리는 대로 무조건 까고 보는 습성은 정말 김치맨 종족인 걸까? 응원하는 팀의 성적이 부진하면 팬들의 비난 대상 1순위는 일단 감독이다. 팀의 전설이든 희대의 에이스였던 간에 감독이 되면 육부터 배부터 먹어야 한다. 한 팀의 감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와 같다.

국내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아신(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도 "재미 없는 야구를 한다", "투수를 혹사시킨다"는 비난을 받는다. 아마 베이브 루스가 살아 돌아와도 한국 야구에서 감독을 맡으면 '베이브 호구'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다. 팬들의 파이팅 넘치는 전투력도 문제다. 아직 유희왕 카드나 만지작거릴 꼬맹이들이 아버지꼴 되는 감독에게 육두문자를 서슴지 않는다. LG 박중훈 감독은 지난해 8월 18일 잠실 두산전에서 패한 뒤 수천 명의 팬이 출입구를 막아

서고 항의하는 바람에, 메가폰을 잡고 사과하는 코미디를 찍기도 했다. 결국, 박 감독은 지난 시즌을 1경기 남긴 상황에서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올 시즌 감독직에서 물러난 한대화, 김시진 두 감독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경질됐다. 한대화 감독은 한창 경질 여론이 일 때 구단에서 "올 시즌은 함께 간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구단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약속을 뒤집었다. 김시진 감독은 올해가 3년 연장 계약이 시작하는 첫해였다. 하지만 구단은 성적 부진을 이유로 김 감독을 경질했다. 역시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세뱃돈을 압수하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장담하시는 부모님의 약속과 다를 게 없다.

### 기다리는 팀에게 승리가 있나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최장수 감독으로 기록된 인물은 프로야구의 김용룡 감독이다. 1983년부터 2000년까지 18년 연속 해태 타이거즈를 이끈 김 감독은 무려 9번의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는 등 한국 야구의 전설로 남아 있다. 16년간 세인트루이스를 이끈 라루사 감독보다 더 오랜 기간 재임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김용룡 감독과 같은 장기 집권은 커녕, 평범하게 임기를 채우는 감독조차 찾기 어렵다.

조루 같은 구단의 조급증과 '성적 지상주의' 덕분에 야구가 패스트푸드처럼 변해버렸다. 기다려야 성적도 나오는 법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국내 프로야구의 발전도 없다.

잘될 만하면 싹을 잘라버리는 데 그 누가 의욕적으로 팀을 이끌겠는가. 9회 말 2아웃에도 승패가 뒤바뀌는 게 야구의 세계다. 당장 성적이 개판이라도, 조금 더 참을성 있게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그 감독이 막판에 만루홈런을 칠지, 누가 알겠는가?



2011년, 감독이 경질되고 LG선수들의 침울한 모습



해외 진출은  
물 건너간 건가...

영화에 출연한  
야구 감독?



# UFC on Fuel 6 IN MACAU

불이나 좀 커봐.

UFC 팬이 이 경기를 놓치면 바보지!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DESIGN 신숙희 IMAGE 수퍼액션, 연합뉴스

대한 건아들의  
경기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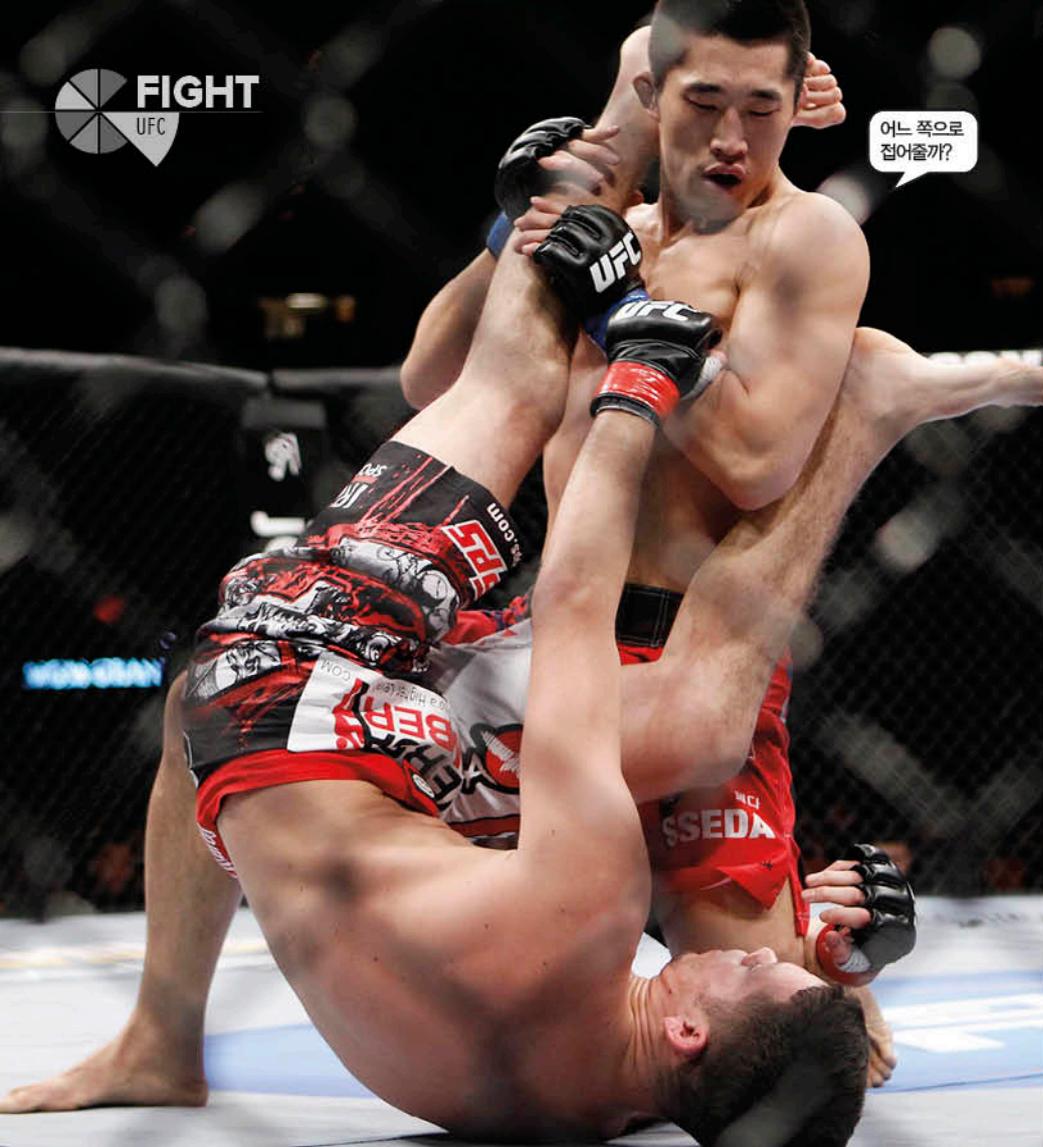


오는 11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마카오에서 벌어지는 UFC on Fuel 6는 특별한 이벤트다. 총 10경기 중 9개가 동양 대 서양의 대결이다. 우리나라 대표로는 김동현, 강경호, 임현규가 출전한다. 경기 시간도 마카오 현지 시간대로 맞춰지면서 오후 9시(한국 시각 오후 10시)에 수퍼액션에서 중계방송이 시작된다.



아싸,  
내가 센터!

왼쪽부터  
강경호, 김동현, 임현규 선수



어느 쪽으로 잡아줄까?

## UFC 이벤트의 4가지 종류

### 1. 넘버링 이벤트

UFC 뒤에 숫자가 바로 붙는 대회. 가장 최근의 것은 UFC 153이다. PPV를 통해 중계된다. 빅 매치의 대부분은 넘버링 이벤트로 벌어진다. UFC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바로 이 PPV 판매량이다. 100만 이상의 PPV 판매고를 기록한 대회는 총 8회였다. 그중 네 번이 브록 레스너의 경기였으니 (최고 기록인 160만 역시 레스너의 경기), UFC가 레스너에게 호의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 2. UFC on FOX

UFC는 2011년 세계 최대의 뉴스 코퍼레이션 그룹 FOX와 파트너십을 체결. FOX와 산하 방송사에 경기와 MMA 리얼리티 쇼 (TUF)라는 콘텐츠를 납품하게 됐다. UFC on FOX의 1회 대회 메인 이벤트는 케인 벨라스케즈 대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 간의 헤비급 타이틀전이었다. 하지만 이후의 세 대회에서는 넘버링 이벤트에 비해 중량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 3. UFC on FX

FX TV는 FOX 산하의 케이블 방송사다. FX 채널에서 방영하는 이벤트는 확실히 위의 두 이벤트보다 소박한 매체로 구성된다.

### 4. UFC on Fuel

역시 FOX 산하의 케이블 방송. FX 대회와 비슷한 레벨대의 경기가 벌어진다. 정찬성은 지난 5월 15일 이 대회에서 한국 파이터로는 최초로 메인 이벤트를 경험했고 상대인 젊은 유망주 터스틴 포이리어를 잠재우면서 대권으로 가는 험로를 뚫었다.

### UFC WITH SUPER ACTION

한국에서 UFC를 보려면 액션전문 채널 SUPER ACTION이 정답! 이번 경기 역시 11월 10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생중계하니 놓치지 말고 채널 고정하자.

UFC 125 웰터급 경기에서 네이트 디어즈를 공격하는 김동현. 오는 10일, 5연승의 패거리를 이룬 이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길 바란다.

### 관전 포인트 1. IN MACAU

UFC는 여러 나라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각국의 시차가 UFC로선 상당한 골칫거리일 터. UFC를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려면 해당 국가의 시간대에 맞춰 대회를 여는 것이 좋지만 대회의 수익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PPV 매출과 방송 관련 수익을 고려한다면 미국 시간대에 맞춰 경기를 여는 게 유리하다.

\*PPV(Pay per View): 관람료를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는 방송. 가장 대표적인 PPV 프로그램은 복싱 타이틀 매치로 14.99달러에서 54.99달러 정도다(HD는 더 비쌌).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나 매니 파퀴아오 급 선수의 경기를 보려면 60,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UFC는 PPV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앤드슨 실바가 출전한 이번 UFC 153은 복싱과 같은 가격인 54.99달러였다.

사실 PPV 판매가 이루어지는 넘버링 이벤트는 어느 나라에서 열린 미국 시간 위주로 맞춘다. 일본에서 벌어진 UFC 144는 일본 현지 시각인 일요일 오전 11시에

경기를 시작했다. 미국 서부에 비해 4시간이 빠른 브라질의 UFC 153은 미국 서부 시간 7시에 맞추기 위해 밤 11시에 시작했다.

PPV가 없는 UFC on FX, UFC on Fuel 이벤트는 현지 시간대를 공략한다. 얼마 전 영국에서 벌어진 UFC on Fuel 5는 영국 시각 오후 9시에 시작됐는데, 미국 서부 기준으로는 오후 1시다. 영국 시각 9시가 아니라 만약 7시에 시작했다면 미국 서부 기준으로는 오전 11시가 되며, 이 시간대의 중계방송으로 높은 시청률을 뽑아내기는 어렵다. 토요일 오후 1시도 그렇게 좋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영국 현지의 2시간을 타협해 9시에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관전 포인트 2. 09:00 PM

이번 마카오 대회는 현지 시각 오후 9시(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시작된다. 미국은 서부시간 오전 6시다. 마카오와 뉴욕은 시차가 12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나 타협이 별 의미가 없다. UFC로서 중국에서 대회

를 연다는 것은 그 대회의 미국 시청자를 포기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다. 그럼에도 이번 대회의 개최가 성사된 것을 보면 UFC 역시 세계의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명확해진다. 덕분에 국내 팬들도 토요일 오후 10시라는 준수한 시간대에 우리 선수가 3명이나 출전하는 UFC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UFC가 흥행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간대다. 보통 UFC의 큰 대회는 일요일 오전 11시경에 방송된다. 참으로 애매한 시간이다.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EPL보다 나은 거 아니며 서로 위안하지만, 일요일 오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도 많이 나고 가끔 골절도 생기고 딱 실신도 자주 나오는 UFC 경기를 함께 시청하자고 권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토요일 밤에 벌어지는 이번 대회는 다르다. 국내 UFC 생중계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고, 덕분에 UFC의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관전 포인트 3. KOREAN FIGHTERS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대회에는 김동현(웰터급), 강경호(밴텀급), 임현규(웰터급)가 출장한다. 강경호와 임현규는 이번이 데뷔전이다. UFC의 데뷔전은 선수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상당수의 파이터가 옥타곤에서의 첫 경기에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평소 실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도 개최지가 마카오인 덕에 시차 문제가 없다는 점과 항공편 및 체류비 부담이 덜한 것, 상대 선수들보다 비교적 홈그라운드(가깝다는) 부분은 다행스럽다. 김동현은 UFC에서 이미 9전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전적은 6승 2패 1NC로 준수하지만 최근의 3경기에서 2패를 당했다. 그 어느 때보다 1승이 절실한 상황이다.

#### ↓ 임현규 vs. 데이비드 미첼

대한민국	국적	미국
1985년생(만 27세)	연령	1979년생(만 32세)
10승(7KO 2SUB) 3패 1무	전적	11승(9SUB) 2패
188cm	신장	183cm
77kg	체중	77kg
200cm	리치	190cm
오소독스	스탠스	오소독스

원래 임현규는 마르셀로 귀마레스라는 선수와 싸우기로 예정되었지만 갑자기 상대가 바뀌었다. 데이비드 미첼은 마이너 무대에서 11연승(9 SUB)을 기록하고 UFC로 진출했다(UFC 입성 후 2연패 중). 전적에서 드러나듯 이 선수의 특기는 주짓수다. 상대를 위에 두고 누운 상태에서도 다양한 공방 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상대할 때는 서서 하는 게 정석이다.

테이크다운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보이지만 테클을 걸듯이 하단으로 파고들어 와 그대로 누우며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가는 테크닉과 하위에서 러버가드로 상대를 묶으면서 서브미션을 노리는 전법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 임현규는 한계 체중 77kg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신체조건이 아주 좋다. 188cm의 신장과 2m에 달하는 리치는 웰터급의 평균을 크게 웃돈다. 자신의 체격과 화력을 적극 활용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임현규는 강력한 사냥꾼이다. 그렇지만 상대인 데이비드 미첼과 파이팅 스타일 면에서 색 좋은 공합이 아니다.

임현규는 선제공격 시도가 많고 큰 공격, 킥, 니킥 등을 잘 섞어 쓴다. 상대가 그라운드 전문일 경우 임현규의 이런 스타일은 상대에게 경기를 그라운드로 전환

할 찬스를 넘겨주게 된다. 평소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다. **키포인트는 테이크다운 방이다.**

#### ↓ 강경호 vs. 알렉스 카세레스

대한민국	국적	미국
1987년생(만 25세)	연령	1988년생(만 24세)
11승(2KO 8SUB) 6패	전적	7승(1KO 3SUB) 5패
173cm	신장	175cm
61.2kg	체중	61.2kg
186cm	리치	190cm
오소독스	스탠스	사우스포

강경호는 임현규와 입장이 반대다. 상대인 카세레스는 신장이 높고 리치가 길며 스피드가 있다. 타격 게임을 즐기는 편이며 그러다 보니 카운터 테이크다운에 당해 그라운드로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잦다.

5패 중 4패를 서브미션에 당했다. 강경호가 이 선수와 스탠딩에서 맞붙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강경호는 타격과 트랜지션(레슬링), 그라운드(주짓수, 레슬링)가 모두拔군이다. 레슬링과 서브미션기에 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이므로 정석대로 가능한 한 빨리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상위 포지션을 지키면서 파운딩으로 공략하고 서브미션을 노리는 운영이 효과적일 것이다. **키포인트는 타격 방어, 스탠딩에서는 긴장해야 한다.**

#### ↓ 김동현 vs. 파울로 티아고

대한민국	국적	브라질
1981년생(만 31세)	연령	1981년생(만 31세)
15승(6KO 1SUB) 2패 1무 1NC	전적	14승(2KO 8SUB) 4패
185cm	신장	180cm
77kg	체중	77kg
193cm	리치	189cm
사우스포	스탠스	오소독스

두 선수 모두 베테랑이고 강하다. 그리고 둘 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파울로 티아고는 한때 조시 코스츠크를 KO로 잡으면서 타이틀 라인의 목전까지 진출했던 선수다. 그렇지만 웰터급의 칸텐더 경쟁은 치열했고 티아고는 결국 밀려났다. 김동현 역시 무패가도를 달리며 TOP10 랭킹 진입을 눈앞에 둔 상태였지만 카를로스 콘딧에게 일격을 당했고 데미안 마이아전에서 불운이 겹쳤다. 두 선수 모두 사력을 다할 이유가 있다. 김동현에게 티아고는 꽤 괜찮은 사냥감이고 티아고에게 김동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을 때와 절 때의 차이가 매우 큰 경기다.

타격 면에서는 티아고가 앞선다. 하지만 김동현은 체격 조건이 우수한 왼손잡이기 때문에 티아고가 타격으로 재미를 보지 못할 확률이 높다. 레슬링에서는 김동현, 그라운드/주짓수는 티아고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김동현이 불리한 것 같지만 레슬링을 활용해 상대를 넘기고 유술 방어를 하며 상위 포지션을 지키고 간간히 파운딩을 넣어주는 김동현 특유의 흐름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티아고가 어려운 상대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티아고에게도 김동현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슈퍼모델과 데이트하고 싶은가?  
2012 MAXIM HOT 100에서 1위를 차지한  
바 레파엘리의 조언을 들어보자.  
(일단 어디서 그녀들을 만날 수 있는지부터 알려달라고)

BY PATRICK CARONE  
PHOTOGRAPH JAMES MACARI

*Our Favorite*

**BAR**



# B

ar Refaeli.

바 레파엘리가 2012년 MAXIM의 HOT 100 리스트 맨 꼭대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이 이스라엘 출신의 슈퍼모델은 전 세계 미디어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이 전혀 없다는 망언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그녀! 완벽한 얼굴과 특출한 몸매로 전 세계 대형 광고판을 도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남자들이 지레 겁먹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을 얻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세계에서 가장 핫한 1인이 된 기분이 어떤가? 믿을 수 없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누군가 나에게 전화해서 "척오가 있었다"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해라. MAXIM HOT 100의 1위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나?

충격이었다!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이토록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없을 거다.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거다. "내가 바로 바 레파엘리라고! MAXIM에서 가장 예쁜 여자 1위에 뽑힌 사람!" 이 타이틀은 누구든 평생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토크쇼에 나와서 아무도 당신에게 대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이다. 내가 밖에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화보 촬영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집에 있다가 일찍 잠이 드니까. 그나마 남자와 마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는 비행기 안인데, 전부 기혼자에 나이도 엄청 많은 사업가들 뿐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작업을 걸지 않는다고? 에이 그건 좀...

그래, 사실 그 말을 방송에서 한 이후로 우리 집에 데이트 신청을 하는 내용의 편지나 자신의 모습을 찍은 DVD가 많이 도착했다. 내 말은, 실제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남자가 없다는 거다.

당신을 꼬시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 재미있는 사람은 재미있게 말하면 되고, 친절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걸 어필하고, 그냥 본연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된다. 너무 쿨한 척하는 남자는 매력 없다. 한번은 공항에서 나를 알아본 귀엽게 생긴 남자가 한 명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다가오기는커녕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쳐다본 게 결코 아니야"라고 말하

듯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갑자기 문자를 보내는 척하더라. 정말로 쿨한 남자였다면, 그냥 내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겠지.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JDate라고 유대인 데이트 사이트가 있던데 거기 가입해보는 건 어떨까?

만약 내가 마흔에 싱글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다. 아직 난 서른도 안 됐다고! 사양하겠다.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뭔가? 치아를 가장 먼저 본다.

그럼 영국 남자는 별로겠다. 영국 남자는 치열이 엉망이잖나.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요즘 치아 교정술을 하는 치과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교정을 안 받는 걸까. 고른 치열을 보이며 활짝 웃는 미소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최근에 "엔젠가는 저스틴 비버랑 결혼할 거다"라고 말했다. 그의 광팬들이 두렵지도 않은가?

내 유머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엄청 열받았을 거다.

'Under.Me'라는 속옷 브랜드가 당신 거라고 들었다. 남자는 어떤 속옷을 입는 게 좋을까?

편한 게 제일이지. 미국 남자들은 보통 복서 스타일 팬티를 즐겨 입는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대부분 타이트하고 짧은 속옷을 좋아하고, 브라질에서는 비키니처럼 아주 작은 팬티를 선호한다. 속옷 취향도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당신이 보기에 남자가 여자에게 란제리를 선물하는 건 괜찮은 아이디어인가?

정말 귀여운 선물이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여자친구를 잘 알아야 먹을 거다.

그렇다면 첫 데이트에서 선물하기에는 별로라는 건가?

안 된다. 안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대! 그녀의 취향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부터 파악해라.

우리는 당신이 속옷만 입고 테니스를 치는 그 광고를 사랑한다(재군, 지금 당장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라. 어서! -에디터). 실제로 당신이 테니스 치는 스타일인가?

오, 마이 갓, 그럴 리가! 저렇게 입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특별히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단단한 복근이 자랑스럽다. 의외로 무척 잘 먹는 편이다. 내 생애 최고의 낙은 먹는 거다.

그나저나 트위터 진짜 자주 하더라.

트위터를 정말 좋아한다. 팔로워 수를 더 늘리기 위해 요새 나 자신과 싸움 중이다. 내가 생각한 수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심지어 나 자신과 내기를 할 정도다. 트윗은 영어와 히브리어로 한다. "히브리어로 말해달라! 우리랑은 우리 말로 얘기하자!"는 메시지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둘 중 어떤 언어가 더 섹시한가?

아, 특별히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히브리어가 나은 것 같다. 음... 영어 발음 중엔 불량하게 들리는 거친 소리가 많아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남자들에게 조언해달라. 수컷들이 이성에게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녀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냥 그녀를 꼭 안아줘라. 이 방법은 늘 먹힌다. 



팬티와 브라 3.1 Philip Lim  
목걸이와 귀고리 Helen Ficalora  
별 모양 다이아몬드 목걸이  
Dana Rebecca Designs (앞 페이지 왼쪽)  
반지 Iosselliani (앞 페이지 오른쪽)  
팬티 Cosabella  
반지 Jennifer Fisher  
목걸이 Ugo Cacciatori  
침구 Ralph Lauren Home



A full-page photograph of a woman with long, wavy blonde hair, wearing a black lace bra and matching black lace underwear. She is leaning against a white ledge in front of a large window with a metal frame. Her hands are raised behind her head, and she is looking towards the camera with a slight smile. The lighting is bright and natural, coming from the window.

“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말을 걸어라.  
”

GO TO  
MAXIM  
iPAD  
미공개컷



란제리 Kiki de Montparnasse  
귀고리 Jennifer Fisher  
목걸이 Finn Jewelry

# SMOKE&DRINK

MAXIM 맥주 테이스팅 1탄:  
색깔 있는 맥주들

## “그냥 다 흑맥주 아닌가요?”

... 라고 그녀가 물었을 때  
당신은 오늘 이 기사를 떠올리며  
훗날 우리에게 감사하게 될 거다.

BY MAXIM 편집부  
PHOTOGRAPH ARC STUDIO  
FILM 이영환, 최성준  
DESIGN 신속희

애들이 자꾸 왕대가리  
라고 놀려 엉엉.



그녀가 '진돗개 하나' 경계 태세를 풀 정도로 취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럴싸한 술집에 데려갔다. 메뉴를 보니 샴페인은 비싸고 원지 시발 잘 모르겠다. 위스키나 보드카는 너무 세다. 그녀보다 먼저 인사불성이 되어 차디 찬 화장실 바닥, 파출소 의자에 얼굴을 부비며 잠들지도 모른다. 최고의 선택은 역시 부담 없는 맥주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술이 약해서 맥주를 시킨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늘 마시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꼬부랑말이 많이 쓰인 외국 맥주를 시켜라. 그것도 아주 개성 있고 색깔있는 놈으로 말이다. 당신을 보는 그녀 눈빛이 달라질 거다. 그렇다면 당신의 짝짓기를 늘 열렬히 응원하는 MAXIM이 해야 할 일이 있지. 당신 대신 랜잡은 작업 맥주들을 골라 미리 마셔주는 것! 그래서 우린 MAXIM 편집부에서 가장 탱탱하고 여성스러운 손안나 에디터를 상암동 홈플러스에 투입시켰다.

“여자 눈에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맥주를 골라와. 하이트, 카스, 오비는 질리도록 쳐마셨으니 됐고.”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카드에 담은 수십 병의 맥주 중, 이달엔 색깔 있는 맥주들을 소개한다.

**GUINNESS ORIGINAL 기네스 오리지널**

출산: 아일랜드 / 종류: 아이리시 드라이 스타우트

→ 1년에 8억 5천만 리터의 기네스가 팔린다.

**BEER TALK**

**손안나** 약간 신 맛도 있지만,

제 입엔 검은 콩 삶은 물처럼 밍밍하네요.

**유승민** 근데 천천히 특유의 고소한 맛,

초콜릿, 꿀, 과일 맛이 느껴져.

**송중민** 부드러운 크림 맛도 느껴지고, 아주 달진 않  
아. 좋은데?

**박한빛누리** 내 입엔 그냥 쓴 커피 같아요. 뒷맛도 겁  
나 쓰고, 내 인생도 쓰고.

**김희성** 병이 주는 인상이 보수적이라 그런지 이걸  
시킨 사람은 딱 자기 취향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아.

안정적이면서 자기 생각이 있는...

정우성 맛?

**송중민** 웬지 무섭네요.



**LEFFE BRUNE 레페 브라운**

출산: 벨기에 / 종류: 벨기에 다크 에일

→ '레페 수도원의 맥주'라는 이름과 달리 현  
재는 수도원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대신 레페  
수도원은 라이선스료를 받는다.

**BEER TALK**

**김희성** 둥근 와인잔처럼 생긴 전용잔이 예쁘죠.

거요. 이걸 주문하는 남자는 로맨틱해 보여요.

**손안나** 커피 대신 마셔도 될 정도로 커피 향과 맛이 인  
상적이네요. 짙을까 달일까? 캐러멜 맛도 나고요.

**조용재** 술 안 마시는 여자도 이거 계속 먹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흐흐.

**유승민** 거품까지 달아. 고급스러운 단 맛이랄까?

**이영환** 치킨 같이 기름진 음식이랑 먹으면 토할지도  
몰라요. 느껴서.

**박한빛누리** 누가 풍뎡이 탔어? 거품이 가장 오래 가네요.  
여자랑 천천히 노가리 가까이 좋을 것 같군요.



**ROGUE ALES 로그 아메리칸 앰버 에일스**

출산: 미국 / 종류: 아메리칸 앰버 에일(레드 에일)

→ 독특한 라벨로 유명한 로그는 화학첨가  
물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팩맨'이라 부르는  
특별한 효모를 쓴다.

**BEER TALK**

**송중민** 향이 뭐 이래? 잘 썩힌 고구마 향?

**손안나** 라벨이 진짜 예쁜데. 맛과 향은

남자다워요. 개성 있는 흥대 남자 스타일?

**조용재** 평소엔 자유로운 영혼인데. 침대에선 여자를  
강압적으로 얻드리게 하는 그런 남자?

**이영환** 외모만 보고 좋아했다가 개망해버린 첫사랑 생  
각이 나. 달면서 쓰고 진향도 강하네.

**박한빛누리** 라벨 속 남자가 나를 향해 파이팅을 외치  
네.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곧 흥런치겠어!" 이 맥주  
도 여자랑 마시기 좋겠어. 엔간히 튕겨도 내 의지는 꺾  
이지 않을 테니까.



**SAMUEL ADAMS BOSTON LAGER 새뮤얼 애덤스**

보스턴 라거 출산: 미국 / 종류: 비엔나 라거

→ 새뮤얼 애덤스는 미 독립혁명 아픈 정치인  
으로, 한때 양조자로 일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새뮤얼 애덤스로 지었다.

**BEER TALK**

**유승민** 향이 풍부하고 맛이 복합적이네. 과일

향도 강렬하고, 애는 오렌지나 풀 향도 나고.

**손안나** 새콤한 과일 향이 여성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맛은 쌉쌀하고 맥주 색도 약간 불그스름한 게 맘에 들  
어요. 이 맥주를 시키는 남자는, 맥주를 잘 알고 마신  
다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색도 잘 할 것 같아요.

**김희성** 꿀, 밤, 고구마, 라일락, 라벤더... 이런 게 마  
구 떠오르네요.

**박한빛누리** 이렇게 강렬한 맛은 흔치 않은 것 같아.

단 맛, 신 맛도 좀 나고, 맥주 접내, 비린내는 전혀  
없어.

**이영환** 입에서 여운이 길게 남아요. 발효의 맛?

**조용재** 그건 니 입냄새일지도 몰라. 백태를 벗겨봐.



**OLD SPECKLED HEN 올드 스페클드 헨**

출산: 영국 / 종류: 잉글리시 페일 에일

→ 올드 스페클드 헨은 '얼룩무늬 늪은 닭'  
이라는 뜻이다.

**BEER TALK**

**김희성** 캔을 따니까 '푸시시시' 소리가 나네.

안에 질소공기가 들어있어 빈 캔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 거품 입자도 엄청 부드럽고 고와. 신기하다.

**이영환** 아이오 이게 뭐야? 향이 왜 이래요? 게다가 맛은  
상한 풍뎡이? 구제불능이네요. 버터 같아!

**손안나** 난 좋은데? 비오는 날 버스에 탄 양키의 냄새  
같아. 달콤하고 진득하고... 웬지 아한 향이야.

**조용재** 입에 넣는 잔여물도 끈적이는 것 같고, 느끼한  
테... 이상하게 끌리네.

**박한빛누리** 환절기 콧물 먹는 맛이네. 맑긴 한데, 엄  
지, 감지로 만지면 찝 늘어나는 정도의 점성이 있는...

**유승민** 그 콧물이 남의 거라는 게 함정이지. 안나씨가  
양키 냄새라고 했지? 남자는 그걸 '양키 좆 빠는 맛'이  
라고 표현할 걸? 존나 싫어. 남의 정액 먹는 기분이야.



**WABAR DUNKEL 와바 둔켈**

출산: 대한민국 / 종류: 둔켈

**BEER TALK**

**손안나** 향은 잘 모르겠는데 맛은 확실하네요.

달콤하고 약간 신 맛도 있어요. 애도 완벽한  
콜라색이네요. 겉과 속이 일치해요.

**유승민** 초콜릿, 카라멜 맛이 나. 달콤한 맛이

참 좋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둔켈의 매력을 다 갖췄어.

**김희성** 근데 별로 안 끌려요. 다른 맥주에 비해 인상  
이 약하달까?

**박한빛누리** 수입 맥주집 가서 국산 와바의 둔켈을 마  
실 일이 있을까? 여자랑 간 술집에선 안 시킬 것 같아.

**이영환**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요모조모 다양한 인주랑  
먹을 수 있겠는데요?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이  
랑 같이 먹기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신신하게 입  
안을 씻어내는 기분이 들어요.

**조용재** 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누리 선배 의견에 따르  
겠어요. 맛은 좋은데, 일부러 찾아서 사 마실 정도로 좋  
아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박한빛누리** 꺼져, 따라쟁이.



**NEWCASTLE BROWN ALE 뉴캐슬 브라운 에일**

출산: 영국 / 종류: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

→ 투명한 병에 담아 팔린 최초의 맥주다.

**BEER TALK**

**유승민** 은은한 과일향이 있어. 끝맛은 약간

달고, 전반적으로 경쾌하고 가벼운 에일이네.

**손안나** 젊고 스타일리시한 병이네요.

**조용재** 기대한 것보다 싱거워. 맥주에서 달콤한 콜라  
맛을 기대한 내가 병신이지. 마감도 늦고, 편집장한  
테 욕 먹고... 말도 삼푸 기사 쓰다 머리만 더 빠지고...

**김희성** 애 좀 집에 보내자. 안 되겠다. 하얏튼 기네  
스처럼 쓴맛이 강한 맥주는 확실히 아니네. 딱 내 스타  
일이야.



→ **에일과 라거**

맥주 위쪽에서 공기와 만나 발효하는 상면 발효 맥주를 에일, 발효통 바닥에 가라앉는 효  
모가 발효를 하는 저면 발효 맥주를 라거라고 한다. 보통 에일은 꽃, 과일, 허브 향이  
나고, 진득하고 복합적인 깊은 맛이 나고, 라거는 깔끔하고 청량하다. 하지만 종류와 제조  
법에 따라 라거도 과일, 꽃 향 나고, 에일도 경쾌하고 가벼울 수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일단 많이 마셔보라고!

이제 보급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QUIZ.** 누가 다 쳐먹었어?

수업 끝, 이제 무슨 맥주인지 맞춰봐.

다섯 가지 종류의 맥주와 세 가지 종류의 라거를 맛보고, 각각의 맥주에 어울리는 라거를 골라주세요.



시방 여기가  
어디다요?

THE DARK LAGER RISES

세계 맥주 기행:  
다크 라거 이야기

다크 나이트, 다크 템플러, 다크 초콜릿, 통닭크(?)....  
다크한 것은 멋지다. 맛있기도 하다.

BY 이효복 대표이사 / www.wabar.co.kr  
DESIGN 서윤정

요즘 가장  
집나가는  
맥주는?  
↓



**다크 라거 라이즈**

독일 뮌헨에서 서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는 칼텐베르크 성이 있다. 이곳의 주인은 루트폴트. 위엄 돌는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존엄하신 바바리아의 왕자 루트폴트'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직함이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나는지, 아무튼 그를 루이라고 부른다. 키가 훗칠하고 어깨가 넓은 루트폴트는 칼텐베르크 성을 찾는 모든 방문객을 시원한 미소와 함께 따뜻하게 맞아준다. 그는 비텔스바흐 왕가의 한 사람으로 그의 조상들은 바바리아를 통치했다. 1180년부터 1918년까지, 처음에는 공작으로 나중에는 왕이 되어 바바리아를 다스린 비텔스바흐 가문에는 독일 맥주 순수법을 제정한 빌헬름 4세가 있다. 당시 독일 맥주 순수법(1516년)은 맥주를 만들 때 반드시 몰트로 만든 보리와 물, 호프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독일 맥주 제조의 규범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개정된 맥주 순수법은 '몰트로 만든 곡식'으로 규정을 완화했고 이스트와 하면 발효 조항도 추가했다. 칼텐베르크 성은 중세 유럽에서 행하던 마상 창시합을 매년 재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할 일 없이 애마 부인, 애마 부군만 가리는 게 아니라 사라져

가는 다크 라거(Dark Lager)를 부활시킨 고마운 곳이기도 하다. 재산을 몰수당한 유럽의 다른 군주들처럼 루트폴트 역시 성에서 소일하면서 왕좌에 다시 오르기만 기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왕좌를 포기한 그가 선택한 것은 맥주 제조였다. 꼭지 비틀어지도록 술이나 처마시며 현실을 잊고 싶어하더라도 모르지만, 맥주의 천국인 남부 독일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맥주 시장에서 두 개의 주된 수요인 필스너와 밀맥주를 제조하기 시작한 그는 특별 메뉴로 다크 라거를 개발하기로 했다. 당시 다크 라거는 소멸 직전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점점 사라져가는, 촌빨 날리는 느낌의 구닥다리 맥주로 생각될 뿐이었다. 하지만 루트폴트는 다크 라거를 부활시켰다.

**일단 당신이 좋아하는 성 이야기부터(성 말고)**

칼텐베르크 성은 켈텐도르프 근처에 있다. 성과 마을 이름에 Kalt(칼트)와 Gelten(겔텐)이 있는 걸로 봐서 켈트족과 어떤 연관이 있는 듯 하다. 현재의 위치에 성이 자리 잡은 것은 13세기다. 그 전에는 로마

인들이 이곳에 망루를 짓고, 당시 유럽을 침입한 훈족을 격퇴했다. 처음에 지은 성곽은 스웨덴과의 30년 전쟁으로 파괴되어 16세기에 중건했다. 현재의 네오고딕풍 성곽은 1840년대에 지은 것이다. 백조의 성이라는 뜻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지은 건축가의 작품이기도 하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월트 디즈니의 모델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고주망태를 양산하는 양조 센터와 악마 같은 깜찍함으로 코뿔은 돈 탈탈 털어가는 디즈니랜드라니 참으로 그럴싸한 조합이다.



꿈과 희망이 돌는 칼텐베르크 성에는 해마다 말과 함께 저런 잉여짓을 하려는 사람이 모인다.

당시 바바리아의 모든 큰 저택과 성에서는 양조장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칼텐부르크에도 작은 양조장

이 있었다. 하지만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일꾼, 켈텐도르프의 작은 술집들에 공급하는 게 전부였다. 루트폴트의 아버지인 루트비크는 1950년대에 성을 사들였다. 당시 루트폴트는 뮌헨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가계가 어려워지자 양조장을 기업화하기로 결심했다. 양조장은 전형적인 19세기 양조장으로 담금(mashing)과 자비(boiling)를 위한 작은 용기가 바닥에 있고, 나무로 만든 숙성 탱크가 맥주를 천천히 숙성시키기에 알맞은 자연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바닥 아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루트폴트는 양조장을 확장했다. 그 결과 연간 생산량이 거의 4.8배나 뛰었다. 루트폴트는 생각했다. '오마, 나 이러다 곧~방 부자되겠네.' 그는 파란

바바리아 역시 유럽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맥주를 만들 수 없었다. 당연하지, 더우니까 그리고 냉장 기술이 발전하기 전이라 여름의 박테리아와 야생 이스트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16세기 바바리아의 법령 역시 4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맥주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3월이나 4월 초에 생산한 그해의 마지막 맥주는 알프스 근방으로 운송해와 얼음으로 가득 채운 동굴에 저장했다. 얼음은 주변 강과 호수에서 공수했다. 그때 저장된 맥주는 여름과 가을 초에 소비되었다. 얼음이 채워진 동굴 안에서 맥주를 낮은 온도로 보관하던 수도사들은 맥주가 추운 곳에서 천천히 발효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스트가 통 바닥에 가

로 한 중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이었다. 1950년대는 바로 유럽에서 중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다크 라거는 바바리아 북부 프랑코니아 지방에서 명맥을 유지할 따름이다. 이 지역에서 다크 라거가 살아남은 것은 비교적 지리적으로 격리된 곳이기도 하지만, 바바리아의 나머지 지역과는 다른 정체성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지방 사람들의 보수성 때문이기도 했다. 지금도 프랑코니아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작은 양조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양조장에 딸린 작은 선술집과 비어 가든을 위해서만 맥주를 만든다. 하지만 앞서 말한 루트폴트의 둔켈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에 자

“  
**한때 다크 라거는 사라져가는, 촌빨 날리는 구닥다리 맥주였다.  
 루트폴트는 그것을 부활시켰다.**  
 ”

색 타일로 장식한 방바닥에 동으로 만든 담금 용기와 자비 솥을 놓았다. 완성된 맥주를 담을 나무 캐스크(통)뿐 아니라 몰트와 홉을 저장할 창고까지 설치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뤼어슈텐펠트부르크에 있는 더 큰 양조장을 사들여서 칼텐베르크의 라거(둔켈, 헬, 엑스포트)와 뤼어슈텐펠트부르크의 말맥주로 생산을 이원화했다. 돈을 아주 쌍끌이 해버릴 기세로 말이다.

**둔켈 이전의 라거**

루트폴트가 둔켈을 부활시킨 덕에 맥주의 스타일은 더욱 풍부하게 꽃피울 수 있었다. 일단 공로를 치하하기 전에 누가 어떻게 뭘 만들기 시작했는지 알아보자.

상업적인 라거 제조 기술은 그 지난 세기 뮌헨에서 꽃을 피웠다. '수도사들이 있는 곳'을 뜻하는 뮌헨(München)이 변형되어 '뮌헨'이라는 도시 이름이 되었는데, 그 정도로 뮌헨에 사는 수도사와 수도원이 많았다. 아우구스티너, 파울러너, 프란치스커너 등 위대한 뮌헨의 양조장들은 수도사들이 세운 것이었다. 뮌헨 외곽의 바이헨슈테판 양조장 역시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시작했고 1040년 양조장을 설립한 이래 지금에 이르렀다. 수도사가 없었다면 맥주의 역사가 끝났을 거라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도하고 수양하라고 가뉘놓으니 수도사들의 잉여력이 대폭발하여 양조 능력자로 진화한 덕이다. 딱히 시킬 것도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군대에서는 뭘 시키니? 계속 땅을 파게 하지? 수도사들의 맥주를 향한 열정과 잉여 시간(그리고 아마 여자를 못 만나서 남아 도는 정력)은, 그들로 하여금 산에 삼을 꽃게 만들었다. 수도사들은 알프스 산지에 깊게 구멍을 파서 지하 저장고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맥주를 저장했다.

라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유레카! 차가운 온도와 알코올은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과 공중에 떠다니는 야생 이스트가 맛을 변질시키는 우월한 사건들로부터 맥주를 보호해주었다. 수도원 양조업자들이 저온 발효, 하면 발효 기술을 득템한 것이다! 오, 지저스 맹큐!

근대적인 라거를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뮌헨 슈파텐 양조장의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였다. 1834년 가브리엘은 슈파텐 둔켈 엑스포트를 내놓는다. 최초의 근대적인 라거였다. 당시 가브리엘이 사용한 것은 나무를 땀 불로 건조시킨 브라운 몰트(Brown Malt)였다. 최초의 근대적인 바바리아 라거는 오랜 숙성을 거쳐 반투명의 갈색이었던 걸로 전해진다. 1834년 이래 그가



만든 다크 라거 스타일은 뮌헨과 바바리아에서 전성기를 누린다. 오늘날 다크 라거를 가리켜 뮌헨 스타일 또는 바바리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래한다.

**다크 라거의 흥망성쇠(Rise and Fall)**

좀 더 색이 옅은 맥주(Pale Lager)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뮌헨의 보리와 경수(Hard Water)인 뮌헨의 물 때문에 만들 수 없었다. 다른 신기술이 등장해 이 문제를 해결해줄 때까지 페일 에일은 자리를 잡지 못했다. 1890년대에 이르러 페일 라거가 등장한 이후에도 다크 라거의 전성기는 계속되었다. 꽃이 피면 지고 달이 차면 기운다고, 한창 잘나갔던 다크 라거도 페일 라거에 자리를 내주는 굴욕을 겪게 된다. 1950년대에는 대중적인 인기에서 페일 라거가 다크 라거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다크 라거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당시 석탄과 철강을 중심으

극받은 많은 양조장에서 다크 라거를 앞 다투어 생산하면서 지금의 다크 라거 시장을 형성했다.

현재 다크 라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높은 루트비히 둔켈이다. 칼텐베르크의 페니히 루트비히 둔켈은 바바리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루트비히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맥주에 붙였다.



칼텐베르크의 대표 다크 라거 페니히 루트비히 둔켈

**그래서 맛이 어떨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맛' 이야기를 하자(그렇다고 종이를 찢진 마). 둔켈은 전체 당의 약 80%가 알코올로 전환된다. 분해되지 않는 당은 맥주에 남아 맥주의 보디와 맛을 진하게 한다. 다크 라거 계열의 다른 맥주에 비해 루트비히 둔켈은 덜 달다. 몰트는 필스너와 뮌헨 다크를 사용하고 소량의 볶은 보리(0.5%)를 첨가한다. 이때 볶은 보리의 겹질을 제거해 씹은맛이 나지 않도록 한다. 역시 여자와 보리는 겹질을 벗겨야 맛이... 아무튼 이렇게 만든 맥주는 10°C에 7일간 두었다가 4~6주간 숙성한다. 이때 단맛이 나는 맥아즙을 첨가해 2차 발효를 촉진하고 자연 탄산가스를 생성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노고 끝에 나온 루트비히 둔켈은 몰트, 초콜릿, 호프의 향이 풍부하고 몰트의 맛도 두드러진다. 끝맛은 신선하고 달지 않으면서 쓰다. 전반적으로 상쾌하며, 맛은 진하고 복합적이다. 맑은 페일 라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이 넘친다. 거칠고 씹쓸한 인생을 걸어온 마초남의 진한 향기를 내장 가득 채우고 싶은 가을날엔 다크 라거를 빨아보시길. 🍷

# HOT vs. BURN 불꽃대결

핫식스는 좋겠네. 2대1로 해서.  
 BY 유승민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S 김희현, 최성준 DESIGN 전은경

→ 백만 년 동안 음료 킹은 코카콜라였다. 2011년 1월, 세븐일레븐의 발표에 따르면 음료 매출의 무려 90% 이상을 콜라가 차지했다.(그 중 대부분은 코카사마) 그런데 그 아성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당시 매출의 3%에 지나지 않던 에너지드링크가 불과 1년 반 만에 50%에 육박하더니 아젠 에너지드링크를 빼곤 음료가 안 된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상반기에만 에너지드링크 926%라는 경이로운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수험, 취직 공부, 야근 때문이건, 밤새 클럽에서 흔들기 위해서건, 2012년 현재 대한민국 수컷들은 에너지드링크의 힘을 빌려 잠을 쫓고자 한

다. 에너지 음료 속 고(高)카페인인의 위험성을 까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카페인 함량이 높아 '효과가 좋아줄수록 더 불타나게 팔린다. 밤샘이 일상이니 MAXIM 에디터들도 이미 중독된 지 오래다. 100년 살 것도 아니고, 우리 MAXIM은 에너지음료의 유해성 따위엔 관심 없다. 건강 걱정은 <맨즈헬스>에 맡겨두고, 관건은 오로지 "에너지 드링크 짱은 누구냐"하는 것. 코카콜라를 발라버린 에너지음료 선봉장은 롯데 핫식스다. 대인배적인 1+1 마케팅이 주효했다. 안심할 순 없다. 롯데에 선행을 제대로 맞은 코카콜라가 자존심 잡고 빈인텐스를 내세워 똑같은 1+1

담핑 전략으로 핫식스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부탄가스통같이 생기긴 했지만 맛도 나쁘지 않다. 애초에 9월 한 달만 1+1 행사를 하겠다던 빈인텐스는 은근슬쩍 기간을 10월 10일까지로 늘렸다. 재미를 본단 얘기가. 엇그제 보니 또다시 10월 31일까지 늘어났다. 바람 탄 김에 핫식스를 완전히 꺾어놓자는 심산이다. 두 대기업의 에너지 드링크 쟁탈전으로 핫식스와 빈인텐스는 에너지음료의 투톱으로 자리 잡았지만 아직 진검 승부는 펼쳐지지 않았다. 곧 11월, 빈인텐스의 1+1이 끝나고 다이다이로 불기 시작하면 소비자는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결과가 궁금하긴 한데, 둘 다 1+1 대결은 어때? 이벤트 기간은 한 1년쯤..

속은 누가 더 빨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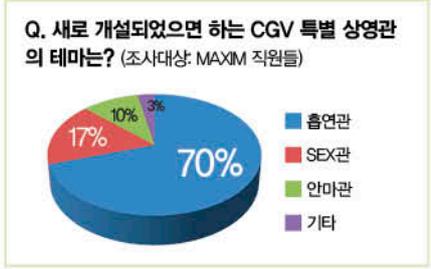


# 사업제안서

수신	CGV	발신(업체명)	MAXIM KOREA	작성자/직책	조용재/에디터
제안 사업 아이템		공극의 흡연관	제안 아이디어 단가		700억 원 품

## A. 사업 제안 배경

객관적인 기준에서 소비자들의 실제 희망사항을 보여주기 위해 당사 에디터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 B. 사업 제안: 흡연종결관 개설

의의: 명실상부한 지상 최고의 멀티플렉스이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공극의 영화관 CGV가 선도적으로 영화 상영 중 자유로운 객연을 허용. 실 곳을 잃은 천만 흡연인구의 탈출구를 마련.

효과 1. 천만 흡연인의 열렬한 지지를 갓하고 이들을 CGV 충성 고객으로 거저 흡수하여 입장수의 증대

효과 2. 단순 영화관을 넘어 CGV의 기업 이미지를 자유와 평등, 밖의 상징으로 승화

효과 3. 기대 입장수의 증가만 해도 연 3,000억 원대 예상

MAXIM과 CGV의 수익 배분율: MAXIM 30% / CGV 70% (우리 그렇게 돈 밝히지 않음)

### <세부 제안1> 부담없는 흡연 공간 창출

- 너무 깨끗한 상영관은 공초를 버리거나 가래를 뱉기 어려움 해결) 청소 안 하는 친근한 느낌으로 접근. 여기저기 말라붙은 가래침 디테일 인테리어로 고객이 부담없이 공초를 던지고 가래를 뱉을 수 있는 저변 창출 추가 제안) 영화만 보여주면 MAXIM 40만 독자들이 가서 인테리어 완성 가능 (축능중 독자 다수 보유)
- 부담없이 공초를 날리고, 바닥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유일한 공공 장소로 재탄생하여 각박한 금연 문화의 탈출구 역할을 수행
- 흡연관에 '흡연관'이라고 붙이지 말고 비흡연관을 '금연관'으로 분리

### <세부 제안2> 새로운 공연 관람 문화 창달

- 시사회 무대인사 시 영화가 끝나면 다 피운 공초를 일제히 배우에게 던지는 <공초 투척 이벤트> 실시. 배우가 잡은 공초를 던진 고객에게 푸짐한 경품 제공
- 청소비 절감 만으로도 연 10억 원대의 비용 절감 효과
- 하얀 공초가 일제히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비주얼 연출. CGV만의 새로운 박수, 응원 문화 정립으로, 한류 문화의 아이콘으로 우뚝 섬.
- 2002년 월드컵 응원 문화 전파로 미루어 충분한 가능성 있음
- 한류스타가 공항에서 공초비 세례를 맞는 진풍경 연출 가능

### <제안3> 흡연장면시 흡연욕구 해결: 담배연기 4D 체험관 등

- 흔들리는 의자, 방향 효과와 함께 배우 흡연 장면마다 얼굴에 담배 연기를 분사해주는 노즐을 설치. 1,000원 추가시 멘톨 향 추가 마케팅. 효과) 영화의 리얼리티와 극적 사실성 제고. 흡연 욕구가 느껴지는 시점에 이를 해소하여 관객이 끝까지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함.
- 후회 유발 SPOT 광고: 여친 땀에 어쩔수 없이 비흡연관에 간 고객 겨냥 영화 중 흡연 장면이 자막 삽입 예) 흡연관이었다면 지금 한 대 필 수 있지 >> 다음 번엔 흡연관 고객으로 전향함

흡연관이었다면 당신도 지금 한대 필 수 있지.

### <제안4> 흡연관 전용 스낵바 품목 제안

- 적정 가격 선에서 소비자들에게 흡연관 전용 담배 패키지 제공한다. 예) 스모커 콤보(소): 담배 1갑+컵라면(소)+캔 커피(15,000원/ 부가세 별도) 헤비 스모커 콤보(대): 담배 1갑+뽕글아아메리카노(33,000원/ 부가세 별도)
- 극장 내 가래제거제 소분날 판매: 거담제 판매 수익 연 200억
- 담배맛 제고를 위해 식후땀용 라면 패키지 판매, 상영관 내 라면 취식 허용

## C. 향후 계획/ 유사 사업 제안 가능성

본 사안이 검토 및 수락될 경우 본사는 수신인 CGV에 SEX관과 안마관에 관한 추가 제안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아마 눈이 번쩍 뜨일 거다 그냥.

\*본 제안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제안을 매기박스 측에도 넣을 예정이니 신속한 답신 바랍니다.  
\*본 제안서의 내용에 관하여 각별한 보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 제안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도로 있게 애누리 가능하니 너무 그렇게 달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 She's the Lady

◆ 빅마마를 꿈꾸는 보컬돌, 신인 걸그룹  
◆ 쉬즈가 하이힐을 신고 각선미를 제대로 뽐냈다.  
◆ 노래로 승부하기에 너무 예쁜 거 아냐?



촬영 현장은  
이런 분위기





BY 손안나  
PHOTOGRAPH ARC STUDIO  
HAIR 염진영(바이라 02-511-3373)  
MAKEUP 송화(바이라 02-511-3373)  
DESIGN 서운정  
FILM 최성준 ASSISTANT 최동희  
COOPERATIONS 금상현화(1544-3896)  
스와치비주(02-3149-9549)  
슈즈원(02-3443-1703)

## 쉬즈

멤버: 태연, 지영, 진아, 세연  
타이틀곡: U U  
방송: QTV <7번가의 기적> (태연, 진아)  
트위터: @official\_shez



원피스 금상첨화  
구두 슈즈원

## 진아

생년월일: 1989년 10월 10일

신체: 168cm, 48kg

파트: 소프라노

### 이상형

생각없이 없는 남자. 예를 들면  
소지섭?

그룹 내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것

시크한 차도녀



핑크의 '내 남자친구'에게 의상을 입고 'U U' 무대에  
선 걸 봤다. 복고가 콘셉트인가?

태연: 사장님의 아이디어다. 핑클 말고도 아직 18가  
지 콘셉트가 더 남았다고 하셨다.(웃음) 뭔지는 비밀  
이다. 무대를 보면 곧 알게 될 거다.

다른 걸그룹을 이길 수 있는 쉬즈만의 무기가 있다  
면?

진아: 우리는 멤버 전원이 메인 보컬이다. 각자 소프  
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로 음역대도 다양해서 다  
른 그룹과 달리 화음이 끝내준다!

소속사 라인 엔터테인먼트에는 김구라, 김국진 등 주  
로 MC, 개그맨이 많다고 들었다.

지영: 우리가 회사 1호 가수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다른 선배들도 우리를 신기하게 본다. 우리도 그분  
들을 신기해하고.

개인기를 전수하거나 예능 출연과 관련해 조언해준  
선배는 없었나?

세연: 한번은 윤희빈 선배가 연습실까지 찾아와 기  
린이랑 독수리 흉내 개인기를 전수하고 갔다.

지영: 열심히 연습 중이다. 먹이를 찾으러 가는 독수  
리가 있습니다. 먹이를 찾았습니다. 독수리가 먹이  
를 잡았습니다.(웃음)

태연, 진아는 <7번가의 기적>이란 프로그램에서  
3개월간 MC로 활약했다.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면?

진아: <청춘불패 2>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농  
사짓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넷 다 승부욕이 강해  
서 몸으로 하는 건 목숨 걸고 할 거다.

앨범 수록 곡 중에 '사랑 별 거 아니더라'라는 곡이  
있다. 정말 사랑이 별거 아니던가?

세연: 별거 아니더라. 학창 시절 때 정말 드라마 같  
은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친구한테 남자친구를 뺏긴  
거다.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그때는 정말 그 둘을  
무등산에 데려가고 싶었다.

## 태연

생년월일: 1990년 3월 17일

신체: 166cm, 46kg

파트: 메조 소프라노

### 이상형

질생긴 이동욱. 무슨 말이 필요해

그룹 내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것  
청순 가련



구두 슈즈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광주 사투리가 나오  
고 있다.

세연: 흥분하면 나온다.(웃음) 지금 흥분했다는 증  
거다.

다른 멤버들도 남자친구를 다른 여자에게 뺏긴 경  
험이 있나?

지영: 체력장을 하는 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  
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1,600미터를 울면서 뛰었다.  
혼자 슬픔에 젖어서 "나쁜 놈, 나쁜 놈" 하면서 한  
7분 뛰었나? 전교생이 다 수군댔다. "지가 '달려라  
하니아?' 하면서(웃음)... 그 후에는 둘 다 날 피하  
더라. 사랑 정말 별거 아니다.

한화이글스의 김태균 선수가 스위즈 팬이라고 들었다.  
어찌된 일인가?

세연: 회사 이사님이랑 친분이 깊다. 스위즈 팬이라면  
서 야구장에서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도  
보내주셨다. 플래카드에 직접 'SHE'Z LOVE'라고  
쓰고 하트 데커레이션까지 하셨더라. 우리 팀을 애  
뜻하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 감사할 뿐이다.

멤버 모두 혈액형이 B형이다. B형 여자의 장점이  
있다면?

진아: 화끈하고, 쿨하고, 뒤끝 없고, 단순하다.

태연: 기고 아니고가 확실하다.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해달라.

세연: MAXIM 화보가 군인들한테는 성격책 같은  
존재라고 들었다. 이번 기회에 먼저 국군 장병 여  
러분을 섭렵하겠다. 사물함에 우리 사진도 많이 붙  
여달라! 

## 세연

생년월일: 1991년 6월 11일

신체: 167cm, 47kg

파트: 알토

### 이상형

어깨가 딱 벌어진 공유 같은 스타일

그룹 내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것

허스키한 보이스와 몸매

구두 슈즈원  
팔찌 스와치비주얼



## 지영

생년월일: 1993년 5월 24일

신체: 165cm, 48kg

파트: 메조 소프라노

### 이상형

수컷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하정우 같은 남자

그름 내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것

상큼 발랄한 막내



구두 슈즈원  
팔찌와 반지 모두 스와치비주얼

# 2012

## 서울코믹월드 방문기

난 아직 멀었다...(털썩)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전은경  
COOPERATION 서울코믹월드(www.comicw.co.kr, 02-3142-2137)

**서**울코믹월드, 줄여서 '코믹'이라고 한다. 원래는 일본 소규모 만화 동인 행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5월 처음으로 열린 뒤 아마추어 만화 종합 행사로 자리 잡았다. 서울코믹월드를 '서코', 부산코믹월드를 '부코'라고 부른다. 코믹월드는 서울, 부산 각각 1년에 8번씩, 합쳐서 16번이나 열리는 데도 늘 붐빈다고 했다. 도대체 코믹월드란 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지?

### 이제야 알아버리다

에디터는 올해 초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와 아키하바라, 나카노 브로드웨이, 메이드 카페를 다녀왔다. 애니 덕후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발도장이라도 찍어보고 싶은 곳인 애니계의 성지를 다녀온지라 에디터의 콧대는 잔뜩 높아져 있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서울코믹월드는 웬지 시시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여울역에 위치한 SETEC 근처를 지나가다 그 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인파를 목격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다. 지나가는 여학생 한 명을 붙잡고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느냐"고 물었다. "오늘은 '서코'가 있는 날"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걸 아키하바라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 드레스 코드

지난 13일 토요일, 드디어 그날이 밝았다. 13, 14일 이틀간 양재 AI센터에서 112회 서울코믹월드가 열리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뭐 입고 가지?"란 걱정부터 밀려왔다. 클럽에 입고 갈 옷은 후보가 너무 많아 늘 고민이었지만 서울코믹월드에는 도대체 뭘 입고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닷뽀 스타일을 흉내 내기로 했다. 도쿄에서 공수한 교복 스타일 주름치마를 옷장 구석에서 꺼냈다. 그리고 교복 코스프레 느낌을 내기 위해 상의에 가디건을 걸쳤다. 전신 거울에 비춰 보니 뭔가 고딩스러운 것 같았다. 그래, 이 정도면 서울코믹월드에서 안 꼴릴 거야.

참가 동아리는 9시 반부터, 일반 입장은 10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일정표에 나와 있었다. 11시쯤 도착하면 한산하게 표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양재 AI센터는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입장권을 사려는 줄이 몇 바퀴를 돌고 돌아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름 고심해서 입고 간 닷뽀 스타일 교복 치마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했다. 평소에 입고 다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주 쳐다봐 잘 입지 않던 옷이지만 여기 오니 아주 평범한 옷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도쿄발 교복 치마 따위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풀 메이크업을 하고 보통이 넘는 솜씨로 재단한 코스프레 의상을 차려입은 코스플레이어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자니 뇌리에서 이 말이 자주 맴돌았다. '난 아직 멀었다...'





### 코믹월드의 꽃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서울코믹월드의 꽃, 코스튬 플레이어들이었다. 줄여서 '코스어'라 부른다. 보컬로이드, 환세취호전,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들을 코스프레한 걸로는 성에 안 차는지 크리넥스, 포카리스웨트 같은 무생물 코스어도 있었다. "도대체 포카리스웨트 코스프레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포카리스웨트 안에 들어 있던 코스어가 조그만 숨통 구멍을 열고 에디터에게 속삭였다. "평소에 포카리스를 좋아하고 만들기 쉬워서요." 크리넥스 코스어는 크리넥스 통을 얼굴에서 벗겨내기가 힘들었는지 각휴지를 덮어 쓴 상태로 "그냥..."이라고 말하며 에디터의 두 손에 사탕을 쥐어 주었다. "사탕은 도대체 왜 주는 건가?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 크리넥스 코스어가 답했다. "그냥..."



코스프레를 하고 싶다고 무작정 의상과 소품을 준비해 가면 되는 게 아니다. 코스프레 등록처에 가서 등록을 해야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 이를 '코스프레 등록제'라 하는데 코믹월드 행사장 안에서만 코스프레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집에서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오거나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미리 갈아입을 경우 강제 퇴장 및 귀가 조치하는 제도다.

코믹월드 행사 초기부터 코스프레 등록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코스프레 등록제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집에서 코스프레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거나 코스프레 차림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이를 '길코'라고 한다) 참가자들 때문에 시민들이 항의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도 코믹월드에서 코스프레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다.

### 코스프레 가이드

당신도 코스어가 되고 싶나? 그렇다면 이런 건 미리 숙지하고 가는 게 매너겠지?

1. 사람을 찾는 방송은 해주지 않으니 만날 약속은 정확하게 잡도록.
2. 과도한 노출은 금지되어 있다. 가슴이나 골반 부위 등에 노출이 있는 의상은 볼투명 소재의 속의상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봉대 같은 거 말이다.
3. 한국군, 미국군, 경찰복 등의 코스프레는 금지되어 있다. 이유를 물어본다면...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 유사 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2008년 12월 코믹월드를 찾은 한 관람객이 프리허그를 빙자해 백허그 후 코스어의 가슴을 만지고 도

### 흔한 코스어의 프로페셔널

코스어들에게 "사진을 좀 찍겠다"고 하자 흔쾌히 포즈를 취해줬다. 캐릭터의 주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포즈를 연습해 온 것 같았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멤버가 여러 명인 경우는 대열을 맞추어 섰다. 사진을 많이 찍히는 코스어들은 주위 코스어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간혹 사진 찍겠다는 요청을 거절하는 코스어들도 있었는데 이유가 다들 똑같았다.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에디터가 보기엔 충분히 준비를 마친 것 같은데 디테일한 분장이 덜 됐으니 준비를 마치고 찍겠다고 했다. 취미 생활치곤 굉장히 프로페셔널했다.



망간 사건이 있었다. 이후 프리허그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프리허그 비스무리한 행위도 금지. 5. 피규어 놀이도 하면 안 된다. 피규어 놀이는 피규어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포즈를 요구하거나 포즈를 바꿔주고 가는 거다. '서로 키스를 해라', '안아라' 등의 요구 혹은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금지. 6. 지나치게 크거나 끝이 날카로운 소품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아, 쇠파이프도 금지다. 2009년 이웃 블로거 B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A가 정체를 숨기고 낯선 아이티로 B에게 접근, 코믹월드에서 만나 선물을 주겠다고 불러내 쇠파이프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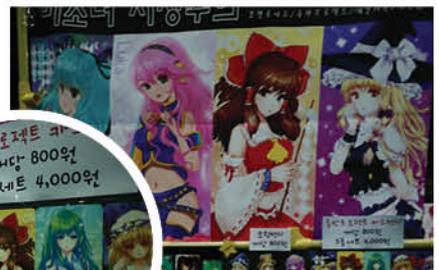
### 동아리 판매전

코스어들과, 코스어들을 보려고 몰려든 관람객을 헤치고 SETEC 안으로 들어가니 동아리 부스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각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소품을 사고팔 수 있는 동아리 판매전이 열렸다. 아마추어 만화, 애니, 캐릭터 종합 행사이니만큼 당연히 사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부스 중 가장 손님이 많아 보이는 곳의 판매자에게 물어봤다.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정체가 대체 뭐냐?” 대부분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용돈벌이도 할 겸 취미 생활로 하는 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내밀었다. 그는 강남에 있는 모 회사를 다니는 대리님이었다. 그는 에디터에게 “그러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다. “MAXIM 에디터”라고 하자 갑자기

화색을 띠며 “잡지 한 권만 보내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 에디터는 잡지를 보내주는 대가로 판매하고 있는 미소녀 팬시들을 독자 선물로 내놓으라고 했다(나 잘했지?).



코믹월드에서 게으름은 용서되지 않는다. 에디터가 부스에 당도했을 때 인기 상품은 이미 품절된 상태였다.



미소녀  
팬시가 갖고  
싶다면



### 코믹월드의 <슈스케>, 만화노래자랑

10월 14일 일요일, 서울코믹월드 둘째 날이었다. 어쩐지 토요일보다 사람 수가 적은 것 같았다. 어쩐지 조금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입장권을 내고 장내에 들어서니 웬걸, 사람들이 무대를 앞에 두고 빼곡히 앉아 있었다. 곧 만화노래자랑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슈스케> 생방에 맞먹는 열기였다.

만화노래자랑은 만화나 게임 주제를 부르는 행사다. 아무나 나갈 수는 있지만 선착순으로 22팀만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다. 지정된 날짜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빨리’ 보내면 되는 거다. 신청할 때 애니메이션명과 노래명을 정확하게 써야 하고, 애니 OST나 캐릭터 송일 경우 몇 화, 몇 초 부분에 나온 건지 밝히지 않으면 접수를 안 받아준다. 같은 신청서를 세 통 이상 보내도 안 받아준다. 그리고 무대에서는 한 팀당 1절만 불러야 한다는 룰이 존재했다.

이날 대상을 차지한 건 <비케모노가타리> 엔딩 중 ‘연애 서클레이션’을 부른 한세 님이 차지했다. 상으로는 코믹월드 1년 무료 입장권과 고급 과자 세트를 받았다. 그는 서인국이나 허각보다 더 기쁜 표정으로 앵콜 송을 열창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상과 인기상을 받은 참가자들을 모아 1년에 한 번씩 만화노래자랑의 지존을 뽑는 왕중왕전도 열린다. 갑자기 만화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 게 잘 부르는 건지 궁금했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가창력’이 심사 기준이라고 했다. 만화 노래라고 딱히 심사 기준이 다른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건 관람객 심사위원단과 코믹월드 진행단이었다. 관람객이 심사에 참여하는 방식은 <나가수> 청중평가단이나 <불후의 명곡> 판정단보다 여기가 먼저였다.

하지만 이날 1년 무료 입장권을 받은 대상 수상자보다 더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다. 바로 만화노래자랑에서 진행을 맡은 사회자 ‘성아’였다. 노래자랑이 끝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그녀에게 몰려가 사인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코믹월드의 연예인이었다. 몇몇

여자아이에게서 ‘나도 커서 꼭 저 언니같이 되어야지’ 하는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만화노래자랑  
대상 수상자  
의 위엄



# MAXIM 코스튬 어워드

서울코믹월드에서 포진하고 있는 수많은 코스어 중 에디터의 마음을 가져간 사람들.



**아이언맨**  
이름: 비밀  
직업: 학생

이거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나? 두 달 정도 걸렸다. 재질은 우레탄. 이거 아이언맨 2호다. 집에 1호도 있다.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나? 100만 원 좀 넘게 들었다. 아이언맨 1호는 50만 원 정도 들었다. 학생인데 100만 원은 어디서 냈나? 집이 원래 좀 살아서... 근데 땀은 안 차나? 통풍이 잘되게 제작해서 이 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더운 것보다는 옷이 무거워서 힘들다.

**선정 이유:** 집이 좀 산대서



**각시탈**  
닉네임: 각시탈  
나이: 비밀(좀 많다)

하필이면 왜 각시탈을 골랐나? 평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항일 감정이 좀 있다. 원래는 1인 시위용으로 준비한 건데 친구가 서울코믹월드에서 한 번 가보라고 해서 온 거다. 독도 홍보도 할겸, 1인 시위는 접은 건가? 하긴 하는 건가? 날짜 봐서 할 거다. 내년 광복절에 1인 시위 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을 거다. 근데 아까 오는 길에 각시탈을 한 명 더 만났다. 누가 진짜 각시탈인가? 아, 나도 봤다. 코사모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다. 코사모가 뭔가? 각시탈 비밀 조직 같은 건가? 코스프레를 사랑하는 모임.

**선정 이유:** 애국자라서



**<디지캐럿>의 우사다**  
닉네임: 잉녀 / 나이: 16  
경력: 9개월 차

'잉녀'가 무슨 뜻인가? 별 뜻 없다. 코스프레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나? 예전부터 애니를 좋아하고 예쁜 옷이 좋아서 하게 됐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 반응이 별로 안 좋다. "왜 그런 걸 하지?" 라고 했다. 당신이 예뻐서 친구들이 질투하는 거다. 이랑긋하지 말고 계속 당신의 길을 가라.

**선정 이유:** 예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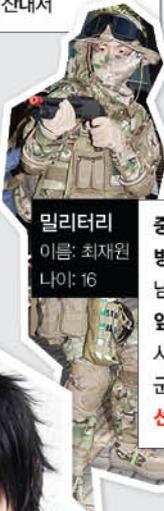
프... 프리킥트님? 닉네임으로 불러줘서 고맙다. 프리킥트는 세계 최초 전투 함선 이름이다. 코스계의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다. 스물일곱에 코스프레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하게 됐다. 코스어로서 당신의 꿈은? 게임, 제작 전문 코스어가 되는 것.

**선정 이유:** 뒤늦게 찾은 꿈 꼭 이루시라고

**<그랜드체이스>의 디오 버닝캐니언**  
이름: 김혁 / 나이: 27  
닉네임: 프리킥트  
경력: 5개월 차

옷이 비싸 보인다. 얼마나 들었나? 20만 원. 고등학교생한테 20만 원은 꽤 큰돈 아닌가? 용돈이 많아서 모았다. 부럽다. 언제까지 코스프레할 계획인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2년 동안 안 할 거다. 지금 고인대 무용과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 가면 다시 할 거다. 그때는 어떤 코스튬을 하고 싶나? <환상미궁>의 황룡. 30만 원 정도 들어서 이번엔 못됐다.

**선정 이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밀리터리**  
이름: 최재원  
나이: 16

중학생이 밀리터리 코스프레라니... 당장 병무청이라도 갈 기세다. 군인은 멋지다. 남자의 로망 아니겠나? 앞으로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부사관이 될 거다. 직업 군인이 되는 게 내 꿈이다.

**선정 이유:**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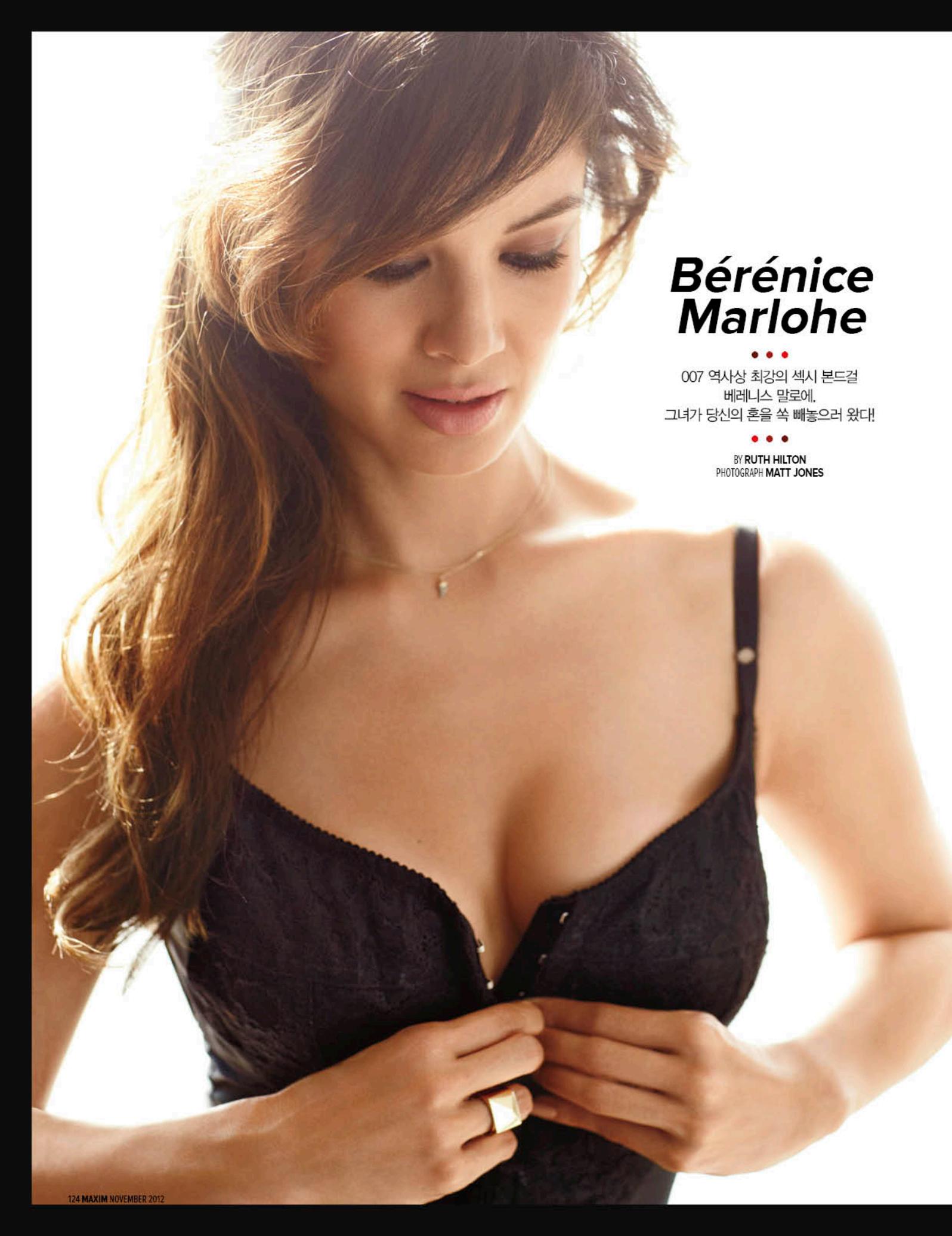
**<데스노트>의 엘모두 비밀**

언제부터 꾸지고 있었나? 발꿈치를 들고 있는 디테일이 쩐다. 말 시키지 마라. 예전에 인터뷰했다가 방송 탄 적이 있어서 인터뷰하면 안 된다. 근데 데스노트에 뭐라고 쓴 건가? 죽게 될 사람의 이름과 사인(死因), 죽을 날짜가 쓰여 있다. 직접 쓴 건가? 원래 공책에 써 있는 거다. 이런 거 인터넷에서 다 판다.

**선정 이유:** 디테일이 짙어서



**웹게임 <봉신연의>**  
이름: 김찬미 / 나이: 17  
경력: 1년 차



# Bérénice Marlohe

• • •  
007 역사상 최강의 섹시 본드걸  
베레니스 말로에,  
그녀가 당신의 혼을 속 빼놓으러 왔다!

• • •  
BY RUTH HILTON  
PHOTOGRAPH MATT JONES



007  
Heaven

# Bond.

## James Bond.

이 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영화 007이 벌써 50주년을 맞았다. 007의 23번째 시리즈인 <스카이폴> 역시 카리스마 넘치는 주인공과 눈이 휘둥그레지는 신묘한 무기,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다. 반세기를 장식한 007 시리즈를 위해 MAXIM이 특별히 준비한 것은 새로운 매력으로 당신을 매혹할 새 본드걸 베레니스 말로에다. 이 프랑스-캄보디아-중국 3국의 혼혈 미녀의 모습만으로 이미 우리의 시선경은 행복의 쇼크에 빠졌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

**<007 스카이폴>이 007 시리즈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자신 있나?**  
끝내주는 시나리오였다. 게다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캐스팅까지 갖췄다. 랄프 파인스, 대니얼 크레이그, 자비에르 바르뎀, 주디 덴치... 게다가 베레니스 말로에라니.(웃음)

**당신이 맡은 '세브린'은 어떤 캐릭터인가?**  
한마디로 '수수께끼' 같은 여자다. 선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스터리한 인물로 그려냈다.

**촬영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나?**  
음, 아쉽게도 대니얼 크레이그의 전신 노출신을 놓쳤다. 콧 죽어버릴까 보다.

**본드걸이면 액션에도 직접 뛰어들었을 텐데, 어떤 특별 훈련을 받았나?**  
격투 트레이닝도 받고 사격 훈련도 했다. 아주 큰 총으로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격왕이 되어 있겠군?**  
당연히! 예, 베이비!

**죽이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없나?**  
없다. 진정한 본드걸은 역시 싱글이야.

**MAXIM 독자들이 당신의 빈 옆구리를 채워줄 수도 있는데, 뭐 바라는 게 있나?**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가나 타이식 마

사지를 좀 할 줄 안다가나... 뭐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다면야 안 될 것도 없지! 바라는 게 좀 많나?

**요리라면 어떤 요리를 말하는 건가?**  
타이 요리나 이탈리아 음식 정도? 할머니들이 잘하는 정통 이탈리아인 파스타 같은 거 말이다. 디저트 역시 중요하다. 빼놓을 수 없지.

**수놈들이 당신에게 내뱉은 작업 멘트 중 가장 최악의 멘트를 꼽자면?**  
한번은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보더니 거들먹거리듯 근육을 꿈틀대고 느끼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당신을 유혹하겠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다. 그러고는 계속 나를 바라보며 걷다가 뒤에 있던 기둥에 얼굴을 박아버린 거다! 마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특별히 좋아하는 배우는 없나?**  
크리스토퍼 워켄. 그는 정말 타고난 연기자다. 그에게서 풍기는 카리스마는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만약 크리스토퍼 워켄이 당신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트림을 하고 방귀를 똥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행동 역시 워켄의 성스러운 애정 표현의 일부라 여기고 내버려둘 거다. 왜 그런 거 있지 않나. 아기가 똥을 싸면 엄마가 마치 선물이라도 받은 듯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의 더러운 행위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거다! 워켄님, 사랑해요! 보고 계신가요? 

뷰스티에 Damaris  
팬티 Eres  
귀고리 Joseph Mimi  
(앞 페이지)  
드레스 Dolce&Gabbana  
목걸이와 귀고리 Sydney  
Evan

•••  
“물론 총을 다루는 훈련도 받았다.  
아주 큰 총 말이다.”  
•••



태어난 곳  
프랑스 파리  
생일 5월 19일

• • •  
"진정한 본드걸은  
역시 싱글이어야 한다."  
• • •



브라 Carine Gilson  
팬티 Jenna Leigh  
재킷 L'Agence  
목걸이와 반지 Neil Lane



최고의  
본드걸을  
만나자!



# OFFICE SPY GUIDE

자꾸 재미없는 농담을 하는 상사, 늘 당신보다 잘한다고 칭찬받는 라이벌 동기,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을 골탕 먹이고 싶다고?

BY 김희성 MODEL 2011 미스백심 이명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속희

## 참고 자료 스파이 가이드

(H. 카스 멜튼, 크릭 필리핀 지음/ 임경아 옮김/루비 박스)

전 세계 첩보 요원들의 스파이 기술과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활동하  
는 실제 산업 스파이들의 기술을 분석  
한 책. 더 많은 실전 스파이 기술이 이  
책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섹시한  
스파이  
봤어?



※ 주의

따라하다 상사에게 미움을 받거나 사장님께  
퇴사 압박을 받더라도 에디터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니 인생 니가 알아서 하는 거~

# 1 동료의 컴퓨터 비번 알아내는 법

1. 컴퓨터 비번을 입력하는 아침마다 라이벌 동기(타깃) 근처에 얼정거려라. <무한도전> 얘기, <개콘> 얘기, MAXIM 얘기 뭐든 좋으니 아침마다 얘깃거리를 만들어 타깃이 비번을 입력하는 그 순간 무조건 옆에 있을 것.
2.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매일 한 개나 두 개의 암호를 알아낸다.
3. 알아낸 암호의 대략적인 순서를 매일매일 기록한다. 신념과 끈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4. 매일 관찰하다 보면 암호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때가 온다(진짜 온다). 이제 당신의 추리력을 발휘할 때다. 사람들은 대개 쉬운 비번을 설정한다. 비번을 잊어버렸을 때 그걸 다시 찾는 것만

큼 귀찮은 것도 없잖아?

5. 추리력이 떨어진다면 현대 문명의 도움을 받자. 인터넷 애너그램 사이트에 접속해 당신이 알아낸 글자를 입력하면 그 글자들로 가능한 조합을 알려준다. 대박 사이트 하나 건졌지? (옌다. 좌표는 [www.wordsmith.org/anagram](http://www.wordsmith.org/anagram)) 이 방법을 고안한 캐나다 연방 경찰 보안국 대원들에 따르면 훈련받은 스파이는 애너그램의 도움 없이 여덟, 아홉 번 만에 비번을 알아내고도 한다. 우리는 훈련된 네티즌이니까 네 번 정도면 되겠지?
6. 타깃이 자리를 비웠을 때마다 가능한 조합을 입력해보면서 경우의 수를 하나씩 제거해나가지.
7. 도대체 이 녀석의 하드에는 뭐가 들었길래 항상 칭찬만 받는 건지 훑쳐본다.

# 2

## 파쇄된 문서 복원하는 법

1. 문서 파쇄기 안에 있는 종이조각들을 준비해 간 포대 자루 안에 모아라. 이 쓰레기들을 모아 대체 어디에 쓰느냐고 하겠지만 중요한 서류는 모두 문서 파쇄기 안에 있다. 덜 중요했으면 파쇄하지도 않았겠지?
2. 파기된 종이조각들을 커다란 작업대가 있는 넓은 공간으로 가져온다. 조명도 환해야겠지? 우리 대부분 안경잡이들이니까. 종이조각들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 면장갑을 낄 것. 진짜 스파이 기본도 낼 겸.
3. 종이의 크기, 종이의 색상, 종이의 질감, 글자의 크기별로 종이조각을 분류한다.
4. 각각 분류한 종이조각들을 맞춰 서류를

복원한다. 한 번에 한 조각씩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임할 것. 한 장이 완성됐을 때 접착성 종이 위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라. 대부분 직장 상사들이 파기된 서류는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후후.

이게 웬 노가다냐고 화내지 마라. 1979년 이란 대학생들은 미국 대사관을 급습해 수톤 분량의 파기된 서류를 수집했고, 그 후 몇 년간 종이조각 퍼즐과 씨름한 결과 마침내 미 제국주의의 증거로 그들이 본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발간돼 미국 정부를 당황시켰다. 당신의 잉여력을 이런 데 발휘해보는 건 어때?

# 4

## 투명 편지 작성하는 법 1

1. 당신의 공범 스파이에게 비밀 메시지를 남겨야 하나? 그렇다면 일단 인공 눈물을 사라. 동네 약국에 가면 다 있다.
2. 인공 눈물을 면봉에 묻힌 다음 하고 싶은 말을 쓴다.
3.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공기 중에 말린다.
4. 메시지를 읽고 싶을 때 적외선 아래에 종이를 두면 된다. 레몬 물로 글씨를 쓴 다음 촛불에 비춰 보는 거? 그건 초등학교 <탐구생활> 할 때나 하는 거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번거롭네요.

## 투명 편지 작성하는 법 2

1. 굳이 레몬 물로 글씨 쓰던 추억을 떠올리고 싶다면 오줌을 준비한다.
2. 노란 국물이 하얀 국물이 될 때까지 수돗물로 희석한다.
3. 면봉에 희석한 오줌을 '적당히' 묻힌 다음 하고 싶은 말을 쓴다. 너무 많이 묻히면 종이가 찌글찌글해지거든.
4. 공기 중에 말린다. 습습후후.
5. 메시지를 읽고 싶을 때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하거나 뜨거운 전구 아래 종이를 두도록.



# 3 몰래 회의 녹음하는 법

1. 집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자동 응답기를 다시 꺼낸다.
2. 휴대폰 박대리가 조기 퇴근하지 않도록 빠방하게 충전해놓는다.
3. 집 전화번호를 폰에 단축 번호로 저장해놓는다.
4. 폰을 끄는 척하면서 단축 번호를 눌러 집으로 전화를 건다. 폰은 책상 위에 뒹겨놓는다. 이제 회의실에서 나는 대화들이 죄다 녹음되겠지? 이때 당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사장 욕이라도 하면 대박이다. 그 파일은 그대로 사장님께 투척.
5. 아, 휴대폰은 무조건 무음으로 바꿔놔야 된다. 누가 애니팡 하더라도 보내면 큰일 나니까.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드나드는지 알고 있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80퍼센트에 달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전화 통화와 음성 메일, 인터넷 사용, 이메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사장님이 보고 계서...

2001년 4월 P&G의 일부 직원은 산업 스파이를 고용해 경쟁사인 유니레버사의 쓰레기통을 뒤지도록 했다. 이를 알게 된 P&G의 경영진은 이 사실을 유니레버사에 통고하고 훔친 서류의 80% 이상을 되돌려주었다.



# 6

## 초대받지 않은 행사에 몰래 참석하는 법

1. 집에서 옷을 고를 때는 가장 평범한 옷을 택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고 올 법한 옷을 골라라. 그리고 보면 남들 눈에 안 띄는 것도 참 어려워.
2. 회의장에 도착하면 합법적인 증명을 확보해야 한다.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을 주시하자. 사람들은 보통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름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쓰레기통에서 주운 이름표를 부착한다. 하필이면 주운 이름표가 안철수, 박칼린같이 유명인의 것이라면 옷자락으로 살짝 가리면 된다. 참 쉽죠?
4. 입구가 아닌 출구를 확인하라. 행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구로 간다. 그때가 자리를 뜨는 참석자들로 제일 분주할 때거든. 출구가 여러 개 있다면 가장 혼잡한 출구를 찾아라.
5. 거꾸로 들어간다. 걸어 나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출구를 마이클 잭슨 문워크로 천천히 거꾸로 들어가면 된다. 아마 행사 관계자는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찾고 있겠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거다. 위에서 내려다봐도 그저 천천히 걷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 5

## 지출 보고서 불리는 법

1. 스파이에게도 활동비는 필요한 법. 지출 보고서를 불러 활동비를 벌여보자. 깔끔하게 작성해서 제시간에 제출하라. 글씨를 깔끔하고 예쁘게 쓴 답안지가 점수를 더 많이 받듯 보기 좋은 지출 보고서가 별 의심을 사지 않는다.
2. 영수증을 모은다. 사람들이 계산대 근처에 버리고 간 영수증을 찾아 모으자. 5천 원짜리 빵을 먹고 2만 원짜리 스테이크 영수증을 청구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1만 원어치 구입하고 3만 원어치 문구용품비를 청구하거나. 당신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1만 원을 썼는지 3만 원을 썼는지 누가 신경 쓰겠어?
3. 택시 운전사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그들에게는 빈 영수증이 많기 때문이다.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공란으로 된 간이 영수증을 건네줄 거다. 적당히 공란을 채워 총액을 불린다. 사실 당신은 지하철을 타거나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탔지만 말이다.

# 7

## 가짜 병결 내는 법

1. 다쳐라. 평소 신경도 안 쓰던 사무실 전구를 갈아 끼운다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발을 헛디딘다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라. 어떤 방법이든 좋다. 회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만 다치는 걸 보여주면 된다. 당신이 다쳤다는 소문이 회사에 널리 퍼져야 결근하기 쉽다. 주기적으로 병결을 내기 위해 평소 지병이 있는 것처럼 해도 되지만 그보단 갑작스레 외상을 입었다고 하는 편이 낫다. 지병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거짓말해야 하지만 이런 부상들은 보통 며칠 만에 치료되는 거니까.
2. 다친 시늉을 한 그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엄빠나 여친, 누나, 동생 중 아무나 골라 당신이 아프다는 전화를 해달라고 한다. 사실 이건 초딩부터 어른까지 사용하는 식상한 방법이라 대부분의 상사가 눈치채기 쉽지만 1번과 같은 사전 작업을 해놓은 상태라면 무사

통과가 가능하다. 아, 당신이 평소 꽤 착실한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면 이야기는 더 쉬워진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낙서를 해도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

3.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병가를 내는 데 성공했나?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쳐서 병가까지 낸 사람이 하루 사이에 다 나은 모습으로 출근할 순 없잖아?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면 오히려 더 의심만 사니 **다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4. 며칠 동안 다친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했다면 이제 다친 연기를 종료해도 좋다. 하지만 기왕 다쳤다고 뺨친 김에 땡땡이 치는 맛도 있어야겠지. 날씨가 좋으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해라. 그리고 나선 사우너를 가거나 근처 골프 연습장에 가서 시간을 좀 때우다 들어오는 거다.

### 다친 것처럼 보이는 법

1. 다친 관절에 붓대를 감는다  
병가 내기 전날 오른쪽 관절을 다친 걸로 연기했다면 오른쪽 관절에 붓대를 감아라. 이렇게 하면 관절의 움직임이 방해받아 선 자세나 걸음걸이가 바뀌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을 잊게 되는 법. 붓대를 오래 감고 있으면 느슨해져 당신도 모르게 절뚝거리던 오른쪽 다리를 멀쩡하게 편다든가 갑자기 절뚝거리는 다리의 방향을 바꾸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무슨 카이저 소제도 아니고

2. 깔창에 압정을 끼운다  
발목이나 다리를 다쳤다고 상사에게 얘기했다면 깔창을 뒤꿈치 부분만 잘라내 한쪽 신발에 끼운다. 거기에 압정을 끼워 뾰족한 끝부분이 위로 약간만 나오도록 한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따끔거리면 매 순간 당신이 부상 중이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3. 금속 자를 활용하라  
무릎을 다쳤다고 한 경우에는 무릎 뒤쪽에 금속 자를 대고 붓대로 감아라. 굳이 다친 연기를 하지 않아도 걸거나 앉을 때 무척

이나 불편해 보일 거다. 플라스틱 자는 부러지니까 금지. 무조건 금속 자를 준비할 것.

4. 어깨 보호대를 착용하라  
등을 다쳤다고 말했다면 탄력 있는 어깨 보호대를 사라. 동네 약국에 다 판다. 원래 어깨 보호대는 양쪽 어깨를 뒤로 던져 올바른 자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차면 어깨가 앞으로 당겨져 구부정한 자세가 된다. 평소 당신을 마음에 안 들어하던 직장 상사마저 당신을 안쓰러워할 거다. 쫓쫓... 젊은나이에..



소리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 세계 최고의 기관총 TOP5 MACHINE GUNS!

기관총이란 방아쇠를 당기면 탄환이 연속으로 발사되는 총을 뜻한다. 오늘날 전장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총은 전쟁사의 흐름을 뒤집어놓은 무기 중 하나다. 심지어 인류 최악의 무기인 핵폭탄보다 기관총에 사망한 사람 수가 더 많을 정도다. 이번 호 MAXIM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기관총 가운데 최고의 기관총 5정을 선정해보았다. BY 김대영 DESIGN 서윤정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언론 분야에 종사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http://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NO.1



## 맥심 기관총(Maxim Gun)

커피도, 집지도, 기관총도 역시

화력 ★★★★★

창의성 ★★★★★

유행 기간 ★★★★★

무게 27.2kg / 길이 107.9cm

총신 길이 67.3cm

사용 탄약 303 브리티시 탄(7.9mm)

발사 속도 분당 500발 / 운용 인원 4명



저게 이번 달 맥심임?  
아오, 다행네.

믿기진 않겠지만 현대 기관총의 아버지



**- 흠 잡을 데 없는 필방미인**

현대 기관총의 원형으로 꼽히는 맥심 기관총 (Maxim Gun)은 하이람 스티븐스 맥심 경(Sir Hiram Stevens Maxim)이라는 미국 발명가에 의해 개발되었다. 1883년 등장한 맥심 기관총은 탄환 발사 시 생기는 반동을 이용해 장전과 발사 그리고 탄피의 배출에 이르는 일련의 동작을 완전 자동화시켰다. 또한 탄띠를 이용한 탄환 공급으로 막강한 지구력을 자랑했다.

**- 본격적인 위력 과시**

맥심 기관총이 그 위력을 유감없이 선보인 시기는 1898년 9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움두르만 전투에서다. 영국-이집트 연합군 2만여 명과 원주민 5만여 명이 맞붙은 전투에서, 영국군은 최소한

의 피해를 입은 채, 맥심 기관총과 각종 화포를 이용해 2만여 명의 원주민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이후 벌어진 1905년 러일전쟁 당시에는 맥심 기관총 단 1정이 일본군 1개 대대(약 400여 명)를 전멸 시키기도 했다.

**- 지나친 유행이 낳은 지루한 참호전**

맥심 기관총의 위력에 놀란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맥심 기관총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강력한 살상력을 자랑하는 이 기관총의 등장으로 뛰어난 기동력을 자랑하던 기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버렸다. 결국 서로 눈치만 보게 되는 지루한 참호전이 종전까지 계속되었다. 맥심 기관총은 한국전쟁에도 사용했으며, 생산량은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NO.2

**M2 중기관총  
(M2 Heavy Machine Gun)**

중기관총의 절대 강자, 헤비머신/건

**화력** ★★★★★

**창의성** ★★★★★

**유행 기간** ★★★★★

무게 38kg / 길이 165.6cm

총신 길이 114.3cm

사용 탄약 12.7X99mm 나토탄

발사 속도 분당 485~635발 / 운용 인원 2~3명



M2는 원래 전투기용 기총으로 개발한 총이었다.



대체할 물건을 찾기 힘든 기관총계의 노익장

**- 중(重)기관총?**

7.62mm 탄약을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 사이즈의 탄을 사용하는 기관총은 경(輕)기관총이라 표기하고, 7.62mm 이상의 탄약을 사용하는 기관총은 중(重)기관총이라 한다. 중기관총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관총이 바로 M2 중기관총이다.

**- 사람이 쏘는 총이 아니므로**

미국이 낳은 천재적인 총기 설계가, 존 모시스 브라운(John Moses Browning)이 개발한 M2 중기관총은 앞서 소개한 기관총과 달리 본래 목적이 전투기에서 기총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대공화와 장갑 차량을 공격하는 기관총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 현역 뛰는 노익장**

M2는 수차례 교체 시도가 있었으나 천재 설계가의 완벽한 설계 덕분인지 1933년 개발된 이후 소소한 개량만으로 90여 년이 다 되도록 현역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NO.3

## MG42

히틀러의 전기톱

화력 ★★★★★

창의성 ★★★★★

유행 기간 ★★★★★

무게 11.57kg / 길이 112cm / 총신 길이 53.3cm

사용 탄약 7.92x57mm / 발사 속도 분당 1,200발

운용 인원 1~2명

길고 가는 총신을 자랑하는 '히틀러의 전기톱', MG42



뽕글이  
먹고 싶영

### - 맥심 기관총의 대안

맥심 기관총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놓은 혁명적인 무기였지만, 수랭식 냉각 방식을 채용한 탓에 무게가 27kg에 달하여 휴대시 4명의 병사가 달라붙어야 할 정도였다. 이에 세계 각국은 신형 기관총의 경량화를 추진했고, 독일은 1930년대 공랭식 경기관총 개발에 착수한다. 결국 무게가 맥심 기관총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MG34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MG34 기관총은 현재 30여 개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 - 다목적 기관총의 탄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등장한 MG42 기관총은 MG34 기관총을 개량한 것으로, '다목적 기관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또 빠른 발사 속도와 독특한 발사음으로 '히틀러의 전기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 - 전성기의 끝 그리고 화려한 부활

MG42 기관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명맥이 끊길 뻔했으나, 1959년 서독의 재군비와 함께 부활해, 7.62mm 나토탄을 사용하는 MG3 기관총으로 부활하는 데 성공한다. MG3 기관총은 현재 독일을 포함,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 FN Minimi

작고 귀여운 대량 살상무기

화력 ★★★★★

창의성 ★★★★★

유행 기간 ★★★★★

무게 6.85kg / 길이 10.4cm

총신 길이 46.5cm

사용 탄약 5.56x45mm 나토탄

발사 속도 분당 700~1,150발 / 운용 인원 1명



미니미는  
거꾸로 해도  
미니미

미니미 기관총은 세계 각국 군대의 분대지원화기로 사용되고 있다.

NO.4



### - 기관총 계열의 혁명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은 오로지 보병 홀로 운용이 가능한, 소총과 기관총의 중간 개념에 속하는 하이브리드 신형 기관총을 운영했다. 1938년 영국군이 채용한 브렌(Bren) 경기관총과 미군이 사용한 M1918 BAR(Browning Automatic Rifle)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분대별 1~2정씩 배치되어 분대 단위 전투의 혁명을 가져왔다.

### - 소멸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연사가 가능한 돌격소총이 각국 군대에 자리 잡으면서, 이들 기관총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게다가 7.62mm 탄을 사용하는 중(中)기관총은 일반적으로 무게가 10kg 이상으로 무거웠으며, 탄과 예비 총열까지 고려하면 사수 한 명이 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미니미 기관총은 무려 5.56mm 돌격 소총과 탄약이 호환된다!

**- 부활**

이에 1974년 벨기에의 FN(Fabrique Nationale)사는 5.56mm 탄을 사용하는 미니미 기관총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기존 기관총보다 작고 가벼운 미니미 기관총은 세계 각국 군대의 사랑을 받았고, 1984년에는 일부 개량을 통해 분대 지원 화기로 미군이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 군 또한 1989년부터 미니미를 참조한 '파발이' K-3 경기관총을 개발해 지금도 현역 병들이 짹짹거리며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NO.5**

**개틀링 건**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 무기

화력 ★★★

창의성 ★★★★★

유행 기간 ★★

무게 27.2kg / 길이 107.9cm

총신 길이 67.3cm / 운용 인원 4명

오늘날 기관총의 시초로 불리는 개틀링 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을 무참히 학살한 바 있다.



벌칸과 미니건이 개발되면서 개틀링 건은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기관총의 원조**

오늘날 만들어지는 기관총들의 고조할아버지 격인 개틀링 건은 1862년 미국의 리처드 조던 개틀링(Richard Jordan Gatling)이 개발했다. 무려 10개의 총신을 보유한 개틀링 건은 당연히 소총보다 빠른 속도로 탄환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탄환이 재장전되어 연속사격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동으로 크랭크를 회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4명의 운용 인원이 필요함에도 후레쉬맨 발칸포만 큼의 비주열적인 포스를 뽐지는 못했다.

**- 역사 속의 개틀링 건**

개틀링 건은 미국 남북전쟁 기간에 실험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성능에 질린 미군은 전쟁 이후 제식 무기로 개틀링 건을 정식 채택했다. 그 위력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1894년 동학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이 맞붙은 우금치 전투에서 화승총과 죽창으로 무장한 동학농민군이 개틀링 건에 무참히 학살된 기록이 있다. 마치 세계대전에 제다이 군이 참전하는 수준의 문화 충격과 다름없었다.

**- 도태**

수동 크랭크 회전 등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개틀링 건은 이후 맥스 기관총이 등장하면서 점차 도태되기 시작했다. 곧 사장되나 싶었으나 이후 개틀링 건의 작동 개념을 도입한 벌칸(Vulcan)과 미니건(Mini Gun)이 개발되면서, 개틀링 건은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M



**KING OF MACHINE GUNS JOHN BROWNING (1855~1926)**

칠십 평생에 무려 40년간 총기 제작 장인의 길을 걸어온 진정한 건 마스터. 이미 열 살 때 아버지의 창고 부품들을 끌어 모아 실제로 작동하는 총을 만들었으며, 스물세 살에 윈체스터와 계약해 만든 라이플은 지금까지 팔리고 있는 스테디 셀러다. 벨기에로 넘어가 FN에서 제작한 브라우닝의 전설의 역작 M1900은 출시 후 9년도 되지 않아 50만 점이

팔렸다. 이후 유럽에서는 '브라우닝'이라는 이름이 권총을 뜻하는 단어로 쓰일 정도였다고.

1900년대 초에 설계된 콜트나 M2는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 중이다. 실이생전 제작한 총기의 종류만 해도 100개 이상이라고 하니,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 총기의 왕이라 부를 수 있을 법하다.

# PARTY

OF THE  
MONTH



무아지경  
주화입마의  
현장



# DMIZ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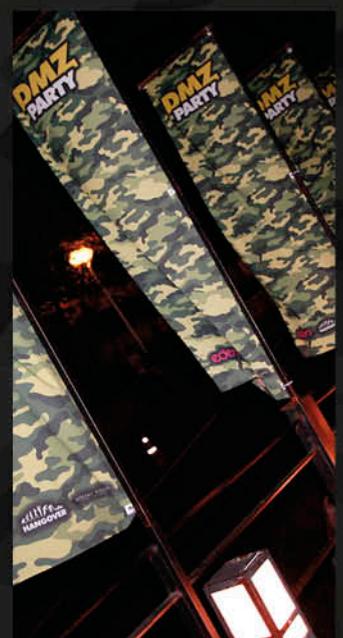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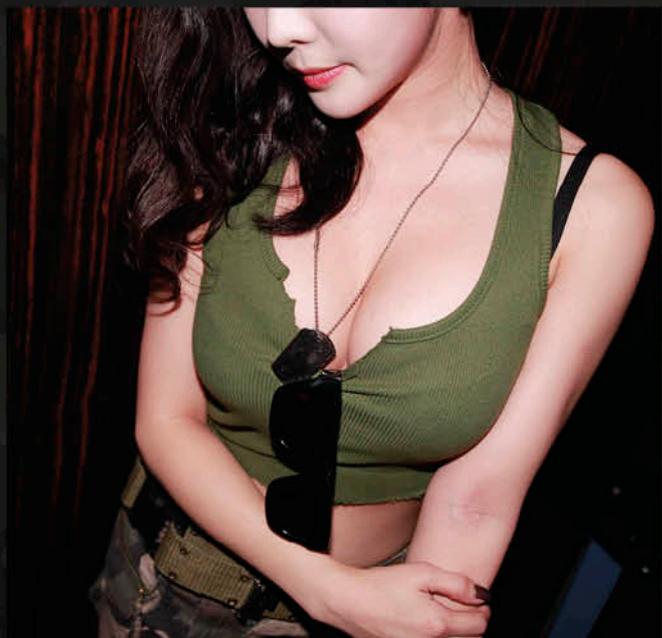
강남 한복판에서 이념 초월, 남녀 화합을 기원하는 파티가 열렸다.  
이곳에서 무장해제당한 민간인이 한둘이 아니었다지.

BY 김희성 DESIGN 신숙희  
PHOTOGRAPHS 홍영기, 구교민, 양태진, 권광덕  
COOPERATION YOU N I SOUND



**LONG TIME, NO PARTY!**

주말은 짧고 파티는 넘쳐 난다. 추석과 개천절에 꿈 같은 휴식을 취하고 맛은 첫 번째 주말도 그랬다. 10월 6일 토요일, 다들 개천절에 집에서 폭 쉬었는지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어느 때의 주말보다 많았다. 에디터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도록 놀고 싶었다. MAXIM이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파티에 가보기로 했다. 강남역을 배회하다가 리츠칼튼 호텔 지하에 위치한 CLUB EDEN에 갔다.





### DMZ PARTY?

이날은 DMZ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입구부터 개구리 무늬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봤어도 파티는 처음이었다. 이름만 들어서는 그다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았다.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왜 하필 파티 이름을 DMZ라고 지었느냐"고 물으니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심지어 파티 수익금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에게 기부할 거라고 했다. 마시고 흔들고 노는 걸로 선행을 하다니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에디터도 착한 일에 동참할 겸 일단 안으로 들어갔다.





**MILITARY SEXY!**

클럽 입구는 위장막을 둘러친 위병소로 꾸며졌다. 안에 들어가 보니 아예 군 부대로 만들어 놨다. 대형 스피커와 DJ 부스에 위장막을 치고 모래사대로 덮어버렸다. 통제구역 경고문까지 신경 쓴 디테일을 보니 이날 파티 주최자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게 틀림없었다. 게다가 바 위에는 군용 밥그릇에 담긴 건빵이 놓여 있었다. 클럽에서 좀체 보기 힘든 공짜 안주였다. 요즘 여자들은 군필자들을 선호하는 건지 예쁜 여자들도 몰밀듯 들어왔다. 밀리터리 콘셉트에 맞게 국방색 폴티, 개구리 무늬(좀 있어 보이는 말로 카 모플라주) 핫팬츠를 입고 왔다. 그걸로도 감개무량한데 국방색 민소매 티셔츠를 찢는 궁극의 센스까지 발휘했다(브라보). 하지만 무엇보다 대박이었던 건 클럽에서 한 번도 본적 없었던 5:5의 황금 비율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 MAXIM IN DA HOUSE

가만히 앉아 보드카만 마실 수 없었다. 에디터도 그들의 센스에 보답하기로 했다. 밀리터리 룩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섹시한 그녀들에게 MAXIM 10월호를 마구 뿌려달라고 했다. 표지 모델이 강예빈이라 그렇지 그 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서점에서 실시간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10월호가 아깝지 않은 열기였다. 허리춤에는 바카디가 든 수통을 차고 있었다. 제발 한 입만 달라고 아우성치는 클러버들의 입에 직접 바카디를 넣어주었다. 휴가 나온 군인도, 그저께 입대 영장을 받은 사람도, 예비군도 하나 되어 파티를 불살랐다.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포스터에는 “서로의 눈치도 보지 말고 경계도 하지 말고 신나게 즐기라”고 써 있었다. 뽕뽕드링크를 원샷한 것처럼 숨이 가빠졌다. 우유주사를 맞으면 이런 기분이라냐? 



# GGK 2012

## Put Your Hands Up

제법 놀 줄 아는 Girls & boys는 여기 다 모였더라.  
 BY 손안나 PHOTOGRAPH ARC STUDIO FILM 조용재 DESIGN 전은경

현장  
 분위기를  
 영상으로



Daze47

지난 10월 5, 6일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열린 글로벌 개더링 코리아 (GGK) 2012. 몇 해 전만 해도 다들 “글로벌 개더링? 그게 뭐임, 먹는 거임?” 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새 GGK는 대한민국 대표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다. 대목 행사를 놓칠 수 없었던 에디터도 데이비드 게타의 무대가 있는 5일, 불나방처럼 이곳에 뛰어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좀 놀아봤다 싶은 남녀는 다 모였다 싶은 정도로 화끈한 분위기였다. 컴컴한 밤에 선 글라스를 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본 것도 처음이었다. 다들 최소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는 필살 페스티벌 룩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밀지 마, 이년들이





### GGK 관전 포인트 #1 DANCE

Shut Da Mouth, Kaz James, David Guetta 등 세계 정상급 DJ들의 무대는 메인 스테이지, 서브 스테이지, 스미노프 스테이지까지 총 3곳에서 진행됐다. 특히 바로 마주보고 있는 메인 스테이지와 서브 스테이지는 공연이 번갈아 진행되면서 설 틈이 없이 계속 음악을 틀어댔다. 재미있는 건, 메인 스테이지와 서브스테이지를 이쪽저쪽 옮겨 다닐 때도 사람들은 그냥 걷는 법이 없다는 점, 다들 자신만의 스템을 밝으며 춤을 추면서 움직였고, 정상 인처럼 걸으면 어쩐지 찌질이가 될 것 같은 기분에 에디터도 분위기에 맞춰 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몸 아프다,  
빨리 짚어라...

**GGK 관전 포인트 #2 WOMAN**

행사장 곳곳에 수많은 홍보 부스가 있었지만 특히 소주 누나, 에너지 음료 누나, 담배 누나의 미모 대결이 볼만했다. 그중에서도 원더걸스 소희를 닮은 참이슬 홍보 카의 DJ 누나는 지나가던 못 남성들이 음악을 포기하고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미모였다.

한국인을 보고 흥을 아는 민족이라 했던가? 밤이 깊어가고 페스티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필에 취해 몸을 흔드는 관객이 많아졌다. 객석에 설치한 기동을 이용해 봉춤을 추는 한 은혜로운 여인도 있었다. 집에서 연습하고 왔을 게 분명한 고난도였다. 그녀의 원맨쇼가 끝나고 남자들은 환호성과 기립 박수로 관람료를 대신했다.



최, 최고!





**GGK 관전 포인트 #3**  
**MUSIC**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갈 새벽녘. 이곳저곳 흩어져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페스티벌을 즐기던 사람들이 메인 스테이지로 모이기 시작했다. 새벽 1시에 있는 헤드 라이너는 한때 춤 놀아본 에디터가 신처럼 떠받드는 그 유명한 DJ 데이비드 게타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옆 무대에서 존 오컬러 건이 리믹스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흘러 나오자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말춤으로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랭킹 1위의 DJ를 만나기까지 약 5분여를 남겨둔 시점이었다.



John O'Callaghan



David Guetta



Otto Knows

그리고 곧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를 연상시키는 익숙한 전주가 울려 퍼졌다. 게타의 최대 히트곡 'Titanium'이었다. 사람들은 점프하듯 무대위로 튀어 오른 게타의 등장에 열광했고 마치 오늘을 위해 1년을 기다렸다는 듯 온 몸으로 음악을 느끼기 시작했다. 후렴구 'Fire away' 때침에는 게타도 흥분한 것 같았다. DJ 박스 위로 올라간 그는 영락없이 신홍무홍 종교의 교주였다. 'Sexy Bitch'에서도 관객들은 정말 Sexy Bitch에 한이라도 맺힌 듯 우렁찬 때침을 보여주었다(다들 마음속에 미친 년 하나쯤은 품고 있나 보다).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새벽 3시. 다이내믹한 선곡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2시간 내내 지루할 틈이 없는 무대를 만들어준 게타에게 관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겠다는 말을 남긴 게타, 부디 그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다음엔 더 화끈하게 놀아줄게. 



# H

Women,  
Dating,  
Sex, and  
More Sex!

# T

# SAU

## The Helpful Hottie

2012 미국판 MISS MAXIM인 훠타운 하티스의 결승 진출자  
젤레나 코스틱이 몇 가지 폭탄급 정보를 당신에게 투척한다!

PHOTOGRAPH ZOE McCONNELL



왜 여자들은 신발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 에릭 골드

모든 여자들은 신발에 열광하는 유전자를 타고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100켤레 넘게 가지고 있는 걸요.

저같은 남자도 냄새나는 친구들로부터 벗어나 당신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 코너 홀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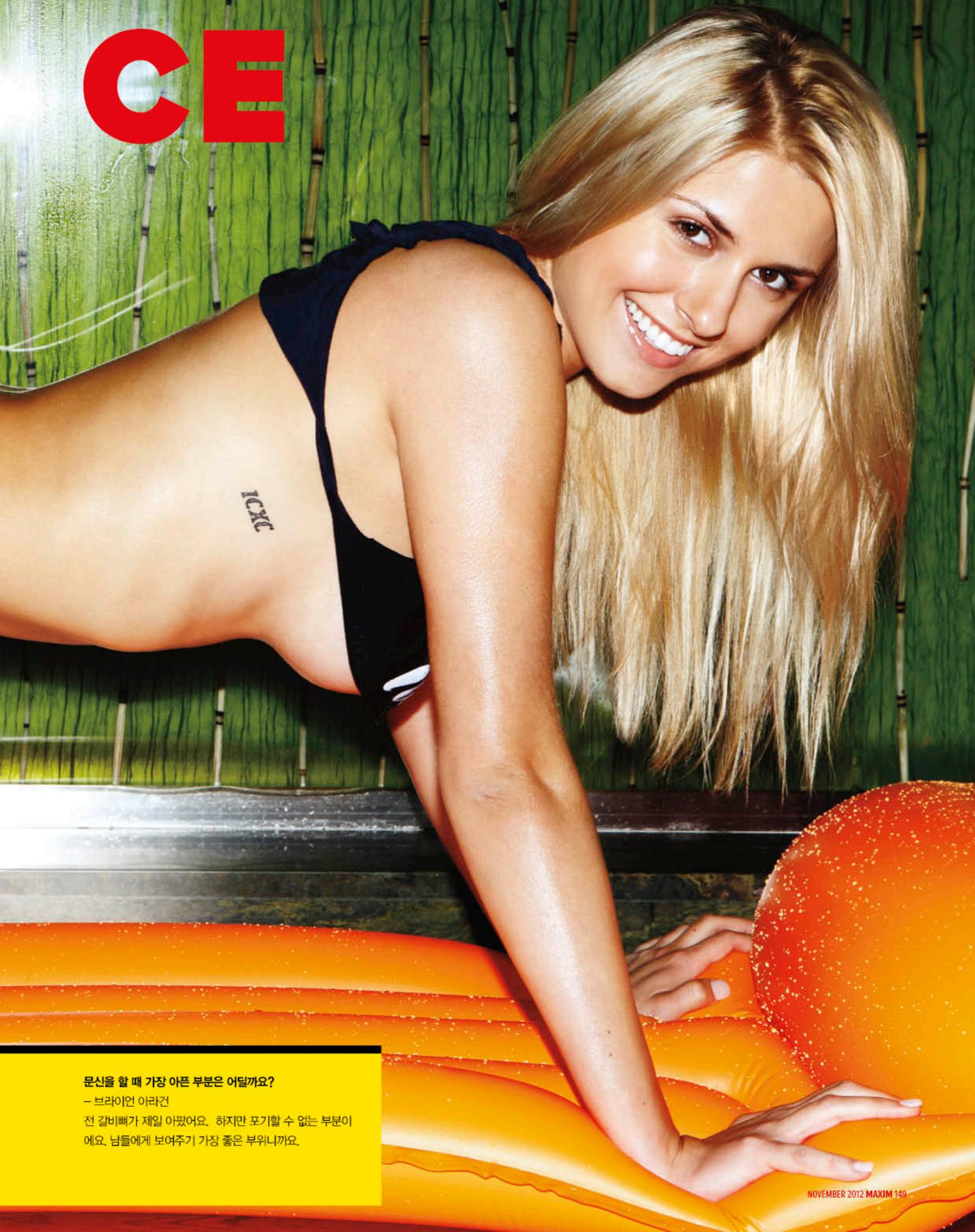
당연하죠. 하지만 가볍게 놀아 볼 여자 찾는다고 불일친 구를 버리면 안 돼요. 실패하면 친구만 잃을 테니까요.

식은 피자라 갓 구운 뜨거운 피자 중 어떤 걸 더 좋아하

나요? - 알렉스 해밀튼

어려운 결정이군요! 저는 둘 다 좋아하지만, 솔직히 식은 피자 위에 있는 차가운 버섯 토핑은 좀 역겨워요.

# CE



문신을 할 때 가장 아픈 부분은 어디까요?

- 브라이언 아라건

전 갈비뼈가 제일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가장 좋은 부위니까요.



## 발상의 전환

수갑을 채우고 채찍을 휘둘러야만 SM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 야동을 너무 많이 봤다.

BY 김희성 DESIGN 서윤정

### 개인의 취향

사람마다 죽어도 포기 못하는 브랜드와 죽어도 사기 싫은 브랜드가 있듯 섹스에도 개인의 취향은 존재한다. SM 플레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영화에서 너무 하드코어한 것만 보여준 나머지 많은 여자들이 SM 이야기만 나와도 남성들을 변태 취급한다. 그래서 여친이랑 SM 플레이를 즐기고 싶었지만 변태 취급 당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잠자코 있었던 남자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그거, 그녀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다. 당신이 잠재돼 있는 그녀의 성적 취향을 깨닫게 해준다면 상황은 역전될 거다. SM 플레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코드만 알아도 일상 속에서 SM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 거친 남자가 인기 있는 이유

평소 그녀를 부드럽게만 다뤘다면 당신의 거친 남자버전에 더 흥분하게 될 거다. 굳이 M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자들은 섹스할 때 남자의 거친 모습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몸을 터치하는 손길에 힘을 실어보자. 손목에 살짝 힘을 주는 정도도 괜찮다. 그녀의 양 손목을 평소보다 세게 친다거나 키스할 때 엉덩이를 꼭 친다든지 하는 식

이다. 여기서 강약중강약까지 조절할 줄 안다면 여친이 당신을 사별백 떠받들듯 할 거다. 섹스에도 강약이 중요한 법이니깐.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끝낸다거나 강하게 시작해서 부드러운 마무리를 짓는 거다. 평소 부드러운 손길에만 익숙해져 있던 그녀의 몸에서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게 될 거다. 특히 강약중강약 중 '강' 모드에서 그녀가 어쩐지 더 흥분하는 것 같다면 그녀는 확실히 M이다. 다른 걸 좀 더 시도해 보자. (아, 매직스틱에 힘을 주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한결같이 자상한 성격의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내가 아무리 징징거려도 늘 받아주고 한번도 큰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폭 빠졌던 진짜 이유는 침대에서만큼은 야생 수컷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강제로 벽에 밀어 붙이는 건 기본. 그의 품에서 빠져 나가려고 발버둥쳐도 양쪽 손목을 꼭 잡은 채 놔주질 않아 매번 순순히 그의 리드를 따르곤 했다.

하루는 날을 잡아 벽면이나 천장이 거울로 되어 있

는 방을 고른다. 그녀를 데리고 가 평소 하던 것처럼 한다. 그녀가 거울을 보면서 하는 걸 더 즐기는 것 같거나 평소보다 더 흥분하는 것 같다면 M일 가능성이 99.9%다. 거울방을 강추하는 이유는 그녀에게 그녀 자신이 모르고 있던 섹스 성향을 깨닫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학, 피학적 섹스 성향을 모르던 사람들도 '수치플레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지만 왠지 모를 쾌감과 흥분을 느끼게 되는 식이다. 그날 이후 그녀가 은근히 거울 있는 방을 기대하는 것 같다면 조금 더 센 걸 시도해 봐도 좋다.



섹스할 때의 내 표정이 어쩐지 그에게 내 몸매가 어떻게 보일지 항상 궁금했다. 그러던 차에 그가 갑자기 천장 전체가 거울로 된 MT로 나를 데려갔다. 누워서 천장을 보니 내 위에서 움직이는 그의 모습과 그 아래 깔려있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그런 내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보이고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그럴수록 점점 더 흥분됐다. 베르사이유 궁전에 거울방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평소 그녀를 부드럽게만 다뤘다면 당신의 거친 남자버전에 더 흥분하게 될 거다. 굳이 M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자들은 섹스할 때 남자의 거친 모습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 “오늘은 신체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녀가 거울에 흥분하는 걸 알았다면 이전 아예 당신이 거울이 되어 그녀를 살살이 훑어 보자. 그녀의 옷을 훌쩍 벗겨 놓고 찬찬히 뜯어보는 거다. 그녀가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만 딱히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녀도 좋아하는 거다. 그녀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고 망설일 필요도 없다. 그거 부끄러워 하면서 좋아하는 거다. 손과 입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녀를 흥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니 정말 파곤하고 귀찮을 때 사용해도 좋을 듯. 당신이 자신의 M성향을 알아줘서 기뻐 죽겠는데도 “왜 그래”, “싫어”, “웃 입을래”라는 멘트를 두 세 번 정도 할텐데 그건 내숭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진짜 싫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색을 하며 옷을 주워 입었겠지. 자, 다음 단계로 고고성.



옷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나를 추궁할 때가 가장 흥분된다.

SM 플레이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 중 하나는 눈을 가리는 거다. 하지만 몇 번의 실험을 통해 그녀도 눈 가리는 걸 좋아할 거란 걸 잘 알고 있고 있다고 해도 막상 안대나 넥타이를 내밀기는 어려운 법이다. 일단 그녀의 옷을 벗기면서 브래지어나 티셔츠를 슬쩍 그녀의 얼굴 쪽으로 던진다. 옷이 눈을 가리는 위치에 오도록 위치를 맞춘 뒤 그리고 난 뒤 그녀의 손목을 꼭 잡고(1단계 복습) 다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 나간다. 그녀의 손목을 잡으라는 건 눈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는 옷을 못 치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눈을 끔꿍 싸매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일단 눈이 캄캄한 게 눈 가리는 효과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그건..



눈을 가리면 몸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눈 가려달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해 실수한 척하고 이불이나 베개로 눈을 슬쩍 가리곤 한다. 넥타이는 품으로 하고 다니니?

수치 플레이를 조금 더 응용해 보자. 그녀와 데이트 약속을 정할 때 노팬티나 노브라로 나오라고 한다. 팬티를 입지 않고 미니스커트를 입는대신 브래지

어를 하지 않고 티셔츠를 입는 차림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속옷을 입지 않은 그녀와 일상적인 데이트를 즐기는 거다. 노팬티+미니스커트 차림의 그녀를 클럽에 데려 가도 좋고, 단지 속옷만 안 입었을 뿐이지만 데이트를 하면서 당신은 물론 그녀도 잔뜩 달아오를 거다. 팀을 하나 주자면 노브라보다는 노팬티로 나오라는 요구가 훨씬 더 잘 먹힐 거다. 노팬티가 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브래지어를 안 하면 아무리 숨가가 있는 여자라도 빈약해 보여서 별로거든. 실제 수치 플레이 중에는 옷을 벗긴 채로 밖에 데리고 돌아다니기 같은 현실 불가능한 미션들이 있지만 그런 건 아동에서나 보고, 이렇게 응용하면 일상에서도 쉽게 SM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미니스커트에 속옷을 입지 않고 나간 적이 있다. 그와 나란히 걸어가는데 그에게 조종당하는 느낌도 들고 사람들이 그날따라 나를 더 흠뻑흘끔 쳐다보는 것 같아 이상한 기분이었다. 노팬티에 하이힐을 신고 밖을 걸어 다니자니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느낌이 들어 창피하기도 했다. 당장이라도 그와 어디든 들어가고 싶었다. 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다.

수치 플레이도 수치 플레이지만 SM 플레이 중의 꽃은 역시 체벌 플레이다. 하지만 SM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벌 플레이까지는 옹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SM 플레이 관련 카페에 가보면 가입 인사란에 자기 소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신이 가능한 플레이와 싫은 플레이를 구분해서 기재한다. 그 중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신은 M이지만 아프게 맞는 건 싫다고 했다.(희성씨, 그녀 저나 거긴 왜 가봤어? -편집장-)

여기서의 체벌은 무작정 때리는 게 아니다. 체벌을 받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 진짜 때리는 대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자. 그녀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농담처럼 스리슬쩍 던져야 한다는 게 포인트다. 굳말없이 당신이 내리는 벌을 받거나 일부러 고토리 잡힐만한 행동을 하고 당신 눈치를 본다면 그녀도 벌 받는 걸 즐기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은 그 때마다 벌을 주기만 하면 된

다. “넌 약속 시간에 1분 30초 늦었어. 그러니 내게 벌을 받아야 해.”



사소한 이유로 그에게 벌을 받았다. 가벼운 벌이었다. 사실 어떤 벌을 받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내가 뭘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벌을 받는다는 상황 자체가 흥분될 뿐이다.

위에서 말한 걸 거의 다 해본 사이라면 서로가 SM임을 알아보고 활발한 플레이를 즐기는 커풀일 거다. 수갑이나 족쇄 같은 걸 한번쯤 구해보려고 한 적도 있을 거다. 하지만 구해 버튼을 누르는 데까지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무작정 배송시켰다가 눈치 없는 부하직원한테 택배 상자를 개봉하는 친절을 베풀지도 모르고 집으로 배송했다가 엄마에게 들기라도 하면 큰일이나. 제품 수령까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관하기가 더 만만치 않다. 좀 생뚱맞긴 하지만 수갑을 대신할 아이템으로 랩이 진짜 훌륭하다. 부엌에서 쓰는 랩을 가져와 그녀의 두 손 두 발을 칭칭 감아라. 면적이 넓으니 묶어도 안 아프고 웬만큼 힘을 쥐도 끊어지지 않는다.



예전에 밧줄로 묶인 적이 있었다. 흥분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손목과 발목에 엄청난 힘을 썼는지 밧줄로 묶은 자리가 쓰리고 아팠다. 살살 묶는다고 묶었지만 상처가 났다. 아픈 건 딱 질색인데. 그런데 요즘 만나고 있는 남자는 특이하게 랩을 사용한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묶인 채 아프지 않아서 좋다. 애용하고 있다.

SM 플레이에 한창 몰오른 독자들에게는 미안하다. 초보자를 위한 SM 플레이 이야기가 매우 시시하게 느껴졌을 테니까. 걱정마라. 곧 중급, 고급을 위한 SM 가이드를 실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궁금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봐도 좋다. 자, 에디터의 메일 주소 투척. [alice@maximkorea.net](mailto:alice@maximkorea.net)





WHO'S THAT GIRL



화성인  
하이킥의  
**V걸 한승이**

화성인이든 아니든  
섹시하면 감사하죠.

BY 조용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속희 FILM 최성준 HAIR&MAKEUP 이현정  
COOPERATIONS 슈즈원(02-3443-1703)  
샤트렌(02-579-4242) 도니체타(02-3475-1134)  
게스 언더웨어(02-914-9006)  
금상첨화(1544-3896)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화성인 바이러스〉로 화제가 되었지만, 원래는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고?

지금도 본업은 레이싱 모델이 맞다. 요즘 워낙 레이싱 모델류의 일이 많이 줄어서 부업 비슷하게 화성인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주업인 줄 아나 보다.(웃음)

방송이 나간 뒤 본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그런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가끔 신기하게 인터넷 댓글을 보면, 지금처럼 그냥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사진에도 "어, V같이다"라고 리플을 다는 사람이 있긴 있다.

가슴 사이즈로 이슈가 되었다. 심지어 키우고 싶다고?

보통 여자를 생각이 그렇지 않나 싶다. "더 크면 어떨까?" 하는 거지 사실 "무조건 키워야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방송이니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 거지. 관리하는 꾸준히 하고 있다. 사실 조금 작아져도 상관없다. 더 커지면 답답할 것 같아서.(웃음)

## ↓ SHE WAS HERE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요상한 기발과 의상을 착용하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여성 출연자들을 외모로 족족 쳐바르던 V걸, '넵넵'로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여자다.



**김성주, 김구라, 이경규가 괴롭히지는 않나?**  
 나와 그다지 친분이 두터운 분이 아니라...  
 김성주 씨는 그나마 우연찮게 자리가 가까  
 워서 가끔씩 얘기하곤 하지만 대가실도 다  
 르고 딱히 친해질 일이 없다.

**방송에서 강남스타일녀가 당신을 디스했  
 다. 까고 싶진 않던가?**

방송이 나가고 영등포에 사는 친구들이 영  
 등포 자체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발끈했다.  
 대표적인 영등포 스타일로서 "내가 더 잘  
 났어"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서 씁쓸하더라. 영등포 주민들의 기를 못  
 살려줘서 미안하다.(웃음)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V결?**

V결은 프로그램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다.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으면 허전한  
 캐릭터지. 연기자로 데뷔, 뭐 이런 걸 노리  
 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럼 화성인에는 왜 출연한건가?**

연예인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  
 한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타고난 끼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다  
 른 분야에 몸담고 있는 나 역시 갑자기 MC  
 를 본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연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  
나를 좋아하는 남자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

오늘 클럽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콘셉트의 화보를 진행했다. 실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먼저 대서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귀는 타입이다. 고백을 받는 타이밍에 마침 내가 남자친구가 없다면 거의 OK하곤 했다. 거절을 못한다.(웃음)

**좋아한다. 사귀자.**  
미안 거절한다.

**활동한 경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  
레이싱 모델로 3년 정도 활동했고, 예전에는 사진 모델로 4~5년 활동했다.

**특이한 경력사항 같은 건 없나?**  
TV 출연 같은 특이한 이력은 없지만 전공이 특이하다. 군 관련 학과를 공부해 졸업하고 나서 하사가 될 뻔했다. 하지만 합숙하고 정복을 입고 다니는 생활을 더 하려니 눈앞이 캄캄해 도망 나와 모델이 되었다.(웃음)

**서울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다.**  
땅 끝에서 올라왔다. 원래는 해남 출신이다. 사투리 안 쓰니까 신기하지?



## WHO'S THAT GIRL

### 좋아하는 남성상은 어떤 타입?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배려심이 많은 남자?(웃음) 길을 걸을 때 나를 안쪽으로 두고 걷는다든가. 근데 그런 세심한 남자는 비람둥이라고 하더라.(웃음)

### 게임을 좋아하는 여자는 남자들이 게임만큼 좋아한다. 무슨 게임을 하나?

다들 잘 모르는 게임일 텐데. 요새 나오는 게임들은

잘 안 해서 옛날에 하던 CD 게임을 자주 한다.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이라고... 시리즈별로 지도를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평소엔 모바일 게임도 즐겨 한다.(웃음)

### 모델 한송이가 2명이라 섭외하는 데 혼란을 겪었다. 촬영 전날까지도 불안에 떨었다.

'레이싱 모델'인 한송이는 나밖에 없다. 섹시 화보 같은 건 찍은 적이 없는데도 동명이인 때문에 사람

들이 내가 그런 경력이 있는 줄 알더라. 나는 차원에서 사진을 찍는 레이싱 모델인데 말이지.(웃음)

### 오늘 촬영한 소감은.

요새 들어 방송이나 모델 활동 등 스케줄이 겹치고 비뻐서 사진 촬영을 거의 못 했다. 거의 반년 만에 촬영하니 새삼스럽다. 오랜만에 새로운 활력을 얻은 느낌이라 정말 좋았다.(웃음)

### 언젠가 또 활력이 떨어지면 우리를 찾아와라.

그럼 되려 고맙지. 언제든 불러만 달라! 



구두 슈즈원  
브라 게스 언더웨어

## 한송이

생년월일: 1988년 9월 15일

별명: 본명이 별명.

원래 성은 '양'씨.

취미: 게임

서식지: 영등포 일대



# MAXIM BUYER'S EDGE



## 남자라면 DTRT! 비비라면 갯 레디 비비!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DTRT에서 기능성 비비크림인 갯 레디 비비를 제안한다.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연출하여 남성들이 부담 없이 바를 수 있고 여두은 피부를 환하게 밝혀 준다. 게다가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도포되어 보송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다공성 파우더를 함유해 지속력도 뛰어나고 SPF50+의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한다. 물과 땀에도 강하며, 장시간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장점. 이제 남자도 비비크림은 필수! DTRT가 그대들을 구원해줄 것이다.

가격 39,000원 문의 DTRT(www.dtrtm.com)



## 퀸스블레이드, 100일뽕 한번 뽕뽕하네!

MAXIM의 2012년 7월호 표지 모델인 아이상젠의 게임으로 유명한 MMORPG <퀸스블레이드>가 출시 100일을 맞이했다. (주)라이브플렉스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퀸스블레이드> 출시 100일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전쟁 스샷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유저 중에서 50명을 추첨해 문화 상품권을 선물한다. 또 20시간 이상 게임에 접속한 유저 중 추첨을 거쳐 피규어 3종 세트(메딕, 쉬도우 워커, 워퍼)를 증정한다. 이 외에도 실버 큐브와 컴백 아이템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지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자.

문의 라이브플렉스(02-3446-1711, queens.kr.gameclub.com)

## 쉬크, 신제품 하이드로5 파워 셀렉트 출시!

쉬크가 세계 최초로 면도기의 진동 세기를 3단계로 나누어 조절할 수 있는 파워 면도기 하이드로5 파워 셀렉트를 출시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동 세기를 원터치 버튼 조작으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 다양한 피부 타입과 면도 부위에 따라 자신에게 꼭 맞는 진동으로 최적화된 저자극 밀착 면도를 제공한다. 게다가 LED 전자 표시등이 달려 있어 배터리 수명이 가능하다. 완전 스마트한 이놈. 아, 어제 면도기 샀는데, 흑... 문의 쉬크(www.schick.co.kr)



## 내 여친 류지혜 APP, T-STORE 오픈 이벤트

레이싱 모델계의 레전드 여신 류지혜가 내 여친이 되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여친 류지혜'에서는 그녀가 당신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눈 앞에 그녀가 실제로 있는 듯한 3D HD 영상이기가 막힌다. T-STORE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마침 지금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어서 애플리케이션 '내 여친 류지혜'를 다운받아서 그녀의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살살 녹는 애교를 감상하자. 평생 무료!

문의 내여친 류지혜 (me2.do/GT283M)



## 엠도씨 스킨 포어 프라이머 하나면 도자기 피부 완성!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모공의 크기! 넓은 모공 때문에 피부가 울퉁불퉁해져 속상하다면 엠도씨 스킨 포어 프라이머를 사용해보자. 엠도씨의 스킨 포어 프라이머는 주름이나 넓은 모공을 효과적으로 커버하여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로 만들어준다. 또 피지 컨트롤 파우더가 들어 있어 하루 종일 뽁뽁한 피부를 유지해준다. 어리고 탱탱한 피부, 이제 부러워하지만 말고 엠도씨에 문의할지이다.

가격 13,000원 문의 엠도씨(www.mdockorea.com)



### 〈노인과 바다〉, 연극으로 부활하다

노벨 문학상과 풀리처상을 동시에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극단 앙상블의 무대에 오른다. 2011년 뮤지컬로 공연된 〈노인과 바다〉에서 뮤지컬 넘버를 걷어내고 순수 연극으로 다시 꾸렸다. 제10회 2인극 페스티벌에서 작품상 및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쥔 작품으로 2명의 배우가 1시간 30분 동안 고전 작품의 탄탄한 이야기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공연 내내 재미있는 요소를 담아 고전은 지루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학로 열린 극장에서 오픈런.

가격 25,000원 문의 극단 앙상블(070-7776-6613)

### 에센스도 뿌린다! 헤라옴의 남성 전용 뿌리는 에센스



환절기마다 사정없이 땅기는 당신의 피부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제품을 소개한다. 바로 뿌리는 타입의 에센스인 헤라옴 '셀 브라이트닝 인텐시브 톤업 에센스'. 이 제품은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여 수분을 충전해주고, 미백 기능이 있어 피부를 환하게 가꿔준다. 화장품에 손에 묻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품. 이제부터 헤라옴의 뿌리는 에센스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자.

가격 45,000원대  
문의 아모레퍼시픽(www.amorepacific.com)



### 스테레오 사운드 에이전시, 바이닐 크루저 스케이트 보드 출시

화려하게 골목을 누비는 간지 스케이트보더로 관심받고 싶은 사람은 여기 주목하라. 스테레오 사운드 에이전시에서 유니크한 디자인과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신상 스케이트보드 4종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강도 높은 테스트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프로 보더들의 격한 보딩에도 끄떡없다. 또 10종의 다양한 색상으로 취향대로 제품을 고를 수 있고, 스케이트보드 색상과 동일한 색의 선글라스까지 증정해 패션까지 고려했다. 제품은 국내 스케이트 매장과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스테레오 사운드 에이전시(stereovinylocruiser.kr)



### UFC in MACAU, 슈퍼액션과 함께하라!

오는 11월 10일 토요일 밤 마카오에서 열리는 UFC in MACAU 대회에 사상 최초로 한국인 파이터 3명이 동시에 출전한다. 한국인 1호 UFC 파이터 김동현을 비롯하여, UFC 데뷔전을 갖는 강경호, 동급 최강 리치를 자랑하는 임현규가 그 주인공이다. 사상 최초로 토요일 밤 10시 황금 시간대에 액션 전문 채널 슈퍼액션에서 HD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게다가 한국인 최초 UFC 옥타곤걸로 선정된 강예빈의 섹시한 워킹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증명할 코리아 파이터 3인의 승리를 함께 응원해보자. 문의 슈퍼액션(080-080-0780)



### 소유스킨 남성 청결제, 쏘클린 클렌저

소유스킨에서 은밀한 더러움을 씻어낼 쏘클린 클렌저를 제안한다. 습하고 쉽게 불결해질 수 있는 남성들의 그 부위를 깔끔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성분이 함유돼 자연의 상쾌함이 그곳에 전달된다. 게다가 탁월한 항염 효과로 알려진 일린토인 성분과 천연 속 추출물까지 함유해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청결함으로 그녀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고!

가격 33,000원 문의 소유스킨(02-445-5760)

# 이달의 ~~못~~못못 사진

잡지에 미쳐 싶지 못한 아쉬운 마공개 컷 대공개



### 1 맥주 확보 (p.108~109)

못 쓴 이유: 목 없는 사람이 물구나 무를 서 있는 것 같아서

### 2 Who's that girl 한송이 화보 (p.152~157)

못 쓴 이유: 모델은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등장

### 3 MAXIM 에디터의 노숙인 체험기 (p.90~95)

못 쓴 이유: 노숙자처럼 보여야 하는데 건설 현장 인부 같아서

### 4 짱구 대전 (p.28)

못 쓴 이유: 귀두 같아서

### 5 가비엔제이 화보 (p.82~89)

못 쓴 이유: 뒤에 칼을 든 악당이 힙합스럽게 걸어오고 있어서

● BEAT THIS CAPTION ●



SM 오디션이라고 해서 왔더니...  
- Max Lee -

## W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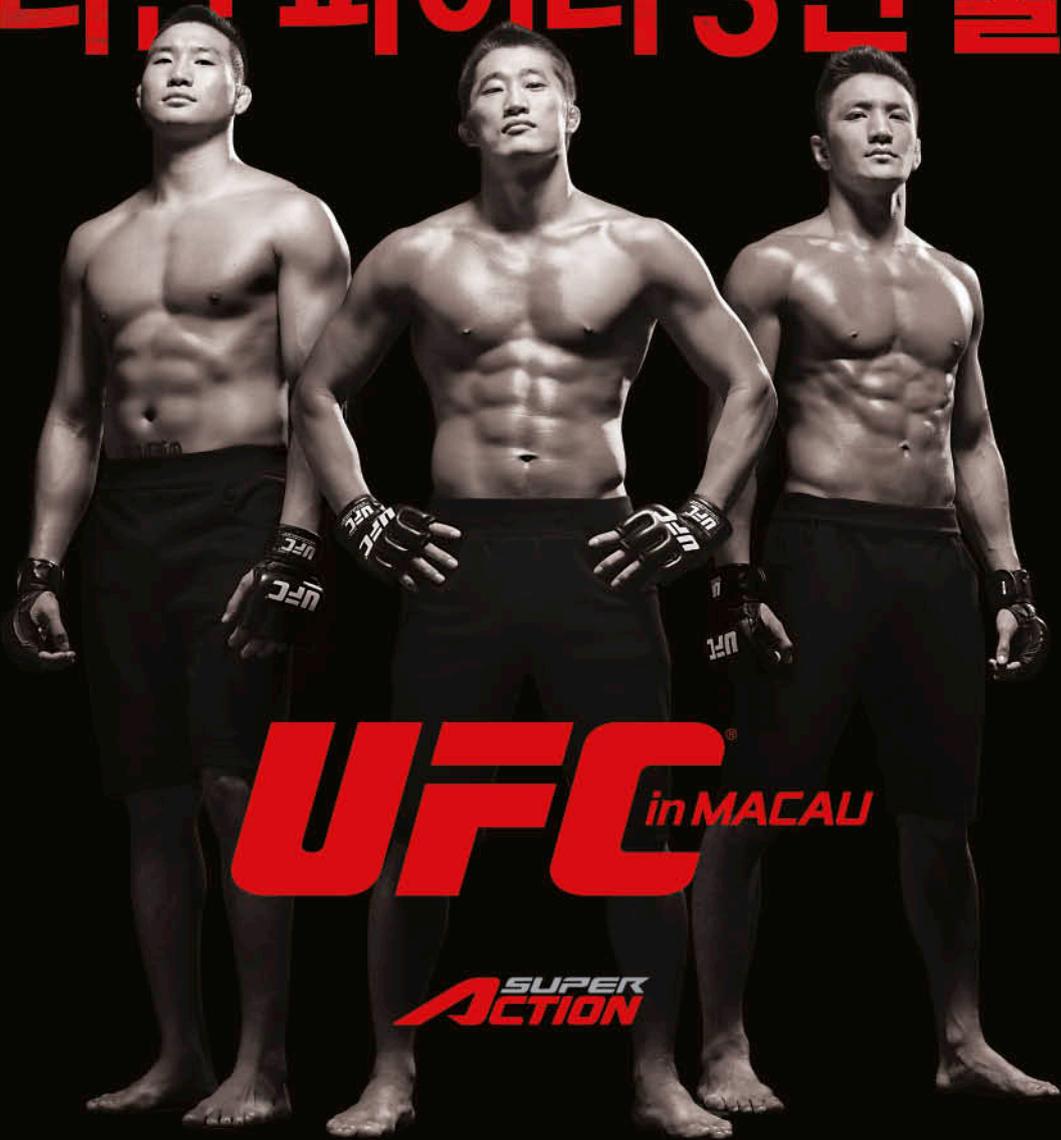
지난달 우승자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지원자들을 상대로 이런 오디션을 벌인다면 양쪽 모두 재미 좀 보겠군요. 아마 심사위원으로 소녀시대라도 나올까 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입장한 순간 이수만 사장이 가죽 벨트만 걸친 채 빨간 양초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면...



아쉽지만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BEAT THIS CAPTION이 막을 내린다.  
그동안 짱구 열심히 굴리며 고민을 거듭하던 독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만사가 형통하고 옥체에서 빛이 나길!

11월10일  
(토) 밤10시  
코리아 파이터 3인 출전



**UFC** in MACAU

**SUPER ACTION**

# MAXIM



KOREA

## SHE'Z

맥심의 여신 발굴 프로젝트 제5탄!  
가수하기 야까울 정도로 섹시한  
신인 그룹 발굴!  
그럼 가수 말고 뭐하지?

## MUSIC

각스, 백두산에 이어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맥심 사무실을 습격했다.  
업무방해죄금 데시벨 작렬

## SEX

국산 패륜킹 총혜왕  
SM 살짝 입문시키는 법  
머신 되는 피트니스  
라면으로 여자 꼬이기

## STUPID

에디터 체험기 5탄: 노숙자  
쓰레기 주워 돈 벌기

## GEAR

여신급 우렁각시 별하 하녀님의  
심장마비 유발성 가전제품 스페셜 화보

한정판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최고의 소장가치, 수제품 푸조 RCZ

다마고치의 재발견

얼리어답터에게 선사하는  
닌텐도의 빅 옛! 3DS XL

## SPORTS

야구 감독은 파리 목숨!

토종 싸꾼 3인의 마카오 침공  
UFC ON FUEL 6

## PARTY

이념초월! 남녀화합!  
밀리터리&비무장지대 파티

코스프레 별천지  
서울 코믹 월드 습격

## WEAPON

갈겨 봐. 지상 최강의 머신 건 5  
살아있는 軍 뺑끼의 神

## ICON: 강용석

MAXIM 표지 모델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NOVEMBER 2012



www.maximkorea.net

